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중국을 주께로

1995년 7,8월

특집/ '97 이후의
홍콩과 중국선교

홍콩반환의 한세기
홍콩인에서 중국인으로
'97년을 앞둔 홍콩의 모습
'97년 이후를 위한 홍콩교회의 선택
이제, 홍콩을 위해 기도의 횃불을 들자



햇불선교센터는 AD2000년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햇불연합회

- * 매주 한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하는 모임으로서 목사, 전도사 및 신학생, 일반부부, 목사사모, 미술인, 육·해·공군 현역 및 예비역 부부, 군인가족, 평신도 등 성격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570-7071~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각 햇불회가 연합해서 1년에 한번씩 햇불대성회와 매월 햇불 연합성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대전, 대구, 부산, 전주, 제주에도 햇불지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선교

- * 세계선교 전략의 흐름에 따라 종족을 단위로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고 있는 해외선교국은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전도 종족복음화를 위해 선교정보를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집하고 있으며, 둘째, 유능하고 숙련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훈련하고, 셋째, 미래의 선교사와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해외청소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지향하는 타 선교단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효과적인 복음 전파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축구단

- * 한국 축구 발전에 공헌했던 할렐루야 선교축구단이 국내외를 순회하면서 친선경기와 함께 간증을 통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업 및 장학사업 지원

- * 해외유학생, 국내신학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회사업 시설 수용 고등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매년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햇불합창단

- * 신앙이 투철한 성악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한국교회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순회연주 활동으로 복음전도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교회 및 연합집회시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햇불성경연구소

- * 본 원의 부설연구소로서 국내외 선교를 목적으로 삼고, 신학을 목회현장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연구하며, 목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원서번역 및 성경공부 교재 집필, 세미나 개최, 평이하고 실체적인 성경강해 시리즈 발간, 강사발굴, 목회 현장에 필요한 주제 및 프로젝트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햇불도서관

- * 목회자, 신학교 교수, 신학생, 평신도를 위한 기독교 전문 도서관으로 소장능력 10만권, 550평의 규모로 많은 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신학생과 목회자만을 위한 열람실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햇불기독교백화점

- * 국내 최대의 주차장 시설을 구비하여 각종 기독교 서적 및 용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송선교, 기독교 종합유선방송사업

- * 전파를 통하여 북방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극동방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5년 국내 유선방송시작과 관련, 21세기 선교매체의 총아인 TV를 통한 시청각 선교를 하기위해 기독교 종합유선방송사업단을 설립하였습니다.

한 중국 진출 사업가의 선교관

이동화

내가 중국에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평소 교제가 있던 중국 친구가 신문 하나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에게 다짜고짜 ‘이럴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가 내민 「한국식 경영」이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은 이러했다. 복건성 복주에 진출한 한 한국 전자회사의 여사장이,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도 오후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계속 담소를 나누고 있던 여공들에 대해서 업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들을 쫓아냈다고 훈시하던 중, 이에 반항하는 여공의 따귀를 쳤다는 것이다. 그 후 이 사건은 중국 진출 외국기업의 인권유린 사례로 대서특필되면서 연일 중국 전역의 신문지상을 장식했었다.

그리고 나서 보름 후 나는 귀국하여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북경의 한 통신원이 문제의 여사장과 통화한 내용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일이 원만하게 수습되었는데도 왜 여론이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중국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드리던 「사내 예배」 때문인 것 같다.’ 결국 이 사건은 ‘한국식 경영’과 ‘한국식 선교’의 합작품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정확히 1년 전 「중국을 휩쓰는 기독교 열풍」이라는 뉴스 위크지의 표지 기사를 연상시키면서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기독교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중국 정부의 강경책은 각지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상당수 외국인 선교사의 활동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예컨대 곤명의 운남대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배정된 기숙사의 절반 가량을 미국인 선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만약 앞서 언급한 여사장의 논리에 의하면 곤명 운남대 기숙사에 기거하던 미국인 선교사들은 당국으로부터 모종의 핍박을 받아야 마땅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 지역과 그 대학을 잘 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이 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일반 유학생보다 저렴한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내고 생활하고 있으며, 주일예배도 계속 드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사역은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두 사건이 이처럼 판이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일까? 전자의 경우 나는 그 원인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그러나 후자 즉, 곤명의 미국인 선교사들의 경우 그 원인은 중국 인들로부터 ‘진정한 친구’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친구가 되는 것이 곧 선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로 인정받지 못하면 중국 선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주께로

1995년 7/8월호 차례



특집/ '97 이후의 홍콩과 중국선교

- 16 홍콩반환의 한 세기 / 권수영
- 23 홍콩인에서 중국인으로 / 李淑文
- 31 '97년을 앞둔 홍콩의 모습 / 강성광
- 35 '97년 이후를 위한 홍콩 교회의 선택 / 盧龍光
- 45 이제, 홍콩을 위해 기도의 횃불을 들자 / 김여호수아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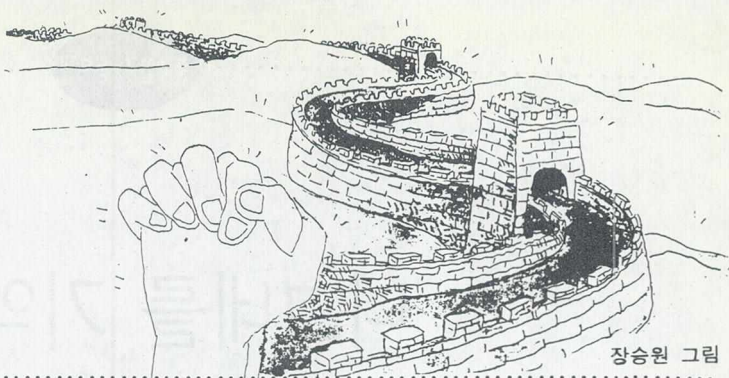
- 57 중국교회의 산 증인 진민란 목사 / 석은혜

선교 · 전략

- 1 발행인 칼럼 한 중국 진출 사업가의 선교관 / 이동화
- 4 중국선교 돈보기 나그네를 기억하라 / 박성주
- 7 선교일언 한국선교의 새 가능성, 독신 선교공동체의 형성 / 송제근
- 61 중국선교의 발자취 청도(靑島) 신설 선교구 / 방지일
- 69 현지에서 온 소식 중국에 정착하기까지 / 황산

선교 정보

- 50 중국을 알자 중국의 세 얼굴, 북경 · 상해 · 천진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편
- 65 중국교회 현주소 부흥회만으로는 안된다. / 梅增知
- 76 오늘의 중국 유학생을 잡아라
- 114 중국선교 참고도서 『중국교회의 부활』 외 2권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편
- 116 중국교회 소식 성경전달 사역자, 중국에서 시체로 발견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편
- 118 중국은 지금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편



인물 · 간증

80 중국선교사의 간증(6) **첫번째 전도여행의 열매** / 허드슨 테일러

86 대륙성도의 간증 **독일에서 만난 하나님** / 淡泊

94 한국교회 중국선교사 인물연구(3)

1913년 중화민국 선교사 사병순 목사 / 김교철

선교마당

63 중국의 문화 **종이 공예(剪紙)**

75 중국 만평 **교불길[歪道]**

107 중국어로 찬양을 你已被揀選(**축복송**)

108 묵상의 샘 **행간의 의미**

110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 **여섯 개의 물 항아리(六缸水)**

112 내가 사랑하는 선교도서 **내 사랑 향하를 불러** / 석은혜

131 선교중국어 한마디 你有沒有來過教會?(**교회에 와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 · 선교단신

122 선교지에서 온 기도편지 **거주의 불안 속에서**

124 '중국을 주께로' 기도 캘린더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편

128 선교단신

자료실

132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개정문)

표지설명

1997년 중국 반환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홍콩.

동양 속의 유럽, 관광과 무역의 도시, 중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왔던 홍콩이 2년 후면 영국의 '보호'에서 벗어나 중국의 일원으로 되돌아 간다. 인력의 해외유출, 정치적 불안감 등 긴장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해도 '97년은 분명 홍콩의 미래에 새로운 이정표로 남겨질 것이다.

나그네를 기억하라

박성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출 23:9)

중국선교라고 하면 대부분의 교회나 성도들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중국선교 외에도 중국선교라고 하면 또 다른 범주의 선교사역도 포함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즉 중국선교의 현장이 중국 현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어느 곳이든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면 모두 다 중국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 일본 등에 진출해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괌(Guam), 사이판(Saipan), 팔라우(Palau) 제도 등지에 나가 있는 중국인 근로자들은 모두 중국선교의 주요 대상들이다. 굳이 중국에 가지 않더라도 중국선교를 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90년을 전후하여 한국에도 수많은 재중교포가 쏟아져 들어왔고, 최근에는 중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입국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유학생의 숫자도 이제 만만찮게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바울이 본 마케도냐인의 환상은 그곳으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는 마케도냐인의 환상은 아예 자신들이 우리 곁으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 나그네요 영적 물고기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용서히 대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낚아야 할 선교적 사명이 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며,

우리 모두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지체없이 본향으로 떠나가야 한다. 우리 자신이 나그네일진대 어찌 한국을 찾는 중국인 나그네들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이들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도 하고 싶어하는 중국선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만일 이 일에 소홀히 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놓친다면 분명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임할 날이 있을 것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을 향한 선교는 단순히 복음만을 전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나그네된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들이 처한 환경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화충격의 문제까지 돌보아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한국 땅에
객으로 머무는 동안 한국 교회
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감싸안고 품어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다.

한국의 고용주들 중에는 나그
네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심지어는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
는 일까지 종종 있다고 들었다.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국으로 돌
아가서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토로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여파는 현지 선교사들에게도 미
쳐서 선교사역에 많은 역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들 나그
네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하
고 복음과 사랑으로 이들을 돌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흡하나마 서울
의 봉천동과 안산, 인천, 안양 등
지에서 이들을 위한 사역이 산
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일에 종사
해 온 소수의 사역자들은 중국
인 근로자에 대한 선교사역에
나름대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
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나
설 때가 되었다. 앞서 개척사역
에 투신한 이들에게 한국 교회
가 힘을 불어넣어 주면서 함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역을 전
개해 나간다면 조만간 한국에서
의 중국선교가 큰 결실을 거두
게 될 것이 분명하다.

나그네를 위한 사역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첫째, 중국현지에서 선교하는
것에 비해 위험성이 없고, 누구
든 뜻이 있으면 쉽게 동참할 수
있으며, 적은 경비로도 큰 열매
를 맺을 수 있다. 중국 내에서의
사역보다도 오히려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그네 사역이다.

둘째, 중국 교포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용이해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만일 한국어를 할
수 없는 중국인이라면 전문 선
교단체와의 협력으로 중국어 사
역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이들은 나그네로서 타
국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과 심적, 경제적 부담이 있다. 그
러므로 이들을 작은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이를 매우 고맙게
여기고 쉽게 마음 문을 연다.

넷째, 한국 교회의 사랑을 받
은 중국인은 현지에 돌아가 기
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그
곳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현지 선교
사들의 선교여건이 유리하게 조
성된다.

다섯째, 한국에서 변화된 중
국인은 현지에 돌아가 그 자신
이 다시 중국인을 위한 전도자
가 된다.

여섯째, 한국의 평신도들이
국내에서도 직접 선교를 경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하
여 선교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
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
다.

이처럼 많은 유익을 갖고 있
는 나그네 사역은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내리시는 특별한 상급이 아
닐 수 없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상급을
최대로 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역의 성공을 위
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
겠는가?

첫째, 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선교는 무턱대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각
지체가 연합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듯, 전문성을 띤 선교
단체나 각 교회가 연합하여 각
각 그 특징을 따라 사역을 분담
하면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진행
하여야 한다.

선교단체는 사역의 전략을 세
우고 전문적인 사역자를 지원하
는 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모임의 장소나 섬기는
봉사자들을 제공하고, 나그네들
에게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대
접하는 일, 그리고 나그네와 이
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
는 기도의 망을 가동시키는 일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는 국내의 중국인들
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
자들을 선교사로 인정하여야 한
다. 중국으로 파송해 보낸 선교
사들과 똑같은 배려와 재정적인
지원이 이들에게도 필요하다.

왜냐 하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선교의 현장은 이곳
한국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

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언하고 싶은 것은 국내의 중국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전임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교회가 이들을 선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중국선교에 대한 연구, 훈련, 출판 등에 헌신하고 있는 전임사역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날마다 힘겹게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다. 이들이 어느 교단에 속했든, 평신도이든 아니면 교역자이든, 분명한 것은 이들이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중국선교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중요한 선교인재라는 점이다. 이들의 존재는 중국현지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로 교회가 중국선교를 감당하고자 해도 중국어를 구사할 수 없고,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인재양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인재는 하루 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소수에 불과한 이들에게 눈을 돌릴 수만 있다면 중국선교는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둘째, 국내에서 활동하는 화교 신분의 교역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지적이 종종 제기되어 왔다. 중국



한국 교회가 협력의 자세로 '나그네 사역'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지난해 추석에 열렸던 <외국인 노동자 초청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국 소녀들.

선교의 주체는 결코 한국 교회일 수가 없다. 중국선교는 중국 교회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다만 보조자로서 중국인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을 뿐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선교는 중국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인 나그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나눔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중국어 사역자의 부족이다. 이러한 실정하에서 중국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양국의 언어에 장애가 없는 크리스천 화교들이야말로 중국선교의 책임자라 아니 할 수 없다. 한국 교회가 이들에게 겸손히 중국선교의 장을 마련해 주고 이들을 뒤에서 후원해줄 수만 있다면 중국선교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인들을 위한 중국어 전도지, 중국어 성경책, 중국어로 된 신앙서적 등의 공급을 위해서는 해외 선교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간체자(簡體字)를 사용하는 대륙의 중국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국어로 된 문서를 제

작하여 공급하는 일은 몹시 힘든 일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홍콩의 CCL(福音證主協會)과 같은 전문선교단체는 이미 문서 사역의 많은 실적을 쌓아놓고 우리들과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들과 협력함으로써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국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CMI(中國福音會)와 같은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들 해외 선교단체들은 오랫동안 중국인 전문가들에 의하여, 한결같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높은 전문성을 확립해 오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을 한국 교회가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 곧 효과적인 중국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협력의 방안들이 그저 공론(空論)으로 그치지 않고 선교의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박성주/ 장로, 중국어문선교회 대표

한국선교의 새 가능성

독신 선교공동체의 형성

송제근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자세

교회 역사로는 이제 겨우 백 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한국 교회는 여러 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복음이 평면적으로 확산되었으나 내적으로 각 교인들의 미성숙한 삶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전 국민 중에서 많은 퍼센트의 신자가 있음을 자랑하나, 한국 사회를 개혁할 주도세력이 되지 못하는 슬픈 현실을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은 한국 밖에서의 도전이다.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기여해야 할 분량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를 과대평가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세계 교회의 지도권을 이어받을 민족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간단한 선교여행이나 오랜 외국생활을 한 사람들이 내리는 명확한 결론이다.

이런 도전의 시기에, 내실을 기한다고

한국 교회의 개혁과 성숙만을 생각하여 영적, 정신적, 물질 에너지를 내적인 방향으로만 쏟는 것만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내적으로 어려울수록 외적인 도전도 같이 받고 그 일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명확히 말하면 우리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탁월하며 신학적으로 가장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양심이 청결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할 때에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다른 민족과 열방을 가장 잘 섬기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직접적인 축복이 되어 채워지는 것을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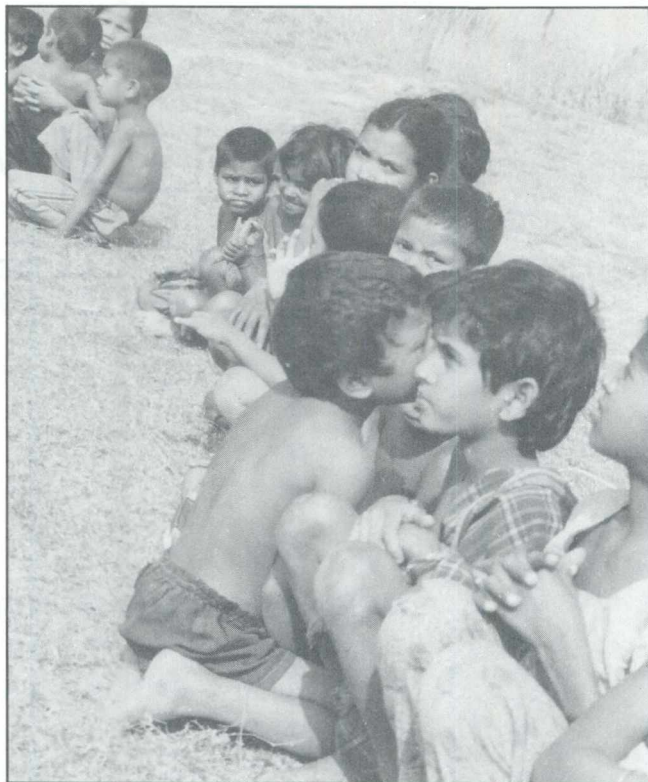
이런 의미에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겨우 100년밖에 되지 아니한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나라의 교회가 우리를 걸으며

드러난 것으로 칭찬할 때에 우리는 쉽게 자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에 대한 역사의를 배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진 모든 영적, 정신적, 물질적 자산에 대하여 극히 겸손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선교까지 가르쳤던 서양 교회와 그 선교 정책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비판해야 한다. 비단 이것은 서양의 선교에 대해서만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막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서양 문화전체에 대해서 그러해야 하고 특히 서양의 신학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한다. 이것은 민족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열심히 전달한 그들조차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으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오류가 되겠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히 돌아가야 할 두 가지의 지향점이 있다. 첫째는 성경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사로 돌아가는 것이다. 먼저 성경 자체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특히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지혜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성경의 본문이라도 새 시대에 새롭게 말할 수 있다는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아무리 잘 알려져 있는 귀절이라도 새 시대가 되면 그 말씀의 진가를 새롭게 발휘할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겸손히 교회사로 돌아가



이제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온 민족과 열방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사진은 인도 빈민가의 어린이들.

서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배워야 한다. 구약에 나타난 것을 포함하면 수 천년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앞에 겸손히 무릎꿇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비록 그 역사를 우리 민족이 몸으로 겪지 아니했으나,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역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 교회에 주신 열방과 방언을 섬기는 선교의 도전을 받기 위하여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선교공동체로서의 독신공동체 형성**인 것이다. 비록 이것이 현대 선교역사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실제 현대 선교 역사

상 거의 시행된 적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날마다 세계는 혼란과 파괴와 어려움 속으로 더욱 빠져들고 있고, 또 그럴수록 주님 재림을 더 가까이 눈 앞에 두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특수 선교단체들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이것은 말세뿐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 어려운 박해를 견디면서도 로마제국 전체에 기독교가 퍼진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선교단체들인 것을 생각하면, 이 독신 선교공동체는 어느 때나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마교의 결혼을 하지 않는 신부나 수녀의 제도는 이런 것의 변용이기도 하다. 이렇기 때문에 로마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선교사를 보내어도 자동으로 독신을 보내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독신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선교공동체로서의 독신공동체 형성의 성경적인 원리

하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복음서에서 주님은 하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고 말씀하신다 (마 19:12). 물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덧붙이고 있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셨다. 그렇다면 마 19:12의 내용은 고전 7장과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독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물론 이런 종류의 말씀을 자주 하시지는 않았으나 이 말씀의 의미는 중요하고 특히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섬기려고 하고 또 그렇게 섬겨야 하는 역사

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니라 (고전 7:38)

이 본문도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준 결론과 같은 것이다. 한국 교회 속에서 대부분 이 구절을 진지하게 받는 것 같지 않다. 너무 실제적인 면을 추구하여서 10년 전만해도 한국 교회 속에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안수를 주지 않았다. 그것은 목회를 하면 그만큼 성적인 유혹이 크기 때문에 결혼을 하여서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통은 불가피하거나 어려운 사정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권고하는 말(고전 7:2,9)과 어느 정도 관계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바울은 더 좋은 길을 소개하는 버릇이 있다(비교: 고전 12:31). 결혼관에 있어서 바울의 더 좋은 길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결혼이 신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결혼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질서요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한 인간으로서, 사역자로서 권리들을 쓰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신약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윤리에 부합되기에 사도가 고전 7:38과 같은 권고를 한 것이다.

사도 바울 자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우를 같은 성경인 고전 9:5에서 설명한다. "내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마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나닐 권이 없겠느냐?"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권세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행전 20: 36~38)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다. 바울이 결혼을 하였는지 아니했는지는 확실한 결론을 맺을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선교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독신으로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독신으로 섬기기로 작정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혼자 있으면 연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선교공동체로서의 독신공동체 형성의 성경 내의 초대교회 자료

바울 전도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전도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적어도 전도대로 같이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이 기간은 주로 장기간이었다- 이들이 독신으로 생활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들이 결혼한 부부가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목적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는(고전 7:5) 바울의 권고를 따랐다면 거의 독신으로 지낸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만약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경우가 있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행 18:2, 18, 26) 바울이 적극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바울이 쓴 편지의 서문에 나타난 동역자들은(예를 들어 고전 1:1의 소스테네, 고후 1:1, 빌 1:1의 디모데) 독신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골 4:7~17은 바울 전도대의 이름이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곳이다. 로마의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적은 동역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하는 예수, 에바브라, 누가, 데마. 아마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들도 독신으

로, 혹은 전도대에 있을 동안은 독신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초대교회에 이런 바울의 선교대를 본받은 독신 선교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수많은 압제 속에 순교의 재물로 드러지면서, 결과적으로 로마를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한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한다.

선교공동체로서의 독신공동체의 교회사적인 자료

파트릭(Patrick)과 콜롬바(Columba)의 선교회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독신공동체의 역사를 남긴 것이 바로 주후 5~7세기에 있었던 파트릭과 콜롬바의 독신 선교회이다. 이들은 로마교가 그레고리 1세의 정치적 수완으로 모든 것을 로마의 통치 아래 두기 전에, 독자적인 교회 형태와 영적인 탁월성을 가지고 있던 아일랜드 교회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이 선교회들은 아마 초대 교회의 독신 선교공동체의 전통을 잘 이어받고 있는 것 같다.

초대 후기 공동체들

이 시기, 특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일어난 중요한 운동은 소위 수도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원 운동은 네 가지 차원으로 그 가능한 발전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 (1) 자신들의 영적인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자신들의 삶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
- (3)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4) 선교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우 등이다.

팔레스타인의 사막지역이나 애굽지역(대표적인 것이 St. Catharina 수도원)에 있었던 수도원과 중세기 중기, 후기의 수도원과 같이 자신들의 수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성경을 베끼는 일을 주로 한, 낮은 차원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현대에 기독교 매스컴을 통해서 소개되는 많은 공동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를 위하여 특수한 면의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직접 봉사하는 집단인 네 번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초대 교회 후기 공동체 중에서 바울의 전도대의 전통을 따르는 이런 공동체들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로마교의 정치적인 독식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통들이 중세의 저차원적인 수도원의 모습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에 이런 전통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다.

중세의 선교회

중세의 수도원이 모두 다 자신들의 수도만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세 번째 차원의 공동체도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세 후기 이슬람 속에서 선교하기 위하여 노력하다 순교한 프랑스의 레이몬드(Raymond)의 선교회를 들 수 있다. 레이몬드 자신은 결혼을 하였으나 모든 재산을 부인과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홀로 선교의 길로 나섰다. 그리고 아랍어를 조직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며 그것을 행할 선교회를 조직한 것이다. 중세기 개념으로 수도원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이는 명백하게 우리가 찾

는 독신 선교공동체임이 틀림없다. 그런 독신생활의 결과, 현대에 보기에 놀라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아랍선교에 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신 선교공동체의 최대의 장점이 발휘된 것이다.

도나후 선교회

필자의 얼마 안되는 선교역사에 대한 지식으로는 현대선교에서 독신 선교공동체가 극히 드무나, 그 대표적인 것으로 도나후 선교회를 꼽을 수밖에 없다. 이 선교회는 인도 선교를 위하여 조직된 여성 선교회로서, 특히 그 사역의 확장에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것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후기는 여성들만이 모인 곳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들이 생기므로 힘이 약해졌다는 기록도 있다.

봉사를 위한 공동체와 독신선교사들

지금도 서양에는 사회적인 봉사를 위하여 독신 공동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가족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 영국 버밍햄(Birmingham)의 'St. John's House'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적어도 간호사 자격 이상을 가진 여성들의 공동체로, 낮에는 모두 근처의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봉사하고 밤에는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서의 영성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런 기관이 좀 더 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공동체의 이념으로 삼고 선교현지로 나간다면 의료복지가 탁월하게 잘된 영국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있는 결과를 가질 것이 아닌가?

또 선교역사상, 독신 선교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활동하지는 아니하였

지만 개별적으로 독신으로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일반 선교단체 속에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독신들끼리의 공동체 속에서 활동한다면 그 응집력과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부인들을 통하여, 전도가 잘 되는 지역에서 여성선교회들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현대 선교의 큰 걸림돌인 자녀 양육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자 축복이다. 그러나 선교의 현실은 냉혹하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교의 최대의 걸림돌은 자녀 양육이라는 문제이다. 선교사치고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물론 자녀들이 나중에 또 다시 선교사로 나서는 결실을 맞이할 때에 더없는 기쁨을 누리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 양육의 문제는 선교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는 요소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기도 한다. 자녀가 바르게 양육되고 난 뒤에 다시 와서 하기도 하지만 …….

이런 선교의 큰 걸림돌인 자녀 양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신 선교공동체이다. 육적인 자녀 대신 영적인 자녀들을, 그것도 선교지 현지에서 출산하고 기르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면 이만한 일석이조는 어디 있겠는가?

한국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적인 상황 가운데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 할 세계 교회의 상황도 고려하여야 할

.....

**독신 선교공동체는 지역교회와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 구체적인 지역교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것이다. 물론 이 제의는 아직 이런 이상
을 가지고 실제 선교를 해 본 결과에서
나온 것은 아니기에 추상적일 수 있다는
약점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니, 나중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역교회와의 연관을 가진 조직으로 형
성되어야

독신 선교공동체는 지역교회와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 구체적인 지역교회의 적극적인 도
움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연령, 성별, 학식
과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이는, 이
땅 위에서의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인 지
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어야 하고, 이 지역교회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이런 특공대 형식의 공동체
가 많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
론 지역교회는 단순히 교회당 짓고 자신
의 눈에 보이는 세력 확장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누어 주
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이런 일과 함께 가능한 사역의 다양화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에
지역교회는 이런 선교단체의 설립과 유
지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또 독신
선교공동체가 독신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을
지역교회와의 연관성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

팀 선교(Team Ministry)

팀 선교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각
각 영적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
에서 선교지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
기 위하여, 각각의 자기 전공을 다양하
게 가질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고급 지
식과 정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일사불란한 지도체제

그럴 뿐 아니라 이들 내부에서 가져야
할 것은 일사불란한 지도체제이다. 이
선교회는 하늘 위에서 낙하산으로 적지
에 떨어뜨려지는 공수특공대와 같기 때
문에, 효과적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지도
체제의 조직이 필수적이다. 영적으로 적
지에 들어가서 공동체 자체 내에서 영
적, 정신적, 물질적 문제를 자급자족하
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체적인 삶을 실제로 나누는 훈련을
오랫동안 하여야

그렇게 되기 위하여 선교지에 가기 전에
같이 공동체로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경험
을 장기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훈련에
서 모든 공동체의 일원이 합심하여 자체
속에서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
어야 한다.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 그
리고 정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
져야 한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의 영역에 속한 모든 부분에서 개개인이
성숙하고 완전한 인격체가 되도록 훈련
을 받아야 하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같
은 공동체 내에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
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
인 면에서도 자급자족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기 위하여 사도행전 2, 4장에서 나



독신 선교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영적 전쟁의 특공대와 같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교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청량리 다일공동체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

타난 바와 같은 물질 공유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할 것이다.

독신선교회를 위한 이론가, 실천가들이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서 나와야 형제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매들 중에서도 이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자기의 전공에 대해 고급지식을 가지고, 또한 동시에 최고의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물론 목회와 선교의 실천에 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선교공동체로서의 독신공동체 형성의 이론가와 동시에 실천가로 일어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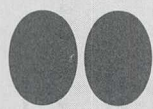
이 글을 적는 필자는 이 일을 완전하게 하기에는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다.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 자신이 목회하는 지역교회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런 선교회가 지역교회들과 관련 맺는 일을 후원하며, 또 신학교에서의 가르침과 글 쓰는 것을 통하여 독신 공동체 형성을 이론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도전은 어렵게 생각하면 짐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허물어져 가는 서양 교회와 그 지도체제인 서양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며, 새 시대에 새로운 진리를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여 새로운 지도체제를 교회에 적용할 일거리가 주어졌다. 이것을 취하여 수행하면 그것은 훗대가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포기하면 훗대는 다른 민족교회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그대로 받고 실행하는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특공대와 같은 독신 선교공동체가 한국 교회 속에서 형성되고 선교역사의 획기적인 장을 여는 시기가 곧 열리기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송제근 /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열린교회 담임목사



특집/'97 이후의 홍콩과 중국선교

유럽 열강이 아시아에 탄생시킨 역사적 유산 홍콩.
 대영제국 식민지주의의 상징이기도 했던 홍콩은
 1984년 12월, 중영(中英)합의서 정식 조인,
 1985년 5월의 합의문 발효에 따라
 1997년 7월 1일을 기해 중국에게 반환된다.
 홍콩의 반환은 중영 당사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역사적인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중국선교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홍콩 반환은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97 이전과 이후의 홍콩과 중국선교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든 간에,
 분명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선상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지는 홍콩의 과거와 현재를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홍콩이 겪게 될 정치·사회적인 대변혁은 무엇이며,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중국선교를 대비하고 무엇이 우리의 과제인지를 생각해 보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 특집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중국선교를 점검하고 새로운 선교의 안목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홍콩

공식명칭: Hong Kong(香港)/ 홍콩지구: 홍콩 섬(HongKong Island)/ 구룡(Kowloon), 신계(New Territories).
 소속: 영국령(1997년 7월 1일부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인구: 590만(1992년 말)/ 공용어: 영어, 광둥어, 표준어(만다린).
 상용어: 광둥어/ 종교: 도교, 불교, 기독교/ 위치: 영국 점령 전에는 중국 광둥성 신안현(이후 보안현)이었으나 현재는 심천시/ 기후: 아열대 몬순형, 변화가 많으나 연중 섭씨 22~23℃ 정도의 따뜻한 기후로 사계절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
 지형: 구룡지대가 많고 경사가 심해 경작 가능지는 전 면적의 6.4%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구룡반도 서북부에 편중되어 있음. 이와 같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구룡지구를 경계로 하여 남쪽은 상공업 및 주거지역, 북쪽은 농업지역으로 개발되어 있음.

홍콩반환의 한 세기

권수영

영국의 식민지 홍콩

아편전쟁에 이르기까지

홍콩은 중국의 근대 역사 한가운데서 탄생한 동서양의 합작품이다.

18세기 중엽 유럽에서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이룩하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한 대영제국은, 당시 공업제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획득하고자 인도에 뒤이어 중국으로의 진출을 꾀하였다. 그러나 중화사상과 구래의 봉건 조공체제(朝貢體制)의 틀 속에서 유럽 제국주의 열강세력을 맞은 당시의 청(淸) 정부는, 가톨릭교에 대한 금교정책(禁敎政策), 선교사 축출 등 쇄국, 배타적인 정책에 의해 고립을 자초했다.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동양 무역에 진출한 영국은, 인도에 이어 중국 무역에도 손을 뻗치기 시작하였으나 그 결과는 그리 신통하지 않았다. 중국이 외국과의 무역을 광둥성 광주(廣州) 한 항구로 제한했을 뿐 아니라, 모든 무역은 공행(公行)이라는 특허 상인들에 의해 독점 대행되어 광주에서의 무역도 제한이 뒤따랐기 때문이었다. 당시 청나라 정부는 외국인이 중국어를 배우는 것조차 금지했고, 상인들은 잠깐 광주에서 거래를 한 후 마카오에서 머물러야 하는 형편이

- 1840 아편전쟁 발발
- 1842 남경조약에 의해 홍콩 섬 영국에 할양
- 1860 북경조약에 의해 구룡반도와 Stonecutters 섬 영국에 할양
- 1898 신계(New Territories)를 1997년까지 99년 간 영국 조차지로 협정 체결
- 1938 일본군 광둥(廣東) 점령
- 1941~1945 일본 점령기
- 1946 홍콩정청 재수립
- 1950 중국에서의 난민 유입 급증으로 중국 본토와의 국경 폐쇄
- 1979 구룡~광주간 구광(九廣) 철도 재개통
- 1982 홍콩 장래에 관한 중·영간 협상 개시
- 1984. 12 조자양-대처 수상간에 홍콩반환협정 정식 조인
- 1985. 7 중·영간 홍콩 기본법 기초위원회 결성
- 1987. 5 D.Wilson 신임 총독 취임
- 1988. 2 홍콩정청, “대의정치제도백서” 발표
- 1988. 4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초안 발표
- 1990. 4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중국전국민인대회 통과

었다. 영국은 여러차례 중국에 외교사절단을 보내어 이 문제를 타결하려 했으나 쌍방의 대답이 계속되었다.

당시 영국은 중국에서 차, 비단, 도자기 등을 수입하고 모직물, 시계, 유리 등을 수출하였는데, 수입이 수출을 역조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대량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산업혁명으로 많은 자본을 필요로 했던 영국에게 이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은을 지출하지 않고, 중국의 상품은 상품대로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영국은, 결국 인도에서 아편을 가져다가 중국에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에서는 이로 인해 막대한 은이 유출되었고, 아편 무역은 영국에 유리하게 되었다. 이것은 1799년에 제정된 청 정부의 아편수입금지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839년 광주(廣州)에 흠차대신(欽次待臣)으로 파견된 임칙서(林則徐)는 서양 상인들에게서 아편을 몰수하여 광장에서 이를 불태웠다. 7월에는 술에 취한 영국 수병이 구룡(九龍)에서 중국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영국 측은 가해자의 인도를 요구한 임칙서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상에서 재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중·영 쌍방의 대답은 더욱 긴장되었다. 당시 기회를 찾던 영국 외상 팔머스턴은 이 일을 보고받자 즉시 원정군을 조직하여 영국의 상무감독 엘리엇(Charles Elliot)를 총사령관으로 파견하여 6월 광주에 도착하였다. 영국군은 광주를 봉쇄하고 바로 북상하여 대호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아편전쟁**이다(1840. 6~1842. 8).

홍콩 섬이 영국의 식민지로

1841년 1월 20일 **천비조약**(穿鼻條約)을 맺고 영국 해군이 홍콩 섬에 상륙하여

영국국기를 게양함으로써 홍콩은 영국령이 되었다. 그러나 양국 정부 모두 이 조약에 불만족했다. 청 제국은 대노하여 나라의 수치로 여기고 거국적인 적개심을 발산하기에 이르렀다. 즉시 황제 특사 기선(琦善)을 파면하고 체포하여 쇄사슬에 끌고 갔다. 한편 영국 정부도 황무지 작은 섬 하나를 전쟁의 대가로 획득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홍콩섬의 접수를 거절하였으며, 엘리엇를 소환하고 대신 포팅거(Henry Pottinger)를 임명하여 보냈다.

그는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무력행사를 하여 하문(廈門), 영파(寧波)를 거쳐 1년 후 상해, 남경을 공략, 청 정부는 기영(耆英)을 파견 **남경조약**(南京條約)을 체결하게 되었다(1842. 8). 5개 항구의 개항, 홍콩의 할양, 영국인의 자유무역 허용 등 온통 중국에게 불평등한 내용의 조약이었다.

두 번째 중·영 전쟁의 발단은 애로우(Arrow) 호 사건이다. 청 제국의 해군 사령관이 홍콩 선적의 배를 해적선으로 알고 수색, 검문하여 선원을 체포하자, 영국 측은 항의하고 선원의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청은 일부만 석방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한편 개항지에서만의 선교활동을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지로 깊숙이 들어가 선교 활동에 종사하던 프랑스 선교사 샤프드레이느가 광서성 서림현(西林縣)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기화로 영, 프 연합군이 조직되어 이른바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천진조약**(天津條約)을 맺게 되었다(1858. 6).

그 후 사절인 홍콩 총독이 의사표시를 하러 북경에 가는 도중, 대고(大沽)에서 화를 당하자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1859). 이 결과 1860년 10월 **북경조약**

(北京條約)이 맺어지고 구룡반도가 조차지로 영국에 영구히 할양되었다.

조차 초기에는 청나라 정부가 개입하여 신계 지역과 구룡 일부에 통치권을 행사하다가, 1898년 열강들이 중국에서 각자의 세력 범위를 확보하려는 기회를 탄 영국이, 중국 정부를 압박하여 구룡반도의 많은 토지와 부근의 200여 개 섬(후에 신계(新界)라 통칭)을 강제로 조차지로 하고, 그 기한을 99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1997년 6월 30일이 조차 만기가 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1899년 4월부터 영국이 전적으로 통치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영국 식민지 홍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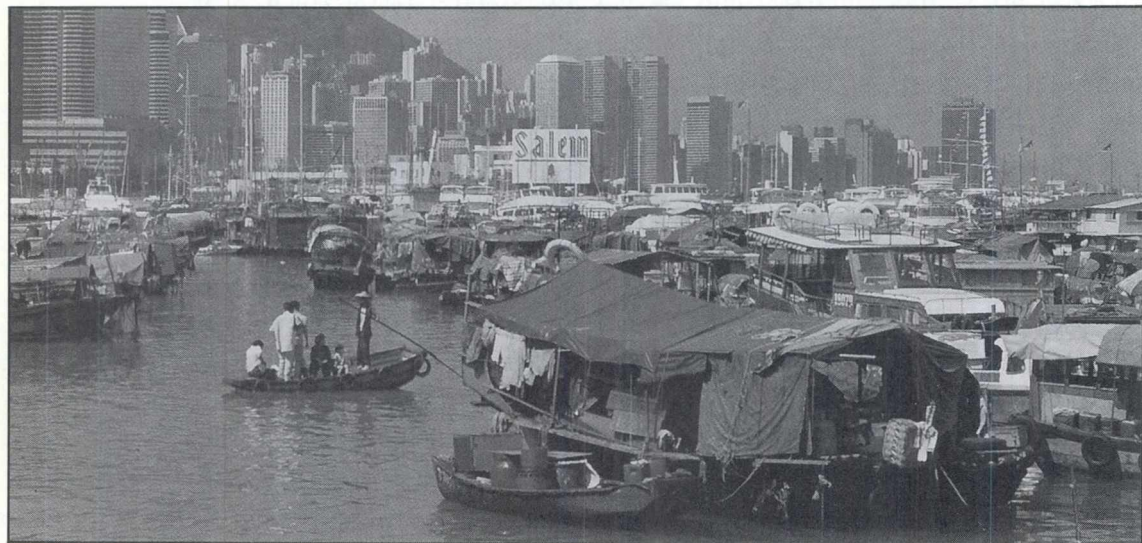
조그마한 돌 섬이 동양의 진주로

홍콩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다. 조그만 섬이 병풍같은 돌산으로 되어 있어, 평지는 없고 집을 짓기 어려웠으며 물이 부족하여 처음부터 선상생활을 하는 어민이 중심이 되어, 20여 선상부락이 흩어져 살던 천연자원 항구가 가졌던 곳이다.

영국의 식민지가 된 초기에 홍콩은 온갖 범죄와 창녀의 소굴이었으며, 열병과 태풍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였고, 소수의 외국인이 중국인을 통치하고 있었다. 1851년 이후 대륙에서 이민이 몰려오자 인구가 증가했고, 화교들의 통상 중심지와 중국무역의 통로로 발전하자 원양어선과 무역교선의 집합지가 되어 동서양의 무역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인구는 더욱 늘어났다.

일본이 2차 대전 중 3년 8개월 동안 홍콩을 통치하면서 인구가 60만 명으로 감소되었다가, 일본이 항복한 후 1945년 8월 30일, 영국이 즉각 군정을 실시한 후 1947년에는 다시 180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대륙의 정권을 잡으면서 광둥성과 상해 지역에서 대량의 중국인이 이주해오면서 1950년에는 220만 명이 되었다.

대륙의 문화혁명 기간 동안 잠시 경제 발전에 영향이 있었지만 꾸준히 무역이 지속되므로 천연항구는 계속 개발되었고, 단혀진 중국방문의 대문 역할을 하면서 여행객이 급속히 늘어나자 인구 증



현대식 고층빌딩과 대조되는 동라만(銅鑼灣)의 수상가옥. 영국에 조차되기 전 홍콩은, 선상 생활을 하는 어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돌섬에 불과했다.

가는 물론 여행객의 증가로 590만 인구에 600만 이상의 인구가 홍콩에 거주하고 있다.

홍콩 반환의 역사

중·영 협상이 케도에 오르기까지

중국은 1949년 이래 대만, 홍콩의 주권 회복을 통일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었다. 모택동 시절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홍콩은 중국의 영토이며, 중국은 제국주의가 억지로 강요하여 체결한 세 개 불평등 조약을 승인하지 않으며, 적당한 시기에 담판으로 홍콩을 중국의 주권 아래 귀속시킬 것이며 그 전까지는 잠시 동안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혁명이념을 강조하는 통치노선을 추구하였던 모택동 시기에 홍콩의 귀속을 포함한 중국의 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

그러나 모택동 시대의 종언과 함께 중국의 대홍콩 정책은 바뀌게 된다. 덩소평을 위시한 실용주의자들은 자국의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무력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의 최대 당면 목표로 설정한 근대화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홍콩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 강화하기 위한 자금과 기술의 도입 원으로써 홍콩의 가치를 이전보다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홍콩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이전보다 더욱 실용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한다. 이전까지의 협상 유지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은 영국 측과 1982년부터 이 문제에 관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중국이 홍콩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이유는 홍콩과의 관계 재정립

이 4개 현대화 추진을 유리하게 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홍콩관계 정립이 대만과의 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지도부의 판단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중국은 대만과의 궁극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중간단계로서 홍콩과의 통합을 우선 실현코자 하는 통일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홍콩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일국양제(一國兩制)

중국은 제11기 3중전회 후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조국을 통일하고,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보위한다는 3대 임무가 제기되었고, 덩소평은 ‘한 국가 두 체제(一國兩制)’로써 대만과 홍콩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상을 제기하였다.

1982년 9월 영국 수상 대처가 중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2차례에 걸친 약 2년간의 회담 끝에, 중·영 양측은 '84년 9월 홍콩문제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홍콩의 장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골자는 97년에 영국이 홍콩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이후의 홍콩 통치는 향후 중·영 양국의 합의하에 제정될 기본법(Basic-Law)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97년 7월 이후 홍콩은 중국으로 주권이 이양되나, 특별 행정구역(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으로 남음으로써 높은 수준의 자치를 향유하며, 행정, 입법과 독자적인 사법권을 갖게 되고 기존의 경제, 사회 제도는 일국양제의 원칙하에 97년부터 향후 50년 간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홍콩이 갖고 있는 자유 항구의 지위와 국제 무역, 금융 중심의 지위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홍콩은 다른 국가나 지역과 계속해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국양제의 골자는 정치적으로 대만,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의 주권에 편입되더라도 하나의 중앙정부 아래에서 제한된 자치권을 부여받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위주로 하되 서로 다른 제도가 과도기적으로 병존 실시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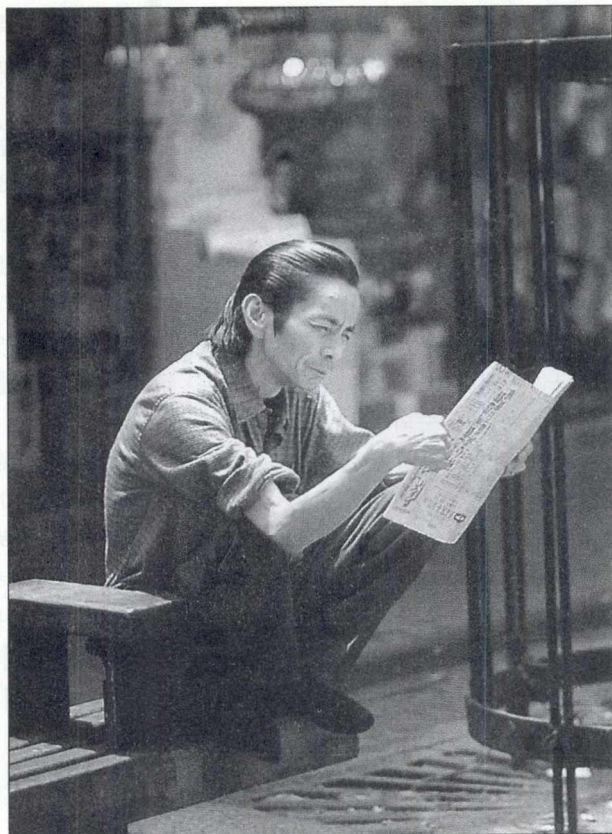
홍콩인들의 불안 심리

그러나 동 기본법에 의해 '97년 이후 50년 간 항인치항, 항법치항(港人治港, 港法治港)이라는 상당한 자치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9년 6·4 천안문 사태로 인해 홍콩인들의 중국 정부 및 군대에 대한 불안이 극도로 팽배한 가운데, 홍콩 장래에 관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이민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홍콩정부의 큰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권국인 영국은 홍콩의 고급인력 유출현상을 완화하고 영국 이민 희망 홍콩인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1990년 4월 영국국적법 법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이는 최악의 경우 홍콩인이 홍콩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시켜 홍콩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킴으로써 실제로 홍콩 주민의 탈 홍콩을 방지하여 홍콩의 안정을 유지케 하려는 것이다.

부딪히는 중·영의 이해관계

협상이 종료된 84년 이후부터 중국과 영국은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해가 일치하고 있으나, 주권 이양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여러 면에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즉, 반환전의 기존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반환



'89년 6·4 천안문 사태, 등소평 사후에 예상되는 정치적 불안감 등이 홍콩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후에도 기득권과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영국 정부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홍콩에 대한 통치권과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간에는 이해의 상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중·영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홍콩 주민의 자치권에 대한 문제였다. 영국은 97년까지 영국이 홍콩에 대해 서구식 민주주의의 제도를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것을 97년 이전이라도 홍콩 통치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경제, 사회제도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간주하였다.

중·영 양측은 통치권 이외에 경제운영

에 관해서도 커다란 마찰을 경험하였다. 문제는 '84년 합의 이후 홍콩 경제에 관한 주요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관해 가장 첨예한 이해의 충돌을 보인 이슈는 홍콩의 항만과 공항 개발계획과 관련한 것이었다.

80년대 말 영국 정부는 홍콩경제의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새로운 항구와 공항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의 반발에 봉착하였다. 160억 달러 이상이 드는 대규모 건설의 결과로 홍콩 정부의 재정이 고갈됨으로써, '97년 주권 이양 이후 홍콩 경제가 침체될 것을 우려한 중국이 계속적으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런 마찰을 통해 중국 측은 영국이 홍콩을 중국의 자치지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홍콩이 중국 경제의 전반적 계획에 통합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여겼다. 반대로 영국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를 저해한다고 인식하였고 결국 중·영 양측의 불신이 고조되었다.

장래에 대한 전망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된 후에도 예전과 같이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인가? 본토 귀속을 2년 앞두고 이 문제에 관한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인 시각이 혼재하고 있다.

낙관적 전망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적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의 장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우선, 향후 중국통일의 최종목표인 대만과의 통합이 실현되기까지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홍콩에서의 '일국양

제'의 성공적 시행은, 앞으로 대만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중국 측의 협상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홍콩 안정과 번영의 유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홍콩은 중국의 4개 현대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선진기술의 가장 중요한 도입원으로서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홍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 귀속 후에도 기본적으로 현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비관적 전망

여전히 홍콩의 장래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로서, 경제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자본과 고급인력의 지속적인 유출, 정치적 지도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구조적 취약점 및 중국과의 체제상의 큰 차이점들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홍콩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상기하여 볼 때, 향후 중국 정치에 관한 불확실성이 바로 홍콩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중국 개혁, 개방의 총설계사인 덩 소평 사후의 권력 변동으로 예상되는 불안정한 국면이 그것이다. 중국 정치의 안정과 개혁, 개방정책의 지속이 홍콩 주민이 갖고 있는 장래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중국 정치 상황을 홍콩의 장래에 관련하여 예의 주시할 필요가 매우 크다.



‘영국의 식민지 홍콩’. 그러나 ‘97년 7월 1일이 되면 영국 국기 대신 오성홍기(五星紅旗)가 휘날릴 것이다.

홍콩 반환의 역사적 의의

홍콩의 본토 귀속은 중국에게 매우 큰 역사적 의의를 안겨줄 것이다. 홍콩의 중국 귀속이 실현되면, 이는 역사상 자본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초유의 일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의 중국 침탈이라는 굴욕적인 역사가 종결되고, 중국 영토 내에서 제국주의의 유산이 청산됨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통일의 이론인 ‘일국양제’가 실천적 의미를 갖게 되어 대만과의 통일 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 홍콩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음에 비추어 홍콩과 중국의 통합은 향후 중국의 대외경제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 양영학, 「선교지 홍콩을 가다 1.2.3」 『빛과소금』, 1994. 10, 11, 12월호
- 이홍표, 「1997년 이후 홍콩의 장래」, 『중국연구』, 한양대중소연구소, 1993 가을호.
- 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시장 국별시리즈-홍콩』, 1990
- 대한무역진흥공사, 『홍콩의 경제구조와 1997 이후의 전망』, 1989
- 혼자 와 지로우, 『중국 리포트』, 겨레, 1994
- 강명상 편역, 『21세기의 중국대륙』, 융성출판사, 1988.
- 중국인민출판사 『등소평문선』, 범우사, 1994.
- 『Newsweek-한국판』
 「홍콩총독-중국의 압투」, 1992. 11. 25
 「홍콩 신공항 건설 전도 불안하다」, 1994. 1. 9
 「중국 눈 밖에 난 ‘노블 하우스」, 1994. 2. 9
 「중국 민주화 없이는 홍콩미래 암담」, 1994. 4. 5
 「홍콩 현체제 과연 유지될까」, 1995. 5. 10

홍콩인에서 중국인으로

'97 홍콩반환 900여 일을 앞두고

李淑文

이 글은 홍콩에서 태어나 중국인이기 보다는 홍콩인으로서 삶을 살아온 한 크리스천의 자기 성찰적 글이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있는 많은 홍콩인들,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중국인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것을 도전함과 동시에, 이후 중국 대륙의 일부분이 될 홍콩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하여, 홍콩반환을 앞둔 대다수 홍콩인들의 심리를 이해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서 책임있는 크리스천으로서 남길 원하는 작자의 강한 열의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구 백여 일 후면 드디어 홍콩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어떤 심정으로 '97년을 맞이하는가? 어떤 이는 기뻐하며 흥분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이젠 죽었구나'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조와 불안감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97년이 희미한 내일 같아도 사실은 이미 눈앞에 다가왔다. 당신은 그 날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중국인이다.”

'97년 이후 홍콩의 중국 반환은 합리적이고 당연하며, 정말로 기뻐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려고 한다. 많은 홍콩인들이 차라리 영국의 속지국민으로 남아서 영국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모순된 것이다.

식민지 교육이 성공을 거두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홍콩에서 태어나 성장한 세대는 대부분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으며 중국을 향한 마음은 더더욱 갖고 있지 않다.

한편 기성 세대는 대부분 대륙에서 피난 나와 홍콩에 머무르게 된 경우라, 당연히 공산당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 더욱이 중국은 10여 년 간, 정치, 경제 방면을 막론하고 사람들을 실망시켜왔다. 정부 관료들은 사람들의 고개를 흔들게 만들었다. 개혁 개방 전에 '중국'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광경을 떠올렸으나, 개혁 개방 후에는 탐관오리들의 '부정 부패'를 떠올리게 되었다.

중국의 제도, 가치관, 일상적인 법규,



길거리에 나와서 마작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홍콩의 노인들

심지어 생활 습관조차 우리와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우리의 이상,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기 싫어한다.

홍콩인은 바로 이러한 모순 속에 처해 있다. 영국은 그저 양부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를 '돈 굶어내는 기계'로만 생각하지, 훌륭한 인재로 키우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또 자신의 품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주 낮설고 서먹서먹해 하면서 저들이 너무 무모하고 독재적이라고 느낀다. 우리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양부모와 같이 있을 때보다 결코 편안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차라리 양부모의 "그들 밑"에서라면 최소한 자유와 방종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부자들은 재산을 몽땅 챙겨 타국으로 가서 차별대우를 받는 2등 시민으로 남기를 고집한다. 또 남아 있는 자들은 마치 아무런 미래가 없는 듯 분노로 가득차 있다. 타지역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놓고 왈가왈부하진 않겠으나, 남아 있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97년 이후의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나는 중국인'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중국인인 이상, 나는 중국의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중국은 나의 고향이며, 나의 국가이고, 나는 그 일원이다. 나와 국가는 이와 잇몸처럼 서로 의지해야 하는 관계이다.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대다수의 홍콩인들이 식민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지만 사실 우리의 핏줄 속엔 5천 년 중화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알게 모르게 배

어 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습관, 처세술 역시 중국 문화의 색채를 띠고 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부지런히 뛰면서 번영하는 홍콩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날 자랑스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중국 문화의 장점이다.

그러나 늘 우리가 도외시해온 ‘뒷거래(走後門)’, ‘가부장제(家長制)’ 등 중국 문화의 결점들을 당신 스스로 발견한 적은 없었는가? 뒷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예를 들어 취직, 자녀들의 입학 등)?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태껏 가부장제를 고집하고 있는가?

단지 오늘날 법규의 제한 때문에 우리가 뒷거래와 독재정치로 갈 틈이 없을 뿐이다. 만약 중국을 멀리하듯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교만과 방자함이다. 왜 우리는 중국에 대해 좀 더 넓은 이해와 사랑을 나눌 수 없는가?

중국의 현상화에 대해 불만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부모인 중국 정부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원망할지라도(사실 수십 년 동안 홍콩은 물질적으로 중국에게 많은 공급을 받아왔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나는 중국인’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로 인해 어찌할 바 모르고 실망하기보다는 중국의 현실과 중국인이라는 신분을 수용하고, 12억 중국인을 나의 동포로 생각하는 적극적인 각도에서 자신의 신분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기독교인이면서 중국인의 신분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사도바울이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 칭했지만, 우리는 그가 가졌던 동포에 대한 깊은 사랑을 무시할 수 없다(비록 그를 펍박한 사람들 역시 그의 동포였지만).

그는 형제, 골육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기 원했다. 즉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원하던 바’였다.

중국을 위해 우리는 조금도 희생할 수 없는가? 이 때가 바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분노하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이다.

솔직히 말해,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국가)에게 사랑을 베풀기는 실로 부담스럽고 쉽지 않다. 백화(白樺)가 《고련(苦戀)》이라는 작품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우리 역시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나는 온 정성을 다해 이 나라를 사랑했는데, 그렇다면 내 나라는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할 가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았던가?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푸시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은 종종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길 원한다.

초조함을 극복하자. ‘누가 미래를 볼 줄고 있는지 우리는 안다.’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건국 이래 끊임없이 계속되어온 정치 운동, 비판 투쟁, 그리고 10여 년의 문화대혁명, 64 사태...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불안과 당혹감을 가져다주었다. 과거의 역사를 근거로 '97년 홍콩의 상황을 예측하자면 아름다운 미래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어찌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문화대혁명이라는 참사의 재현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흐릿한 미래가 바로 초조함의 원인이다. 그러나 과연 과거의 역사가 정확하게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역사적 사건이 재현될지 안될지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과거 역사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저 단편적인 자료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역사는 수레의 바퀴와 같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를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의 사건이 반드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비교해 보자면 오늘날과 49년 전의 ‘배경’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우선 오늘날의 중국에서 공산주의는 이미 몰락했으며, 4대 견지(堅持)는 구호에 불과하게 되었다. 49년 전, 혹은 문화대혁명 기간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공산주의에 대한 꿈과 이상, 격정은 사라졌다. 만일 있다 해도 일부 이익을 취한 자들이 마르크스·레닌 그리고 모택동 사상을 빙자하여 자신의 세력을 견고히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어떠한 이상과 꿈으로 이 전체국가의 인민 군중을 끌어들이며 대규모의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현재 중국의 목표는 4대 현대화로서, 안정과 부강을 추구하는 것이다. '79년 이래 개혁개방의 노선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해 왔는데, 지금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만약 중국이 지속적인 개혁 개방을 유지한다면 당연히 어떠한 대규모의 정치운동도 일어날 수 없다. 물론 일당독재의 정부 통치하에서 의식형태의 통제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참담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개방이 지속되는 한 중국이 서서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최종적 믿음은 하나님에게 있다. 사실 등

소평이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기본법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것들은 아무 것도 보증할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교훈적인 인식이 아니라, 명확한 역사의 증거가 보여주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문화대혁명 기간 중 ‘사구타파’(破四舊: 네 가지 낡은 것, 즉 봉건사회의 옛 사상, 옛 문화, 옛 풍습, 옛 습관을 타파 한다는 의미-역자 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역사상의 유적으로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여전히 교회가 잠재력을 갖고 성장하리라는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64 천안문 사태가 기독교의 급성장을 가속화시키리라고 등소평이 예측이나 했겠는가?

하나님의 사역은 그 누구도 저지할 수 없다. 하나님은 개방된 정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강박한 바로 왕을 사용해서도 그분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홍콩이 지속적으로 번영하고 그리스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며 중국의 복음화 기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홍콩의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의 고난을 겪게 함으로써 정금같이 연단하실 수도 있다.

우리가 개인적인 독실의 문제,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97 홍콩반환의 도래를 덤덤하게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사도바울처럼 말이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

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
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1-13)

영적 뿌리를 견고히 하여 함께 사명을 감당하자.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대립적인 의식형
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인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전선(統戰:
공산당 이외의 모든 힘을 단결하여 동일
한 전선에 서서 적에 대한 투쟁, 혁명과
건설에서의 승리를 얻는 것 -역자 주)의
수단에 불과하다. 설사 홍콩이 50년 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시간
이 길어질수록 일단 공산당이 정권을 장
악한 이상 종교까지 통제하려 들 것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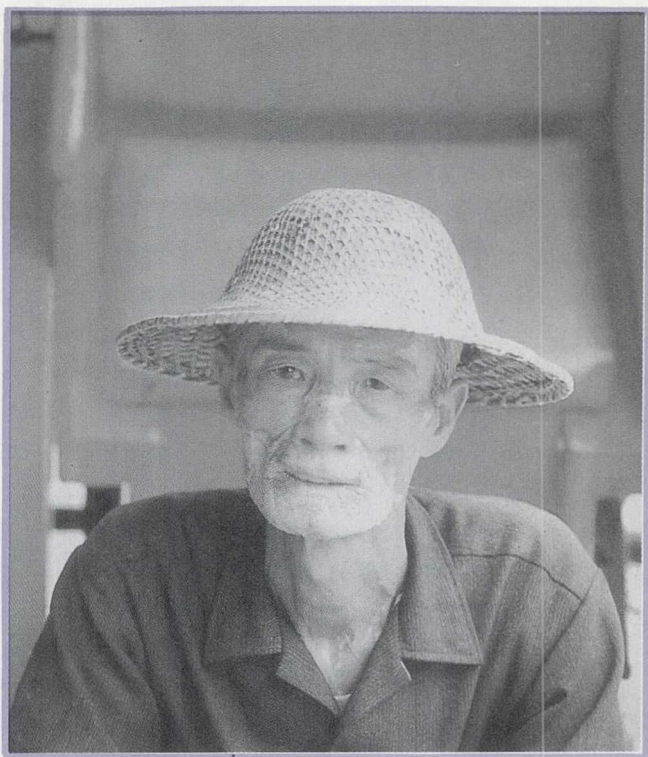
앞으로 이러한 중국의 무신론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음은 개인과
교회에 대한 제안이다.

개인적인 준비

영성훈련

'97년 정권의 전이(轉移)를 맞이하여, 사
회적, 경제적 동요를 면할 수는 없을 것
이다. 종교 역시 일정한 정도의 제압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도
들이 핍박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
다.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만이 동요와 고난을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의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야 한
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곧
메말라 죽어 버릴 것이다. 우리가 그리
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어떤 동요나
고난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사도바울
이 어떻게 옥중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주를 바
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빌 4:10). 그래
서 그는 고난을 이기고 또한 다른 지체
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을 알자.

과거 홍콩의 교육방식 때문에, 중국 역
사와 문화에 대한 홍콩 젊은 세대들의
이해도는 매우 낮으며, 홍콩인 역시 정
치에 대해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당연히 당대(當代) 중국 상황에 대한 이
해도도 매우 낮다. 사실 중국을 이해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중국에 대

해 사랑하는 감정을 키워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중국을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중국이 백 년 동안 받아 온 고난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지금의 중국에 대해 더 많은 공감과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중국의 5천 년 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선조들의 지혜를 음미한다면 당신 스스로 중국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할 것이다. 다가오는 '97년을 바라보는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려는 결심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언젠가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저에게 중국인의 신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중국 역사, 문화, 현재의 중국 상황(특히 중국 교회사), 중국인의 처세술까지 이해하게 된다면 '97년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임헌교(林獻羔) 선생의 간증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중국 헌법에 능통했는지 감탄할 것이다. 공안국이 그를 체포하였을 때 중국 헌법을 인용하여 논쟁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현재 정세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본인에게 썩워질 혐의를 줄일 수 있고, 권익도 보호할 수 있다. 여러분이 빨리 분발하고 노력하여서, 자신을 알고 남을 알아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知己知彼,百戰百勝) 자이기를 바란다.

교회가 준비해야 할 일들

'97년에 직면하면서, 생각하고 토론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런 연후에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단하고 다시 구

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정해야 한다. 다음에서 제기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통일전선에 직면하여

(1) 교회가 통일전선을 수용할 것인가? 통일전선을 수용하게 되면 편하기도 하고 이익이 따르지만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한편 통일전선을 따르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을 염려가 있다.

(2) 통일전선은 자연적으로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교회가 통일전선에 직면할 때 어떻게 경각심을 높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것인가?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본법에 근거하여 홍콩 교회와 중국 교회의 관계는 “三互”(상호존중, 상호 불간섭, 상호 불종속)이다. 그러나 경제 개방에 따라 홍콩 교회와 중국 교회와의 접촉이 날로 밀접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삼자교회, 가정교회 모두 우리들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단순히 ‘아군이나 적군이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양쪽을 겸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아래 몇 가지 소개를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1) 신학적 입장

삼자교회: ‘애국’이 최우선이다. 소위 애국이라 함은, 당의 지시에 복종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교회: 하나님이 최우선이며, 주님을 경외한다.

(2) 역사적 상황

삼자교회는 삼자애국운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 단체는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종교사무국의 통제를 받는다. 과거 역사를 볼 때, 삼자교회는 정부에 이용당하여 가정교회를 핍박했다. 가정교회는 정권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 성장한 교회이다.

(3) 선교적 각도

삼자회의 선교사역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교회의 확장과 발전은 정부의 면밀한 감시를 받는다. 가정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하며, 비교적 체계가 잡혀 있는 가정교회들은 이미 중국 각처로 복음전파 사역을 발전시켰다.

(4) 상황에 대한 고려

삼자는 정부가 인가한 종교조직이기 때

문에 삼자와의 접촉은 정당한 명분이 있다. 이 방법은 넓고도 안전하다. 중국 대륙은 광활하여, 종교를 통제함에 있어서 정책 실행과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삼자교회 내에도, 열심히 주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종이 적지 않다.

중국 종교정책에 근거하여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경우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예를 들면 교회건축, 물질의 공급, 사회복지 등). 간혹 설교자들이 교류하거나 신학교 교수가 중국에서 단기 강좌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편적이지 않다.

가정교회는 불법집회로 간주된다. 가정교회와의 접촉은 은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방법은 좁고 위험하다. 그러나 전도나 제자양육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



사람의 물결로 발디딜 틈이 없는 홍콩의 시장. 중국인 특유의 상업감각과 국제적 금융도시라는 특색이 조화를 이루어 거대한 자본의 도시 홍콩을 만들어내었다.

는 많은 기회들이 있다. 가정교회는 말씀의 공급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관철해 나갈 것인가?

홍콩의 교회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정하여 아래와 같은 사명들을 실천해야 한다.

(1) 목회의 사명

양떼들을 위로하고 꼴로 먹여야 한다. 서로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2) 선지자의 사명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부를 향해 충언을 하며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 가치가 혼돈되는 이 시대에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3) 섬김의 사명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타인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간증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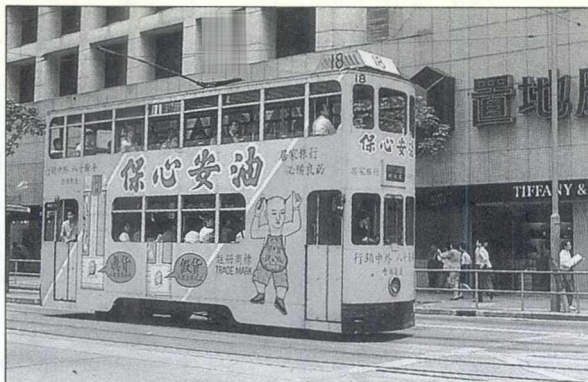
(4) 복음의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20). 특히 12억의 동포라는 넓은 추수밭을 볼 때, 그 중 55개 소수민족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다.

또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기독교 열기와 기독교 연구의 문화조류, 그리고 막 시작된 지식인 대상의 복음전도 사역의 부흥기를 맞아, 우리는 당연히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 수요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홍콩은 현재의 전도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홍콩 특구 교회의 전도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5) 교회발전 모델

'80, '90년 대에 들어 홍콩 사회가 급격한



홍콩의 명물 이중버스

변화를 맞으면서 때마침 '97년 홍콩반환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 시기를 맞은 교회들은 미래의 비전과 발전 모델을 새롭게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였다(예를 들어 가정교회와 성경공부반에 대한 의견).

교회는 자체적으로 특색 있고 적절한 발전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97년 이후의 불명확한 정치상황을 맞이하여서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 능동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고 발전되기 위해서이다. '97년을 직면해서 개교회마다 나름대로 상이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과 격려를 줌으로써, 사명과 시대의 증인으로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란다.

《中國與福音》第5期, 「我們如何面對明天」

번역 / 백승진 중국어문선교회 회원

'97년을 앞둔 홍콩의 모습

강성광

'97년 홍콩의 중국반환 문제는 현재 세계 각국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우기 홍콩과 근접한 동남 아시아 사람들은 좀 더 국가나 개인의 손익을 헤아려 보면서 당대의 큰 역사적 순간을 관망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당사국인 홍콩과 중국 사람들은 각자 정반대의 염려와 기대감의 교차 가운데 역사적 현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식 홍콩반환 기일인 '97년 7월 1일이 만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처한 홍콩과 홍콩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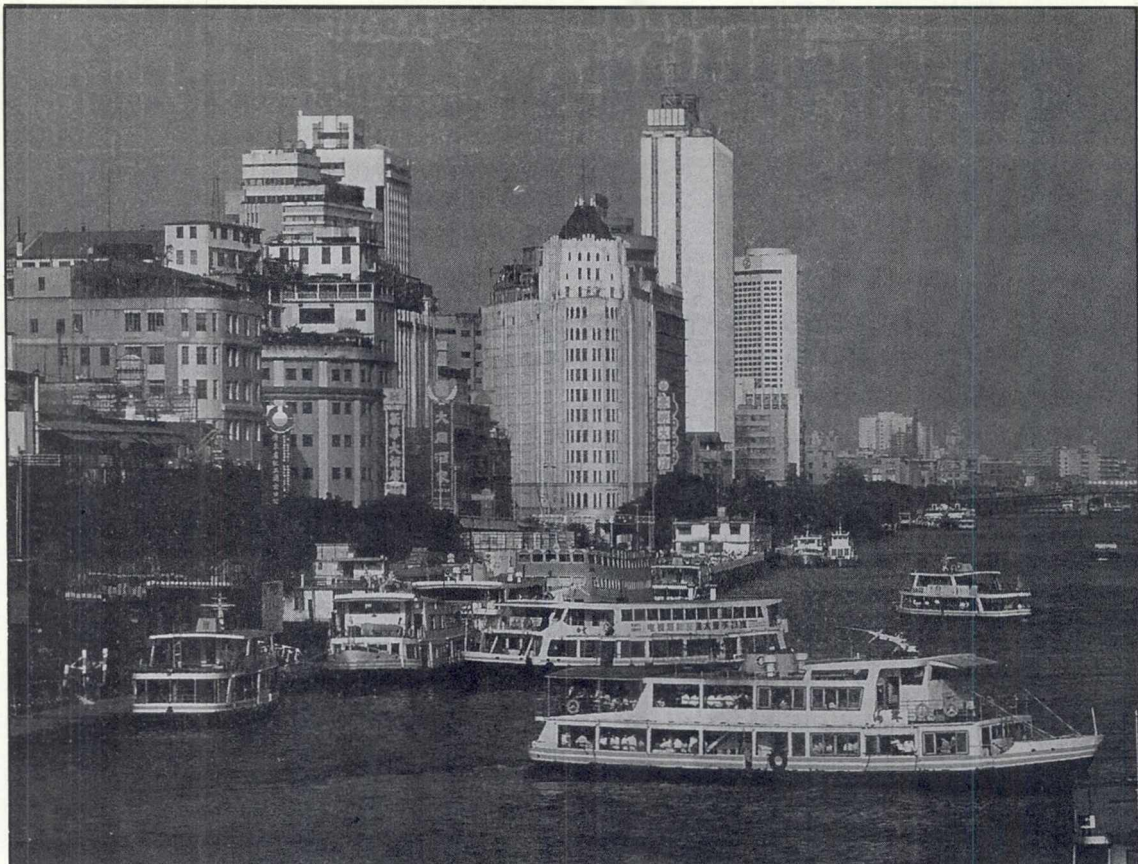
약간의 친 중국계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홍콩 사람들은 '97년 중국 반환의 사실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97년 이후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있다.

그 몇가지 원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문제이다. '97년 이후 홍콩인에 의한 자치(自治)가 제대로 실현되리라는 믿음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 그 예로 중국과 영국측의 정치 협상 결렬 이후 오랫동안 쟁방간에 주요 현안들이 한쪽의

일방 처리 및 정치적 경직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마지막으로 치뤄질 공정하고 민주적인 입법국위원 선거가 9월에 거행될 예정인데, 얼마 전부터 중국에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중국 측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97년 7월 1일(중국 주권 회복일)부로 입법국을 해산하고 새로 선출하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홍콩을 방문한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총담당 주임인 노평(魯平)은, 친중(親中)인 사들만 만나고 홍콩 총독 및 홍콩 정부 최고급 인사들의 접견 요청을 거절한 채 강경 자세와 발언만 하고 돌아갔다.

둘째, 거주권 및 신분 보장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중·상 계층 이상 홍콩인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담당 부주임이, "B.N.O"(영국 해외 거주 국민) 여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외국에서 오래 살지 않고 돈 주고 외국 여권을 획득한 자들은 '97년 이후 중국에서 외국 영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해 홍콩 사람들의 간담을 썩늘하게 했다. 즉 대부분



홍콩에 근접한 중국 도시들은 이미 엄청난 발전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廣州市) 전경.

의 홍콩 사람들은, 홍콩반환 이후부터는 중국 안에서 중국인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홍콩 영구 시민권 소유자들에게도 '97년 6월 30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홍콩 영구 시민권이 무효화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홍콩 사람들은 역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영국 식민지 통치에서 본국으로 회복된다는 것 외에는, 실제로 개인의 신분이나 이익면에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셋째, 몰려오고 있는 대륙 사람들에 대한 불안감이다. 현재 중국에서 홍콩으로 매일 105명의 영주 이민자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홍콩여행 및 홍콩을 경유하는 외국여행 등 각종 이유로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년 200만 명을 상

회하고 있다. 그리고 '97년이 되면 중국에서 각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통로와 구실로 몰려올 것이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즉 좁은 홍콩의 인구 수용 한계, 각종 복지 및 교육 시설의 부족, 교통난, 임금 경쟁 등 각종의 어려움과 불이익이 예상된다. 그러기에 대거 밀입국하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정치, 사회,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로는 누구나 쉽게 홍콩에 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과 비슷한 출입통제를 하겠지만 여러 수단과 통로를 통하여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 막지는 못할 것이다. 예상되는 한 예로 지금 심천(홍콩 근교의 중국 도시) 경제 특구에는 중국의 각 시 및 각 성 대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홍콩에 이런 구실로 들어

오는 각 기관과 시 및 성 정부 사람들만 해도 수 천 명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97년 이후로 홍콩에 친계 가족, 즉 남편 및 부친을 둔 부인과 아이들 수만 명이 홍콩에 올 수 있다고 한다. 수만 명의 학생들이 들어올 경우 교육 시설의 엄청난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중국인들의 싼 노동 인력이 몰려옴에 따라 블루 칼라 계층의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과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실업 및 경제 문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도 싼 노동력 인구의 홍콩 진출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얼마 전 홍콩 정부의 통계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율(3%)을 기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실업율이 된다고 노동계 인사들은 항의하고 있다. 실제로 내가 아는 공장, 건축 노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꽤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처해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다수의 중국 자본 및 홍색(紅色:정치 배경을 가진) 자본가들이 홍콩 부동산을 대량 구입함에 따라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30~40% 상승하여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이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또한 '97년 이후 중국에서 많은 장기 거주자 및 이민자들이 몰려 올 경우, 그렇지 않아도 주택 문제가 심각한 홍콩의 주택난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들은 이미 '97년이라는 정치적 변혁의 영향을 실제로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근대 중국 관료들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97년 이후 적지 않은 중국 관료들이 내려와 홍콩을 관할할 경우, 홍콩의 현재 경제 및 사회 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홍콩 사람들이 회의적인 관망을 하고 있다.

1984년에 홍콩의 중국 반환이 기정 사실화 되고 홍콩자치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부분의 홍콩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변화가 있어도 경제, 사회적으로는 큰 변화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아직 '97년이 만 2년 남은 시점에서 정치적인 것을 제외하고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고, '한 나라 두 체제(一國兩制)'나 기본법이 제대로 실현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 밖에도 자유로운 해외여행 및 종교 활동 등 확신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럼 이런 불확실한 '97년을 맞이하는 홍콩 사람들의 준비 및 그들의 정서를 헤아려 보겠다. 몇 년 전부터 홍콩 사람들은 '97년을 대비하여 세 가지 보험에 들어야만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다고 했다.

첫째, 신분보험, 즉 패스포트(Passport)보험이다. 그러나 이 보험에 들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투자 이민이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업 자격증을 소유한, 즉 돈이 많거나 고급 인력이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 보험에 쉽게 들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갖은 고생을 통해 자수성가하여 겨우 경제적 안정을 이룬 분이 있다. 그런데 그는 또 다른 미래의 정치적 불확실을 염려하여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부인에게 사업체를 맡기고 여권을 획득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그리고 '97년이 가까우면서 초, 중학교 교사들은 최소한 싱가포르 여권이라도 획득하려고 애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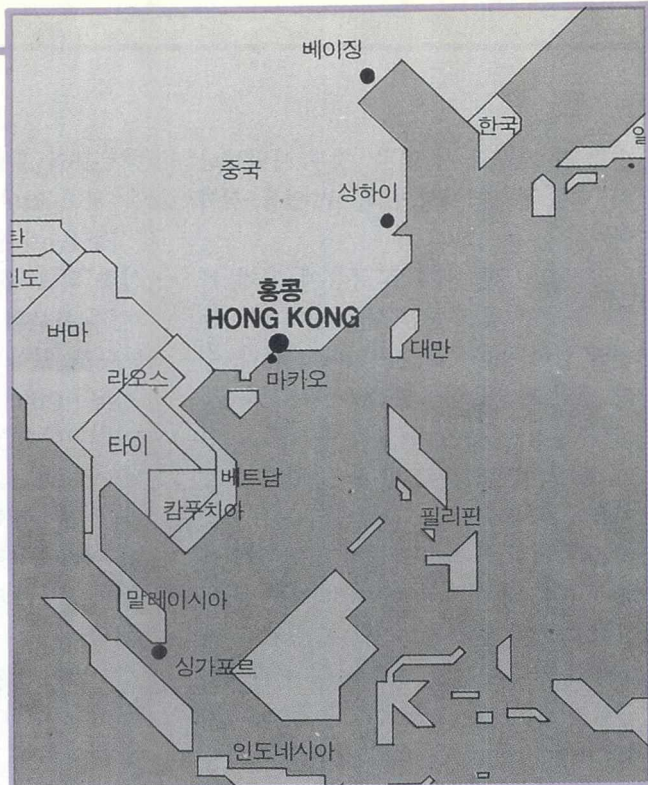
둘째는 정치보협이다.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제한되어 있다. 그들은 큰 기업주나 정치가들이다. 기업가들은 각종 명목, 즉 수재 의연금, 교육 사업 등의 명목으로, 최소한 수십 억 원(한화)씩 기회에 따라 중국 정부에 기부하거나,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북경의 정치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기회주의 정치가들, 즉 전에 친영(親英) 노선에 있던 자들도 재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여 북경에 자주 달음박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협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홍콩의 대표적인 재벌그룹인 '장강그룹'의 총재 이가성(李嘉誠)은, 갑자기 그룹의 주자산과 수입을 외국 등록 회사에 이전시키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지금 중국에 수백 억 원 이상의 각종 기부금을 헌납하고 북경의 정치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는 경제보협이다. 이 보협 역시 홍콩의 큰 재벌기업 및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다. '97년 이후 그들의 경제적 보호와 보장을 위해, 회사를 외국에 등록하거나 사장 및 최고 경영진을 미국 및 서방 경영인들을 초빙하여 맡게 함으로써 정치적 보호막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협에 들 수 없는 대다수의 홍콩 사람들은,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식민지 해방 및 국권회복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의상을 입지만 이에 대한 실체적인 정치, 사회, 경제면에서는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의 관점이나 중국의 상황으로 볼 때, 홍콩 사람들은 지금까지 영국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서양의 자본주의와 개인·이기주의의 경제 관념



에 젖어 있고, 의식구조나 사고방식도 굳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중국의 전통적 통치와 정치 체제에 순응해야 한다는 과제에 불과한 것이다.

맺는 말

중국의 개방과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세계화의 추세 가운데 홍콩의 '97년 이후의 미래는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실에 안주하길 원하며, 불완전한 변혁을 거부하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홍콩인들의 지나친 반응일 수도 있다. '97년 이후 홍콩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100% 확실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변혁과 역사발전의 전체적인 추세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97년 이후를 위한 홍콩 교회의 선택

盧龍光

이 글은 홍콩 CMI(China Ministry International)가 개원 15주년을 맞이하여
1993년 12월에 개최한 특별세미나 강의 중의 하나이다.
편집상 원문의 내용을 일부 축소, 정리하여 실었다.

-편집자주-

'97년, 위기인가 전환기인가

오늘의 제목은 '홍콩 교회가 어떻게 '97년을 넘길 것인가'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만약 「14차 전인대」 이후 중국 정치의 향방에 대해 토론한다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중국의 복음사역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홍콩 교회가 어떻게 '97년을 넘길 것인가'에 관해 토론하자면, 사실 여기 모인 분들 너나 없이 다 주인공이다. 모두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니 각자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것이다.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생각한 적이 있을 테고, 또 언젠가는 우리 모두 맞닥뜨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몇 가지 제안을 통해 여러분이 토론할 때에 참고할 시각을 갖게 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97 홍콩반환에 대해 이미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그 화제를 피했으면 한다. 그러

나 내가 보기에는, 거론하든 하지 않든 간에 역시 존재하는 문제이므로 여기서 제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97 홍콩반환에 대해 두려워하고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들도 많지만, 또 과거 10년 동안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기세가 전환될 좋은 시점이라고 부단히 강조해오고 있다. '위기(危機)'를 '위험한 가운데서 기회를 만들어 낸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해석하면서, 그렇다면 위기 속에 개혁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는 하나의 전환기이고, 전환기 가운데 더욱 변화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위험'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기회'는 또 어떤 것인가? 직접적으로 정치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경제적 충격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하게 따져서, 정치적으로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에

서 중국의 행정특구로 변한다는 것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인가? 근대 역사 가운데 벌어진 중·영 논쟁 중 어떤 이들은 끊임없는 민족감정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서 소위 ‘중국인의 상처’가 발생하고, 마치 그러한 각도에서 홍콩의 중국인에게 영향이 미칠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영국을 식민주의, 제국주의라고 질책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민주 자유의 전통을 배경으로 한 국가의 식민지에서, 하나의 전체주의, 독재정권을 배경으로 하는 국가의 특별 행정구로 바꾼다는 정치적 변화가 실로 엄청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에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드시 ‘유혈’이 뒤따랐던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바람은 이런 정치적 변화 중에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동요도 없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변화 중에는 반드시 어지러운 사태가 있을 것이다. 정세가 안정되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설할 필요는 없으며, 사건의 발생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단지 어떠한 유형의 동요가 있을지 보는 것이다.

중국의 변화는 홍콩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홍콩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적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적교류와 경제 관계에 있어 더욱 얽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흔들림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짐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위기인가 아니면 전환기인가?

교회들은 이미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어떤 이들은, '97 이후의 홍콩 반환은 1949년 중국 공산화의 재현, 혹

은 1966년 문화대혁명의 재현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나의 특별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회적으로 볼 때 홍콩 반환이 1949년 혹은 1966년의 재현이라면 많은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과 찬양을 외우며, 가정교회의 모양새를 배우고 또는 어떻게 핍박으로부터 피할 것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견해가 그렇지 않을 경우 또 어떻게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 나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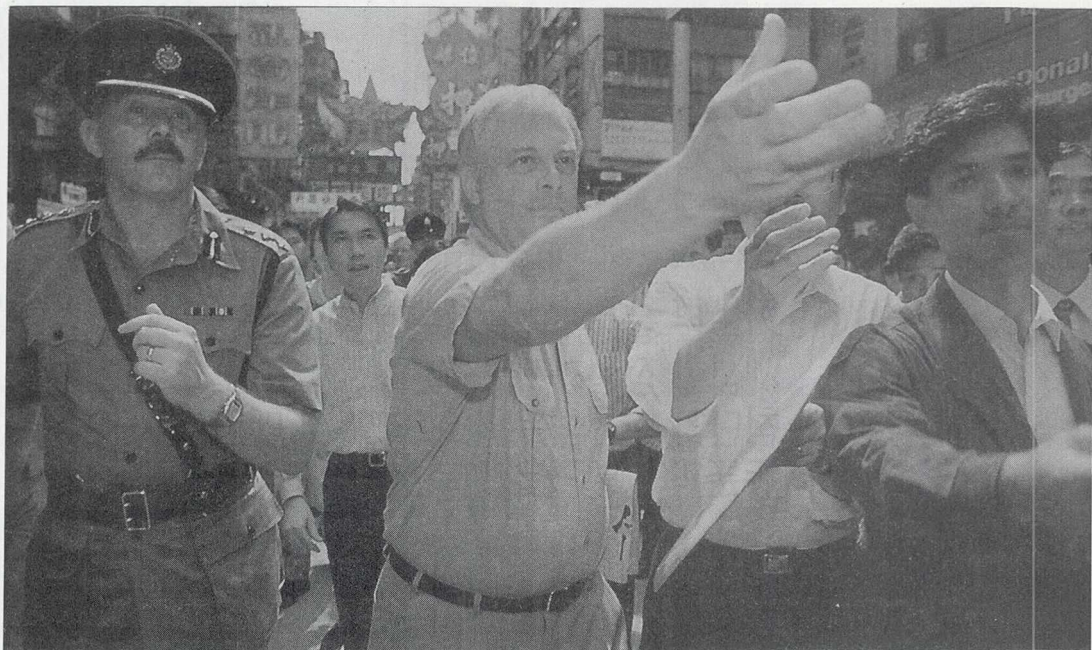
나는 '97년 홍콩반환이 1949년 상황의 재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대혁명이 홍콩에 재현될 것이라든지, 중국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비록 중국 문화의 질적인 면과 그 역사적 배경의 영향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는 단순히 공산당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공산당과 1949년 당시의 공산당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 공산당의 본질이 확연히 변하지는 않았다. 지금의 지도자는 1949년의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계가 변했다는 것이며, 중국의 조건도 변했고 오늘의 홍콩 또한 그때의 중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여전히 '66년의 문화대혁명의 영향에 의거해 본다면, 오늘날 홍콩의 새로운 역사적 조건을 제대로 직면하기 힘들 것이다.

중·영 아귀다툼 속의 홍콩

오늘날 홍콩의 새로운 역사적 조건을 말할 때, 중국과 영국간의 대립은 확실히 홍콩이 대면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이다.



홍콩 총독(가운데)이 정치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새로운 체제를 세울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영 대립의 핵심이며, 그 대표적인 의미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다. 소위 '직행버스'(直通車: 홍콩이 중국에게 반납될 때 지금의 영국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직진해 간다는 의미-역자 주)란 오늘의 홍콩과 '97년 이후의 홍콩 간에 강한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낙관적인 견해는 심지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다. '1997년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 사이에는 일말의 차이도 없다. 아침에 일어나 전과 같이 출근한다. 국기만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생활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 나 역시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30일 저녁엔 많은 사람들이 센트럴 파크(中環)에 몰려

가서, 국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구경할 것이라 상상한다.

그러나 '연속성'과 마찬가지로 '불연속성'도 반드시 발생할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연속성이 얼마나 심각한 깊이에 이르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불연속성'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연속성은 또 어떤 것인가이다. 오늘날 중·영 대립의 원인은 '제도'에 있는 것으로, 하나의 정치체제의 연속과 불연속성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근본적으로는 '97년이 가져올 정치제도의 변화가 필연적'이라고 본다.

홍콩 교회의 상황

정치

오늘날 홍콩 교회의 처한 상황을 보자. 정치에 직면할 때마다 과거 홍콩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다'라는 의견을 견지해왔다.

이전의 난민(難民)이었던 것과 서양

선교사 교회의 배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정교분리(政教分離)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만이 정교분리라고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 홍콩 시민들은 정치적 변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 변화가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계속해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면, 현실 도피와 더불어 정치나 사회의 새로운 형세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교회가 비록 정치 단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명확한 것은 정치적 환경에 직면할 때는 교회 역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며, 정치적 영향력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40여 년 간 이루어진 중국 교회의 변화 가운데, 특히 근래 몇십 년 동안 개방된 상황에서 교회는 민간 단체로서는 거의 최초로 국제 관계를 수립한 역사를 남겼다. 이러한 상황은 홍콩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국제적 도시이기 때문에 홍콩의 교회는 더욱 국제적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전환은 일련의 영향을 가져올 터인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해야만 한다. 더이상 정교분리가 정치에 관한 무관심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잘 이해해야만 한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종교적 원인이 아니라, 정치적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예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백성을 유혹하고 선동하여 난을 일으킨 사람, 즉 반혁명, 동란을 야기한 정치범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목표가 결코 정치도, 이 세상의 정권도 아니며 오직 복음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세

상을 통치하고 창조하신 주재자인 그분은 근본적으로 세상 권력의 중심이었다. 즉, 정치는 권력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교회가 일개 정당이 되어 정권을 장악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라는 것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사회

사회 방면의 영향을 논한다면, 경제와 사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홍콩도 마찬가지이다. 중·영 분쟁이 가장 격렬했을 때, 부동산은 엄청난 고가로 팔렸으며, 주식도 계속 상승하였다.

이러한 전환기에, 기독교인은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문화적인 것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복음의 큰 능력은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사실이 생명이라는 것은 비교적 추상적인 것이다. 확실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생명의 현상으로, 그것의 표현, 가치관, 그리고 위험을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도덕적 용기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은,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권력이 중심이 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권세가 중심이 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출해야 할 것인가?

과거에 우리는 홍콩은 어떠한 비전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아왔다. 그러나 사실 '97년이 가져다주는 것은 홍콩에 대해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또 가져야만 하는 원대한 이상이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단지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을 간증하며, 이 간증이 생명의 간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대표하여 천국의 가치관을 드러내며,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나타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단

홍콩 교회의 특징은 교단이 많다는 것이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단이 있는 지역일지도 모른다. 홍콩은 중국 대륙의 모든 교단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순도위리(循道衛理)연합교회(홍콩의 衛理公會는 감리교단을 일컫는 말이다. 循道衛理會는 좀더 중국적으로 토착화한 감리교단이라 할 수 있다-역자 주)' 같이 중국인 스스로 설립한 독립 교회를 포괄하고 있다. 이 교단의 이름이 이렇게 긴 것은 미국과 영국의 감리교단을 함께 연결지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각 교단끼리 지나치게 서로를 배척하고 불신한다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이래로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역사요, 교단과 교단이 서로 왕래하지 않는 상황이다.

'70년 대부터 홍콩 교회는 점차로 토착화되었다. 우리 모두 같은 중국인인데, 왜 같은 감리교단(Methodist)도 누구는 웨슬레로 번역하고, 또 누구는 순도(循道)로 번역해서, 두 파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근원을 따져보면 요한 웨슬레인데, 영국 또는 미국으로 나눌 필요는 또 무엇인가?

사실 홍콩의 교회가 '97년의 문제에 직면해 맞은 위기는 49년의 중국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줄곧 영향을 미쳤던 것과 유사하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를 배반하여 팔기도 했고,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교단도 있던 반면 많은 고난을 겪은 다른 교단들도 있다.

이러한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우리는 그 사람들이 과연 1949년 그 당시의 기독교 교단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자원

우리 안에 아직도 많은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협력과 하나됨에 나쁜 영향을 미쳐, 서로를 의심하고 회의를 일으키고 우리의 형제를 불신하게 만든다. 또 이런 불신은 홍콩의 교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없도록 한다. 우리는 복음 사역에 있어, "진심이든 거짓이든 간에 어쨌든 복음은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했던 바울사도의 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97 이후의 홍콩 교회는, 마치 공산화 이후 대륙의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신앙의 부자유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어찌되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홍콩의 복음화는 계속될 것이다.

21세기 운동본부(AD 2000)에서, 2천년에 홍콩에 2천 개의 교회가 생기길 원한다고 제안했을 때, 한편으로는 기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그 많은 목회자를 찾아 2천 개의 교회에서 봉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 숫자로 볼 때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사실 문제는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고, 작은 교회(소교회) 형식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단지 '97년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자원, 즉 인력과 재력의 문제이다.

이제 홍콩에서 우리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는 필요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가진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인력과 재력이 유실된 가운데 어떻게 자원을 더 집중할 수 있느냐가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홍콩 교회의 신분 -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러므로 오늘날 홍콩 교회가 어떻게 '97년을 넘겨야 하는가의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교회가 지니고 있는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결코 혼자만 살아남겠다고 자기를 방어하는 단체가 아니다. 현재 우리는 늘 교회의 존재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사를 본다면, 어느 때를 막론하고 교회 존재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어떤 시기와 공간에서는 아마도 그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핵심은 아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시인하며 회개하여야 한다.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성탄절의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다.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이지 스스로 목숨을 보호하려는 집단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의 목숨을 보호하려고 하였다면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았을 것이고, 아예 세상에 내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시대를 맞아 어떻게 '97년 홍콩 반환을 받아들이야 하는지 묻는다면, 당신은 먼저 스스로에게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분명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호(記號)로 삼아야 할 것은 십자가이다. 십자가의 의미는 희생이요 죄와의 투쟁이다. 이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큰 권능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다.

어떻게 97년을 넘길 것인가 -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97년을 넘길 것인가를 논할 때 몇 가지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

정치적으로 비정당(무소속) 참여자 '97년 홍콩 반환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정치 문제이다. 정치는 중국의 백여 년 역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해 왔다. 사람들은, 중국이 이렇게 가난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원인을 묻는다. 그 원인은 아주 복잡하다. 어떤 이들은 인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지리 문제 혹은 기타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은 정치가 궤도에 오르지 못한 데 있다. 오늘날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궤도에 오르지 못한 정치이다. 어떻게 정치 문화, 책임지는 문화를 건설하느냐가 그 관건인데, 그것은 책임을 능히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자기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의 작용에서 하나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식이 있다. 그것은 미룰 수 없는 책임이요, 중국 문제 역시 그 중의 한 핵심이다. 우리는 정권을 탈취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어떻게 정치 문화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97년 홍콩 반환은 홍콩에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들이 결코 무효표를 내지는 않을 것이며, 교회에서 어느 개인을 지지하여 선출하거나, 혹은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우리들이 속한 교회 안에도 여러 당에 소속된 후보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비록 다른 당에 속해 있지만 오히려 교회라는 집단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교회가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교량 작용을 할 수 있다. 권력 다툼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에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형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사람들로 화목케 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어필



홍콩의 한 정치단체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경분리(政經分離)'를 희망하는 홍콩 시민들은, 중·영간의 정치투쟁이 홍콩의 경제번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하고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역할은 도리어 우리가 교회라는 집단 역량을 지녔기 때문에 더욱 발휘하기가 용이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참여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의 정당은 아니지만, 정치 참여에 침묵하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다.

사회의 건설자

또 다른 방면에서 볼 때, 이 사회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치관을 사회 가운데로 확산시켜야 할 것인가의 과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권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에서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킬 때, 우린 구경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홍콩을 위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홍콩을 희망하는가? 도박 경마장에 말이 달리고 나이트 클럽에서 여전히 춤만 추는 그런 사회인가? 어떤 사회를 바라고 있는가?

복음의 증거자

많은 사람들이 홍콩은 '97년 반환 후 갈수록 중국을 닮아갈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중국이 홍콩을 닮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97년 이후 언론의 자유가 상실될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홍콩이 점차 폐쇄될 것만 생각하고 있지, 반대로 중국이 날로 개방되어 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홍콩의 부정적인 것들이 중국에 전해지는 것이다. 아무쪼록 홍콩의 긍정적이고 귀중한 가치관들이 중국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한다.

중국의 교회는 변하고 있다. 내가 올해 네 번 중국에 갔었는데, 그들은 공개적으로, 홍콩 교회가 중국에 돌아와 예배당을 짓고 집회를 인도하며, 심지어는 학교를 세우고, 사회 봉사를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들은 또 어떤 학교의 강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정말 불가사의한 것이다.

알고 보면 홍콩의 교회에게는 매우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다. 애초에 우리들의 시각은 홍콩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더욱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지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현재 중국에 예배당 하나를 짓기 위해서 15만 원(인민폐)이 드는데, 10년 후에는 그 돈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방식의 물질적 투자, 즉 예배당 건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배후에 교류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마련되어 있기에 복음이 중국으로 전해 질 가능성도 많을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설립자

공동체의 설립자는 바로 오늘날 홍콩 교회 가운데 놓인 우리들이다. 위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고, 사기는 저하되며, 서로 믿지 못하고, 정치적인 불연속성으로 인해 우리들이 분산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말이다. 이럴 때일수록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가 공동체의 설립자임을 다시금 강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97년 홍콩 반환은 우리가 한마음 되는 것을 배우는 기회이다.

인재를 키워내는 양육자

인재는 교회의 핵심이다. 인재가 유실되는 상황 가운데, 신학교나 학교를 막론

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97년 반환을 위해서 인재를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과 찬송을 암송하고, 가정교회의 집회 양식을 배우는 것이 틀린 일은 아니지만, '97년 홍콩 반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97년 홍콩 반환의 임박은 당신을 일깨우는 것이지 단순히 '97년을 '준비'하라는 것도, '97년에 성경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나 역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일깨워 준다고 믿지만, 여기에 편승하여 이득을 얻거나 혹은 장래에 이렇게 된다고 여기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맺음말 — 교회, 학교, 사회봉사단체는 어떻게 '97년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이는 '97년이 다가오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건축해야 하나고 묻는다. 왜 예배당을 철거하고 다시 증축하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주면, 그들은 그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기 때문에 빈 장소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97년 홍콩반환 이후에 반드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홍콩 교회도 홍콩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홍콩에는 여전히 교회가 존재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리라 생각된다.

몇 년 전,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성가대장이 찾아와서, 성가대원이 너무 부족하여 대단히 걱정된다고 하였다. 많은 성가대원들이 이민을 가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를 안심시키며 말하였다.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하는 것은 교회당을 휘황찬란하게 짓고, 교인 수를 더욱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홍콩의 미래를 떠맡을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매 주일마다 25명이 성가대에 참석하고 있다. 그전에는 20명뿐이었다.

계속적으로 홍콩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이 때문에 교회당 건축에 있어 더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교회당을 건축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교회당을 휘황찬란하게 짓고, 교인 수를 더욱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홍콩의 미래를 떠맡을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다른 방면에 있어서, 미래 특구정부의 관리와 통치하에 있는 학교와 사회 단체에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본다. 공산당이 홍콩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학교와 사회봉사단체가 변할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현재 홍콩의 기독교 병원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교회가 병원의 경비를 다 떠맡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병원 관리국이 끊임없이 관리권을 장악해 가고 있다.

현재 중문대학(中文大學)의 숭기학원(崇基學院)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이 관리권을 반드시 기독교인이 회수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이것



길 거리에 좌판을 벌인 노점상들.

은 결코 공산당 때문이 아니다. 전세계의 국가들, 영국, 미국,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에는 홍콩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책임을 떠맡으려 하지 않고 교육권을 비교적 방임하였었다.

홍콩의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나친 무리이다. 홍콩 인구의 단지 10%만이 기독교인인데, 전 학교의 50% 정도를 기독교인들이 떠맡고 있으며 사회봉사에 있어서도 50% 이상을 떠맡고 있다. 이것은 결코 기독교인들의 자원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많은 숫자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사회봉사단체와 기독교 학교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약 지금의 이 많은 사회봉사단체와 기독교 학교를 우리가 맡지 못하면, 미래의 정부가 점점 그 관리권을 축소시키려 할 때, 기독교인은 이 일들을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할 것이다.

'97년은 틀림없이 많은 위험성과 불연속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다른 변화 중에는 사실, 우리들로

하여금 홍콩의 사회문화와 홍콩의 정치문화, 복음의 필요를 다시 정돈케 하는 더욱 많은 기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위기 가운데서 더욱 새로워져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97년 홍콩반환 시기를 넘길 것인가'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신앙의 의미를 반성하고, 신앙의 존재 유형을 반성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다원화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기회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어느 때나 마찬가지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십자가의 표적을 갖고 가는 것이다. 위협에 처했을 때, 자신에 대해 믿음을 잃었을 때, 또 우리 스스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정돈할 때, 우리의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고 뜻을 다하여 복음을 부흥시키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中國與教會』 99期, '香港教會如何過渡'

번역/김현주 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이제, 홍콩을 위해 기도의 햇불을 들자

김여호수아

앞으로 2년 후인 1997년 7월 1일이면, 홍콩의 주권은 영국의 식민지 체제를 끝내고 중국으로 반환된다. 그 동안 여러 사람으로부터 '97년 7월 이후가 되면 홍콩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콩의 건도신학원(建道神學院) 내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연구소 주임교수의 말을 빌리면, 중국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홍콩의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 왜냐 하면 홍콩의 내일은 중국의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추진하는 중국 내의 개방 정책이 큰 변화없이 진행되어 간다면 홍콩 또한 갑작스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 특별히 교회와 교인의 신앙생활 면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변화는 갑자기 있을 수는 없으리라 예측하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종교

문제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시 되는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정치, 행정, 의회, 사법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한 국가 두 가지 체제(一國兩制)'라는 정책 아래 홍콩의 자치를 50년 간 보장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여러 방법으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홍콩을 위해 제정된 기본법상의 자치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울러 계속적인 홍콩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중국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지 않으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의 많은 지식인들은 여전히 중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고급 인력이 해외로 이



홍콩의 번영에 중추적 역할을 할 젊은이들과 지식인 등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은 홍콩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진은 버스 위에 나란히 앉은 홍콩 아가씨들.

민을 떠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해외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중의 상당수가 지식인 및 부유층에 속하는 이들이다. 홍콩의 번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이러한 고급 인력의 유출은 홍콩의 내일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대다수의 홍콩인들이 다소 낙관적으로, 그리고 담담히 '97년을 맞이하는 경향이 농후해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중국 정부를 신뢰함이라기보다는, 홍콩의 경제 능력과 중국의 경제 개방 정책에 차지하는 홍콩의 비중 때문이며, 많은 이민자들이 외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귀국하는 현상(이민 역류 현상)이 늘어감에 따른 것이다. 홍콩인들은 '97년의 중국 반환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남은 2년의 기간은 홍콩인에게는 과도기요 전환기임에는 틀림없다. 즉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며 어떻게 활용하고 대처하는가

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심을 믿고, 위기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의 기회가 됨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막연히 '97년을 기다려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때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2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적 차원에서 홍콩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홍콩에서 사역하는 본인으로서의 한국 교회와 중국 선교 동역자를 위한 더 없는 좋은 도전의 기회라 생각된다.

현재 홍콩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도와주길 원한다. 이민자 중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며 그 중에서도 돈이 많은 자들이다(홍콩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3~4%인데 비해 이민자 중에

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를 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 홍콩의 선교단체와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지원해 주길 원한다. 그 동안 홍콩의 많은 교역자가 이민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교역자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목사가 있는 교회는 홍콩 전체 교회의 20%에 불과하다. 그 밖의 교회는 전도사들이 시무하는데, 그나마 여자 전도사가 절반을 차지한다. 남자 교역자의 수가 절대 부족하다. 그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약하여 전임(Full Time)으로 봉사할 남자 교역자를 청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인적, 재정적 도움 또한 현실적으로 필요함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홍콩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전략적인 기도 지원이다. 단순한 기도 지원이 아닌 보다 특별한 전략을 동반한 기도의 공급이 요청된다. 소생하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피가 모자라 급히 수혈자를 찾는 환자라고 말할 수 있다. 홍콩 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서는 생명력있는 기도의 특별 수혈이 필요하다.

홍콩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흑암의 권세가 전 영역을 초토화시켰고 심지어 기독교(전 인구의 3~4%)마저 무력화, 세속화하고 있다. 홍콩인의 우상숭배와 미신은 상상을 초월한다. 물질주의, 배금주의, 현실주의와 결합된 우상숭배는 경이적이라 할 만큼 홍콩인의 영혼을 점령하고 있다.

필자는 현지 한인 교회 사역을 마치고 얼마 전 홍콩인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들을 방문하며 전도하고 있는데, 우

상제단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치 못했다. 95% 이상, 그러니 거의 모든 가정에 우상제단이 있고, 심지어 어떤 가정은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도 우상제단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홍콩을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것은 원색적이고 생명력 있는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 물론 '97년을 대비한 여러 전략과 여러 전도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소생케 한 것은 어떠한 선교 전략이나 전도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있는 기도였다. 홍콩의 영혼은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 이들이 여호와와 군대가 되는 것은 전략이나 방법에 있지 않고 생명력을 주는 믿음의 기도로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최고의 전략이요 최선의 능력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홍콩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우리 한국 교회라고 확신한다. 이미 한국 교회는 이 일을 시작했다.

지금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 홍콩 안에서 기도 운동이 미약하나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운동의 배경에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 운동이 있다. 현재 홍콩에는 두 개의 장소에서 산 기도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주동자들 모두가 한국의 기도원을 방문하여 도전을 받은 이들이다. 그 중의 한 그룹은 벌써 한국의 기도원을 수십 차례 방문하여 계속 배우면서 그 기도운동을 홍콩에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이 이미 대만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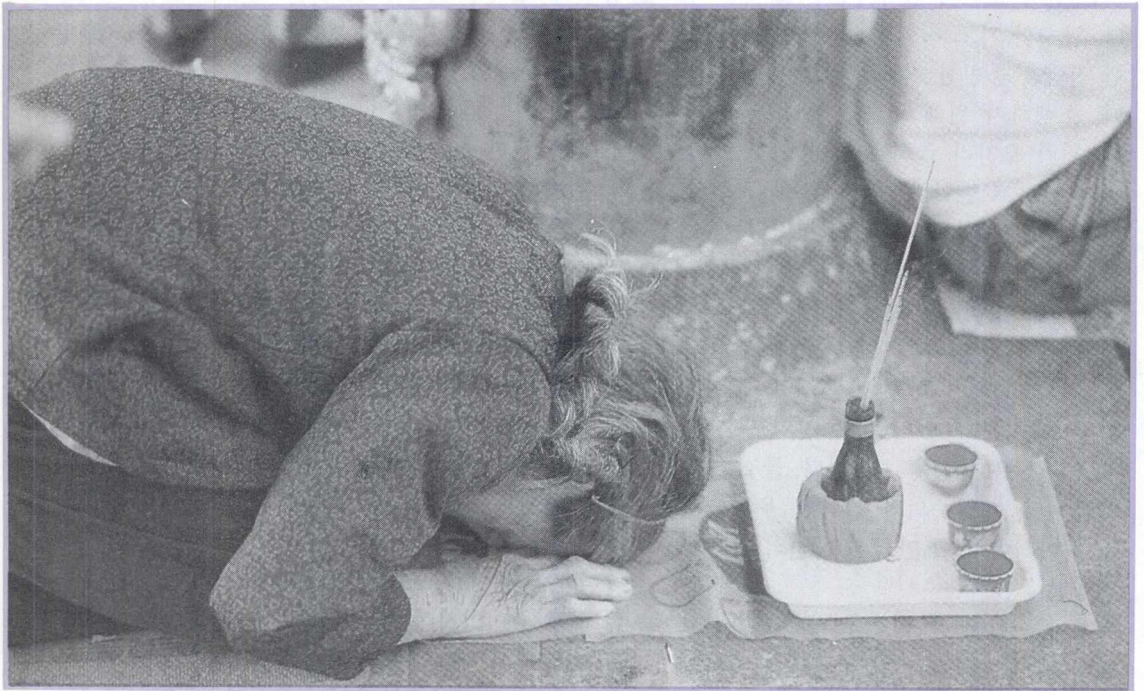
현재 홍콩의 기도원은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나 미약하다. 한국 교회, 또 한국의 기도원이 이 일을 구체적으로 돕기 원한다. 특별히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이

일을 도와 복음주의적인 성령운동이 홍콩에서 일어나길 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홍콩의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및 기도회 모임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 중 상당수가 한국 교회를 방문하여 받은 감동과 도전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다.

최근에 필자의 신학교 동기 목사가 시무하는 인천의 몇 교회가 주초가 되어 홍콩의 목회자, 성도를 초청하여 한국 교회의 현장을 참관케 한 일이 있었다. 돌아온 후에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 교회에서도 기도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설교나 강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 교회의 기도의 현장을 보고 도전을 받은 것이다.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각종 기도회, 수요기도회, 구역모임, 기도원 기도집회 등에 단순히 그들을 데려다 앉혀 놓았는데, 그들 스스로 도전과 감동

을 받은 것이다. 현재 일고 있는 이 기도운동이 뜨겁게 타올라 홍콩 대부분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도록 기도를 요청한다. 홍콩의 기독교인이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된다면 '97년은 중국 선교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동안 홍콩이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지점이었다면, '97년 이후부터는 이곳이 바로 중국 본토이며 또한 중국 밖이 아닌, 이제는 중국 영토 안에서 그래도 가장 자유로운 중국선교 최적의 기지가 될 것이다. 홍콩은 그동안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기도의 관심 밖에 있었다. 기도없이는 거둘 것이 없음은 당연하다. 전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거두는 수고에 불과하다.

'97년을 앞두고 홍콩의 교회와 기관은 여러 대형 집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신과 우상숭배의 영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홍콩을 위해 한국 교회는 기도로 영적전쟁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 교회와 같이 먼저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하는 것이다. 확신하기는 만약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희미하지만 한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 어렵게 막 피어나려고 하는 홍콩 교회의 기도운동에 성령의 기름을 지원해 준다면 이 불은 계속적으로 타오를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중국선교의 관심과 기도는 거의가 북방, 특히 동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교회는 가장 부흥되지 않은 남방 지역으로 더 많은 관심을 돌려주길 바란다. 홍콩은 중국 남방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97년을 부흥의 기회로 삼으려는 홍콩의 작은 교회들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선교의 사명과 부담이 있는 한국 교회가 직접 기도의 불을 붙여주고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즉 기도의 전선을 연결하는 것이다. 현재 홍콩에서 한국의 기도운동을 배우고 싶어하고 또 그 운동을 일으키기 원하는 교회와 한국의 교회가 기도의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1~2년마다 한 차례씩 교회의 형편에 맞게 초청하여 한국 교회 기도의 현장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강의가 없어도 상관없다. 기도의 현장에 데리고 가서 보여만 줘도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교회에서 기도운동의 중심 멤버가 될 것이다. 또 한국 교회에서도 홍콩의 자매교회를 방문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선교훈련과 현장체험이 되며, 주는 교회로서 더욱



중국선교의 부담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는, 이제 2년 후면 중국 교회의 일부가 될 홍콩 교회를 위해 강력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성장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젖이 모자란 아이를 위해 젖을 주는 유모와 같이 홍콩은 한국 교회에 젖줄을 연결하여 기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는 나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목회자들이 실제로 나를 향해 부탁한 말이기도 하다. 한국 100개 교회가 홍콩의 100개 교회와 기도운동의 자매결연을 맺어 기도의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97년 홍콩 반환을 앞둔 홍콩의 교회를 부흥 갱신시키고, 홍콩을 중국 남방(광둥성, 호남성, 복건성, 광서성 등. 이 지역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약 4억이 거주한다) 선교의 화포기지로 세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너는 네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 3).”

김여호수아 / 홍콩 선교사

중국의 세 얼굴, 북경 · 천진 · 상해

북경(北京, BEIJING)

중국의 수도 북경

북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로 면적은 16,800Km², 인구는 약 1,300만이며, 시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500만, 유동인구가 100만 정도이다. 시내는 대부분 평지이기 때문에 북경에는 유난히 자전거가 많다.

북경은 중국의 정치, 행정, 학술,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국과학원과 중국사회과학원 등 각 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연구기관과 중국의 자존심인 북경대, 청화대, 북경사대, 인민대학, 중앙민족학원 등 많은 교육기관이 있고 과학대회당과 학술회의장도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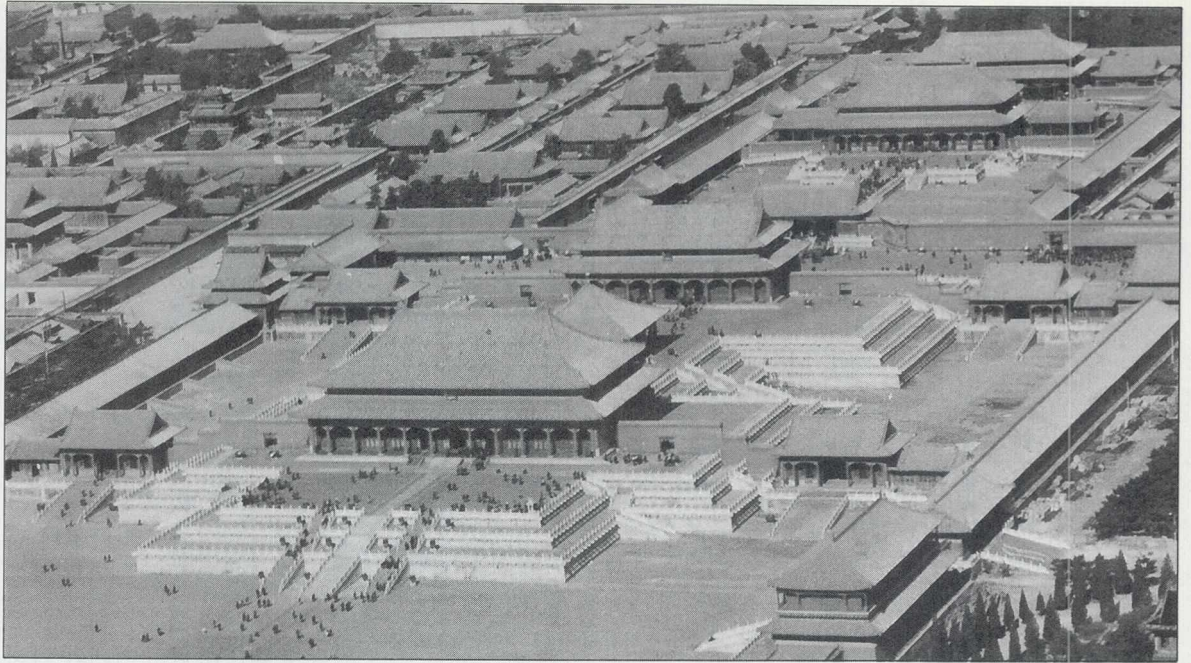
북경의 5대 명소로는 흔히 만리장성(萬里長城), 자금성(紫禁城), 이화원(頤和園), 천단(天壇), 명십삼릉(明十三陵)을 꼽는다.

자금성은 '고궁(故宮)'의 별칭으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중국 최대의 고건축물이자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다. 따라서 고궁을 비롯한 북경의 명소나 왕푸징(王府井) 등의 변화가는 늘 관광객으로 붐비는 편이다.

북경은 중국 최고의 호텔과 식당이 있고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 구비되어 있다. "날씨만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가장 좋은 것은 모두 북경에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북경에는 중국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모여 있다. 중국에서 가장 깨끗한 거리를 자랑하는 현대화된 도시 북경은 중국 여행에서 반드시 들르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광지 입장료나 호텔 숙박료 등은 외국인에게 차별 대접해서 중국인보다 3배, 심지어는 7~8배를 더 받고 있다.

북경의 역사

북경원인(北京猿人)의 흔적으로 볼 때, 50만 년 전부터 북경에 인



북경의 명물 자금성(紫禁城). 명·청대에 걸쳐 24명의 황제가 살았던 거대한 궁전이다.

류가 살기 시작했다고 추산한다. 그러나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은 약 3천 년 전부터이다.

북경은 춘추전국시대에는 연(燕)나라의 수도였다. 그러다가 진시황(秦始皇) 군대의 발길에 폐허가 됐다. 지금의 북경에 다시 도시가 건설된 것은 한(漢)나라 때였고, 연(燕)은 금방 한족(漢族)과 북방 기마민족(騎馬民族)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됐다.

지금의 북경을 확실히 한족(漢族)의 땅으로 만든 것은 수양제(隋煬帝)였다. 그는 북경을, 북방의 고구려를 징벌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 양자강(揚子江)에서 이곳에 이르는 대운하를 건설, 자신의 군사들에게 물을 공급했다.

이후 이곳은 요(遼)나라의 두 번째 도시가 돼 남경(南京)으로

호칭됐고, 금(金)나라 때는 수도가 되서 중도(中都), 원(元)때 역시 수도로 정해져 대도(大都)로 명명됐다. 이어 명청(明清)과 손문(孫文)의 중화민국 초기에도 도읍지가 됐고, 모두 북경으로 불렸다. 이곳이 북경으로 불리기 시작한 이유는, 원래 지금의 남경(南京)인 금릉(金陵)에 도읍을 정하고 있던 명이 4대 황제 때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그러나 1928년 국민당 정부는 수도를 지금의 남경으로 옮기면서 북경을 북평(北平)이라 낮춰 불렀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북경은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옛 이름 북경(北京)을 되찾았다.

북경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찾아가 기념촬영을

하게 되는 천안문 광장은 사실 볼 거리는 거의 없지만 중국 현대사의 굵적굵직한 사건의 무대가 된 곳이다. 1919년 5·4운동(五四運動)이 시작된 곳도 이곳이고,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던 1966년 백만이 넘는 홍위병이 집결한 곳이며, 1976년 주은래(周恩來) 장례식 때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현장도 이곳이다. 1989년 6월 4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천안문 사태가 발발한 곳이기도 하다.

개방을 향해 질주하는 북경

북경시의 거리는 4~5년 전에만 해도 해만 지면 어둠과 적막에 잠겼다. 그러나 요즘 북경의 야경(夜景)은 크게 달라졌다. 개혁 개방과 함께 농촌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무조건 도시로 올라오고 있다. 북경역은 직업을 찾아 농촌에서 올라온 사

람들의 숙소가 되어버렸다. 새벽 첫 기차가 역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광장에는 인력 시장이 선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북경에는 이곳에 호적을 둔 사람만 살 수 있었다. 식량을 배급받으려면 호적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호적이 없는 사람들로 북경의 주인이 바뀌려고 한다. 아직도 지방에서 올라와 돈을 번 사람들이 북경 호적을 따는 일은 하늘에 별 따기이지만 말이다.

북경의 명동은 북경호텔 바로 동쪽의 왕푸징가(王府井街)이다. 나이트 라이프(Night Life)가 없어 '밤의 명동'은 아니지만, 낮에는 명실공히 '북경의 명동'으로 그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이 거리에는 각종 전자제품·카메라 상점 등이 밀집해 있으며, 「맥도널드」 등 서구식 패스트 푸드 식당도 들어섰다.

햄버거 하나에 중국돈 10원, 12원이라면 만만찮은 값인데도 사람들은 돈을 척척 낸다. 화려하게 꾸며진 실내 장식에 중국사람 입맛에 맞도록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서양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이다.

북경에서 이름난 요리로는 북경 오리구이(北京烤鴨)가 있다. 북경 오리고기를 먹어보고, 만리장성을 유람해보고, 자전거를 타 봐야만 북경에 갔다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지금 북경에는 줄부들이 많아 보인다. 외국 기업과 합작 투자한 「캠펜스키 쇼핑센터」나 한국 대사관 근처에 생긴 「사이터 쇼

핑센터」에 가보면 알 수 있다. 세계 최고의 품질만 찾는 북경 부자들이 주 고객이다. 보통 사람들 월급의 몇 곱절이 넘는 외제 화장품과 전자 제품이 날개 돋힌 듯이 팔리고 있다. 개방을 향해 질주하던 북경사람들에게 이제 다같이 못살던 시절은 지나간 것이다.

기독교 상황

선교상황을 보면, 개신교 선교단체들이 18세기초부터 선교사역을 시작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위하여 피를 흘렸는데, 1900년 북경에서 시작된 '의화단의 난'이 그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중국 전역에 불어닥친 부흥의 불길은 이 피의 도시에도 옮겨 붙어 이 기간 동안에 무려 75개소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들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게 되었다.

그 후 대륙이 공산화되면서 시작된 박해는 1966년부터 10년 간 계속되었던 문화대혁명 기간에 극에 달았다. 주의 종들은 모두 체포되어 감옥이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고 양떼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성경은 소각되고 교회는 폐쇄되었다.

1972년 이후 교회가 개방되었고 삼자교회나 가정교회를 막론하고 큰 부흥을 하였다. 북경에는 삼자에서 세운 연경신학원(燕京神學院)이 있으며, 숭문문당(崇文門堂), 주시구당(珠市口堂), 해정당(海澱堂), 향화시당(缸瓦市

堂), 관가당(寬街堂) 등 5개소의 삼자교회가 있다.

상해(上海, SHANGHAI)

중국 최대의 상업도시 상해

상해는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중국 최대의 도시이다. 지평선으로 끝없이 펼쳐진 서민용 주택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수십 층 규모의 거대한 빌딩 숲들은 중국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

6,340Km²의 면적에 1천3백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 도시이다. 중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로부터 오는 관광객과 사업가로 사시사철 생기가 넘치는 곳이다. 북경이 정치, 문화, 관광의 도시라면, 상해는 경제 도시라 할 수 있다. 중국 최대의 상업 중심지인 상해는 중국 현대사를 움직여 온 거대한 힘의 근원이기도 하다. 물자의 풍요로움과 인재의 뛰어남을 다같이 이르는 말이다.

상해에 첫발을 디디면 가장 놀라게 되는 것은 엄청난 인파이다. 비좁은 길에 자전거, 자동차가 함께 뒤섞여 혼잡하기 이를 데 없다.

상해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은 강변지대의 황포공원(黃浦公園)이다. 영국이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개와 중국인은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 놓아 더욱 유명해진 곳이다.

맞은편 강변 지대엔 과거의 위용을 자랑하듯 옛 영국풍 시계탑을 시작으로 새로운 도심지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와이탄(外灘)이라 불리는 이곳은 상해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서, 상해시 인민정부청사, 세관, 화평반점, 상해대하(上海大廈)등 거대한 빌딩들이 늘어서 있다. 이곳의 건축물은 모두 서양의 복고주의 건축 양식을 따른 것으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독특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중국의 엄청난 인구를 실감케 하는 곳은 상해 최대의 변화가인 난징루(南京路)이다. 동서로 뻗은 5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는 넘치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길 양쪽에 늘어 서 있는 상점에는 각종 상품이 넘치고 있어 풍요롭게 보이니 물건 값이 다른 도시에 비해 비싸다.

상해를 찾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방문하는 곳이 상해 임시정부 청사(上海臨時政府廳舍)이다. 상해시 마땅루(馬當路)에 위치한 작고 소박한 3층의 벽돌집은 임시라고는 하나 한 나라의 정부 청사였다고 하기에는 초라한 느낌이 든다.

중국에는 개혁파와 보수파라는 두 개의 집단 외에 북경파와 상해파라는 권력파벌이 있다. 상해파는 실무 경제에 정통한 경제관료들을 대거 배출해왔는데, 상해파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상해시장과 당서기를 지낸 강택

민(江澤民) 당총서기를 위시, 주용기(朱鎔基) 부총리, 전기침(錢其琛) 외교부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상해시의 역사

상해는 송말(宋末) 1267년에 이미 무역항이 되어 무역감독관청인 시박사(市舶司)의 분소가 설치되었다.

1842년 아편전쟁 후 체결된 남경조약(南京條約)으로 상해는 외국에 개방되었고, 1845년에는 영국의 조차지, 1848년에는 미국의 조차지, 그 뒤는 프랑스의 조계가 설치되었다. 대영제국의 융성을 상징하는 거대한 건물과 프랑스풍 저택들, 그리고 그 사이로

나 있는 지극히 중국적인 골목 등, 중국과 서양이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모습과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명성도 이때부터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

상해는 근대 중국의 아픔을 대변하는 서구의 동방 점령의 거점이었으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사상(新思想)의 유입로이기도 했다. 1921년 제1차 전국대표회의가 열려 중국 공산당을 탄생시킨 곳도 이곳이었으며, 비록 장개석(蔣介石)의 반동 쿠데타로 실패했지만, 1927년 노동자들의 무장 봉기가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1932년과 1937년에는 일본에 의해 상해사변이 일어났다.

1919년 4월 17일 대한민국 임

19세기 말 유럽 열강에 의해 조계가 설치되었던 상해. 지금도, 마치 유럽의 거리를 걷는 듯한 기분을 갖게 하는 웅장한 건물들이 관광객들을 매혹시킨다.



시정부가 상해에서 조직되어, 1932년 5월 일본의 탄압을 피해 항주로 옮기기까지 활약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홍구(虹口)공원 의거로 알려진 이곳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도 매우 깊은 연유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장사는 상해에서

상해는 일찍이 공업, 과학기술, 무역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 때문에 개혁, 개방을 강력히 추진하는 본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상해의 방직공업은 중국 전체 생산설비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을만큼 상해를 대표하는 산업이며, 자동차는 전체의 4분의 1을, 조선업도 이흥장이 세운 강남조선소에서 1만 톤급 이상의 거대선박을 생산할 정도로 발달해 있다.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는 상해는 이 한 도시만으로 중국 공업생산의 1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

상해의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한중수교 후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북경 다음으로 상해를 지사설치 1순위로 꼽고 있다. 일부 상사들은 북경보다도 상해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장사는 역시 상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주들의 판단이다.

중국은 광둥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개발전략에서 양자강 연안으로 그 전략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상해 북동쪽에 위치한 포동(浦東)이 그같은 전략중심

의 핵심지이다. 지난 90년 당시 상해시장이었던 주용기(朱鎔基) 현 부총리가 발표한 포동개발계획은, 양자강 하류 삼각지인 포동을 앞으로 30년 동안 총 7백억 달러를 들여 중국 최대의 자유무역 기지이자 공업생산기지로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사업이다.

이를 위해 포동지구에 들어서는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토지임대 및 외국은행 지사설치에 파격적인 우대조치를 하는 등 포동은 경제특구와 똑같은 우대 조치 속에 거대 공업지구로 탈바꿈 하고 있다.

근교에는 공업단지가 이루어져 있는 동시에 근교농업 또한 성하여 농업인구 1인당 및 단위 면적당 식량생산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은 4,615원(인민폐, 1990년)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최대 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상해는 서양 문물의 첨단 기지로서 마치 중국 속의 서구 도시처럼 변해 가고 있다. 중국의 일개 도시에 불과한 이곳이 무역, 금융,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기독교 상황

상해는 1843년 외부 세계에 첫 번째로 그 문을 열었던 다섯 개의 중국 주요 도시들 중 하나였다. 외국 무역상들과 상인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상해의 해안에 상륙했다. 그 결과 75년 간 중국에서 거의 3만 명이 넘는 선교단체들

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상해 주변에는 많은 병원들과 학교들, 고아원과 신학교들이 생겨나서 복음 메시지의 전파와 더불어 많은 '유익한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50~1951년에는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져서, 거의 1만 2천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투옥되었다.

문화대혁명으로 단혀 있던 교회는 중국이 개방되면서 다시 문을 열었고, 상해의 선교 개척사업은 1982년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으며 현재는 많은 부흥을 하고 있다.

상해에는 삼자 측에서 세운 화동신학원(華東神學院)이 있으며, 목은당(沐恩堂), 청심당(淸心堂), 경영당(景靈堂), 국제예배당(國際禮拜堂), 회은당(懷恩堂), 갑북당(閻北堂), 호서예배당(滬西禮拜堂), 보안당(普安堂), 호동예배당(滬東禮拜堂), 제성당(諸聖堂) 등 10개소의 삼자교회가 있다.

천진(天津, TIANJIN)

중국의 관문 천진

천진시는 화북평원 동북부에 위치한 발해만의 항구도시로서, 원래 하북성의 수도였으나 1967년 북경, 상해와 더불어 중앙직할시로 되었다. 면적은 11,600Km², 인구 1천만 명의 천진(天津)은 요즘 자본주의 산업화 물결로 생동하고 있다. 천진에서 북경까지 중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왕복 6차선 고속도로가 훤히 뚫려 있다.

천진(天津)은 ‘중국의 인천’이다. 서울의 관문이 인천이듯 북경의 관문이 바로 천진인 셈이다. 중국과 수교 후 국내 관광업계로부터 천진(天津)은 중국의 관문으로 각광받고 있다. 북경에서 불과 1백여 Km 떨어진 천진은 중앙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직할시로, 중국인들은 경진(京津)지구라 부르면서 천진을 북경과 묶어 한 지방으로 생각하고 있다. 천진은 북경과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교통망이 발달했고 현대 중국의 무역항으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천진의 독특한 볼거리로는, 중국의 걸출한 지도자인 주은래(周恩來) 전총리가 졸업한 남개대학(南開大學)이 있는데 여기서 그의 체취를 느껴볼 수 있다. 주은래는 1913년부터 5년 간 이곳에 머물면서 미래의 강력한 중국에 대한 꿈과 이상을 키워나갔다. 현재 남개대학 내에는 주은래 기념관이 있어 그가 공부한 책상부터 연필까지 보관돼 있다.

천진에는 남개대학 외에도 천진대학, 천진의대, 음악 단기대학 등의 고등 교육기관과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노동문화궁 등 연구·문화 시설도 적지 않고, 수상공원을 비롯한 공원이나 녹지 확장을 통한 도시미화 사업과 경기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지닌 최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천진시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리 고민할 필요

가 없다. 역사가 짧은 항구도시라 자랑할 만한 특식이 그리 많지 않고, 음식맛도 신통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정기 여객선 편으로 연결된 천진과 인천항을 거점으로 중국을 내왕하는 화교 보따리 상인들이 많이 증가하였다. 화교 보따리 상인들은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데다 중국 산동성에 남아 있는 친인척을 통해 소비계층의 소비욕구를 정확히 읽고 있어 각종 교역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천진의 역사

천진은 원래 북경을 위해 태어난 도시다. 원나라 때, 쿠빌라이 칸은 천진(天津)을 화북(華北)지방, 특히 북경을 위한 식량 저장터로 처음 개발했다.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했던 명나라 때에는 강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식량을 북경으로 운반하는 중개기지로 천진을 활용했었다. 이 때문인지 천진 인근에는 ‘군량성(軍糧城)’이라든가 ‘북창(北倉)’같은 창고냄새가 물씬 풍기는 지명이 즐비하다.

결국 천진은 명·청조 시절에는 별 볼일 없는 북경의 위성도시 중 하나였던 셈이다. 천진이 현재의 화북지방 최대의 항구이자 공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한 것은, 아 이리니컬하게도 세계 열강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북경을 공격할 전진기지로서 천진을 이용하면 서부터였다. 청조의 왕도인 북경을 공략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천진을 교두보로 삼기로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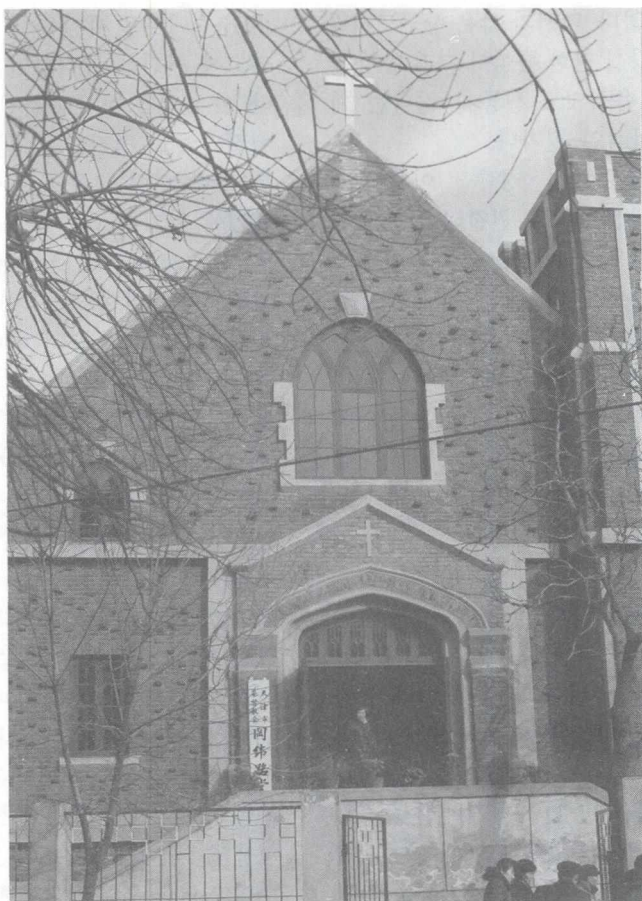
1856년 애로우 사건을 일으켜 다짜고짜 천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천진조약이 체결되었고, 천진에는 영국을 비롯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러시아 등 8개국의 조계(租界)가 설치되었다. 그 때부터 천진은 한 도시 안에 8개국의 학교, 병영, 감옥, 병원이 세워지는 등 문자 그대로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도 제국주의의 황금기에 지어진 훌륭한 건물들이 역사의 증언으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천진 사람들의 충격과 놀라움은 대단했는데, 그 중의 한 예가 바로 프랑스 조계 내에 있던 고아원을 습격한 사건이다. 1870년 수백 명의 천진 시민들은 낮과 곤봉으로 무장하고 프랑스 고아원을 습격, 10명의 수녀를 포함한 수십 명의 외국인을 학살했다. 그 고아원에 수용된 중국아이들은 프랑스인들이 서양에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 납치한 아이들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사실 당시에 납치한 아이를 노예로 파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 중국의 팔묵할 만한 격변사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상해나 광주 등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데 반해 천진에서는 별달리 기억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다.

외국 기업들의 천지

천진은 1949년 이후, 예전의 무역 중심지에서 공업 중심지로 또 한



천진의 강위로당(岡緯路堂) 삼자교회

차레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화북지방의 수로(水路)가 한곳에 모이는 곳이며 상해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를 끼고 있다는 이점 위에도, 천진대학, 남개대학에서 쏟아져 나온 풍부한 고급인력을 추진력으로, 소비재산업에서부터 중공업, 정밀기계, 엘리베이터, 용단, 자동차, 화학공업이 크게 번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때 중국에서는, 천진에서 나오는 비용표 자전거와 갈매기표 시계를 차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였

고, 풍선표 용단은 유엔 본부에도 걸릴만큼 품질이 대단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3천 개의 기업들이 활동하는 천진에는 최근 북경을 중심으로한 화북시장을 겨냥한 외국 기업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미국의 IBM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합작공장을 지었는가 하면, 우리 나라도 한국 전용공단의 건설지로 천진을 점찍고 건설을 추진중이다. 이뿐 아니라 일본, 대만, 유럽 각국의 전용공단에 합작공장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천

진은 광둥성의 경제특구와 맞먹는 경제규모로 급속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제일 부자촌인 대구장(大邱莊)도 바로 천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기독교 상황

천진은 제2차 아편전쟁 (1856-1860)이 끝난 후 '개항'되면서 선교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왔다. 20개가 넘는 선교회들이 여기에서 그들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사역의 개척은 장로교와 감리교, 독일 루터교, 그리고 중국 의료선교회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리고 YMCA와 YWCA도 또한 여기에서 약 20년 간 힘있게 활동하였다.

지난 10년 간의 정치적 변화로 말미암아, 천진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인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많은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천진에는 빈강도당(濱江道堂), 창문구당(倉門口堂), 당고당(塘沽堂), 강위로당(岡緯路堂) 등 4개소의 삼자교회가 있다.



중국교회의 산 증인 진민란 목사

석은혜

잘 파악하고 많이 알아야 하며, 나이가 많다보니 체력이 떨어져 몹시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되고 체력소모도 적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에 진 목사는 오늘도 기꺼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미국의 화교

미국에는 대략 200만 명의 화교(華僑)들이 있으며, 그 중 기독교인들은 불과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전역에 800개의 화교 교회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중국복음사역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의 사역 대상은 중국인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등 다른 지역에서 온 화교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사역 대상은 미국에 유학온 중국 유학생들이나 대만 유학생들이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 화교 교회가 중국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는 미국 교회들보다 적다.

“1989년 6·4 천안문사태는 화교들에게 같은 중국인이라는 ‘동족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열정도 식어갔습니다. 화교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꼭 중국선교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화교들도 중국선교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향해 선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들어 화교 교회들 가운데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손잡고

진 목사는 한국 교회가 조선족에게 해왔던 선교 성과는, 물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아주 좋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조선족을 통한 북한선교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있어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이 점점 한족들을 상대로 사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역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역에 앞서 중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중국선교 세미나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한 중국선교를 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중국 교회소식을 듣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효과적인 중국선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극히 기본적인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효과적인 사역을 하려면 언어는 필수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 목사는 중국 교회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족 교회만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교사가 중국 현지에 가서 중국인 교회를 보아야만 정확하게 중국 교회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인을 상대로 사역을 해야만 한국 교회에게 중국선교의 비전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고, 중국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0세의 노구에도 청년같은 강함을 느끼게 하는 진 목사.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힘이 있고 예리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홍콩 CCL과 중국어문선교회가 중국선교사역의 동역자가 되었고 앞으로 우리는 진 목사를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끝으로, 중국어문선교회 간사들이 중국어를 더욱 열심히 배우길 당부하면서 간사들의 중국선교를 위한 열정과 헌신을 보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음에 중국선교 동역자를 찾을 때는 꼭 헌신적이고 열심 있는 한국 자매를 구해야겠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높이 평가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 중국인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국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좋은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합니다. 특히 중국어문선교회와 같이 동역하여 중국의 선교사역이 더욱 확장되길 바랍니다.”

청도(靑島) 신설 선교구

방지일



전운(戰雲)이 나날이 확대되자 해안 도시들에서도 외국인들은 다 퇴거하게 되었고, 나도 회국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나 이기에 전란이라고 해서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있기로 작정하였다. 할아버지만이라도 회국케 하라는 통지가 와서 이는 순종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여 조부님을 뒤희고 280리 떨어진 청도시(靑島市)에 왔다.

모두들 철거하고 마지막 떠나는 배가 있을 뿐이라, 조부님 혼자 가시게 할 수는 없어 부득이 내가 모시고 일시 회국케 된 것이다.

전운이 호전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본국에 와서도 안동에서 어학선생 한 분을 초빙하여 중국말 학습에 열중하였다.

일본이 해안을 다 점령하여 유신정부를 세웠고, 치안이 어느정도 되어간다 해서 1938년 3월에 청도로 돌아갔다. 오지에 갈 수 없어 청도에 체재하면서 청도에 새 선교구를 개설하기로 본국 총회와 미국 선교부, 현지 교동노회의 동의를 얻었다.

청도시는 중국 해안 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군항으로서 독일이 개척한 근대화한 요새로 이름 높은 곳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곳을 점령했다가 중국에 돌려준 군 요새인데, 지금 다시 일본이 차지한 것이다. 인구 100만 정도되는, 큰 도



시는 아니나 국제도시의 규모를 갖추었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교회도 각 교파가 많이 들어와 있었다.

중화기독교에 속한 나는 자연히 그 총회 산하 산동대회에 속한 교동노회의 일원이 되었다. 청도시에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빈민촌을 택하여 우선 시작하였다. ‘중가와’라는 곳인데 좀 낮은 곳이란 뜻이다. 동서남북 네 촌에 한 4천 호가 살고 있었다.

옥의 집회로 시작했다. 차차 호응을 받아 셋집을 얻어 정식 예배를 드렸다. 차차 많은 사람을 얻어 자립으로 교회당까지 짓게 되었다. 영세민들로 매우 궁핍하게 살고 있는 이들이 더 잘 받아들이는 것에 감사했다.

이 교회를 내 손으로 세 번 중축하였다. 교인 수가 3백여 명까지 이르게 되자 남녀 전도사를 초빙하여 일하게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소촌장(小村庄)에 개척하였고, 계속해서 오가촌(吳家村), 태평진(太平鎭)에 각각 개척하였다. 시중에는 주평로(鄒平路)에 또 개척하여 세웠다. 생각 밖으로 성과가 좋았다.

전란으로 회국하였던 박상순 목사께서 돌아오셨다. 다음으로

김순호 선교사께서 안식년을 마치고 오셨고, 그 다음으로 이대영 목사께서 역시 안식년을 마치고 오셨다. 네 선교사가 한 곳에 임시 거주하게 된 것이다.

그때 만주에는 최혁주 선교사를 쌍양(雙陽)에 파견, 선교활동을 펴고 있었다. 청도에만 다 있지 말고 만주 선교에 지원하라는 본국 총회의 훈령을 받았다. 그리하여 김순호 선교사는 만주로 최선교사를 지원하려고 떠났다. 임시 조치로 한 일이었다.

시국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대승리를 거두어 북경, 남경에 각각 유신정부를 세웠다가 왕정위(王精威)의 남경 정부에 통일되었다. 물론 일본군 점령하의 소위 정부였다.

우리 동포가 일본군을 따라 일본 점령지역으로 대거 진출하여, 도처에 많은 동포들이 청도시에 살게 되니 이들에게도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 내가 와서 곧 동포 모임도 가졌다. 중국 교회를 빌어 오후에 모임을 시작했다. 이 교회도 점점 자라게 되니 전임 목사의 필요를 느껴 몇 해 만에 단독 교역자를 청빙하기로 하였다. 김명집 목사를 청빙하여 그 목사님에게 전임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중국선교에만

전력하였다. 사변으로 청도교구가 신설되었고 교동노회와도 합작하여 선교구가 크게 확장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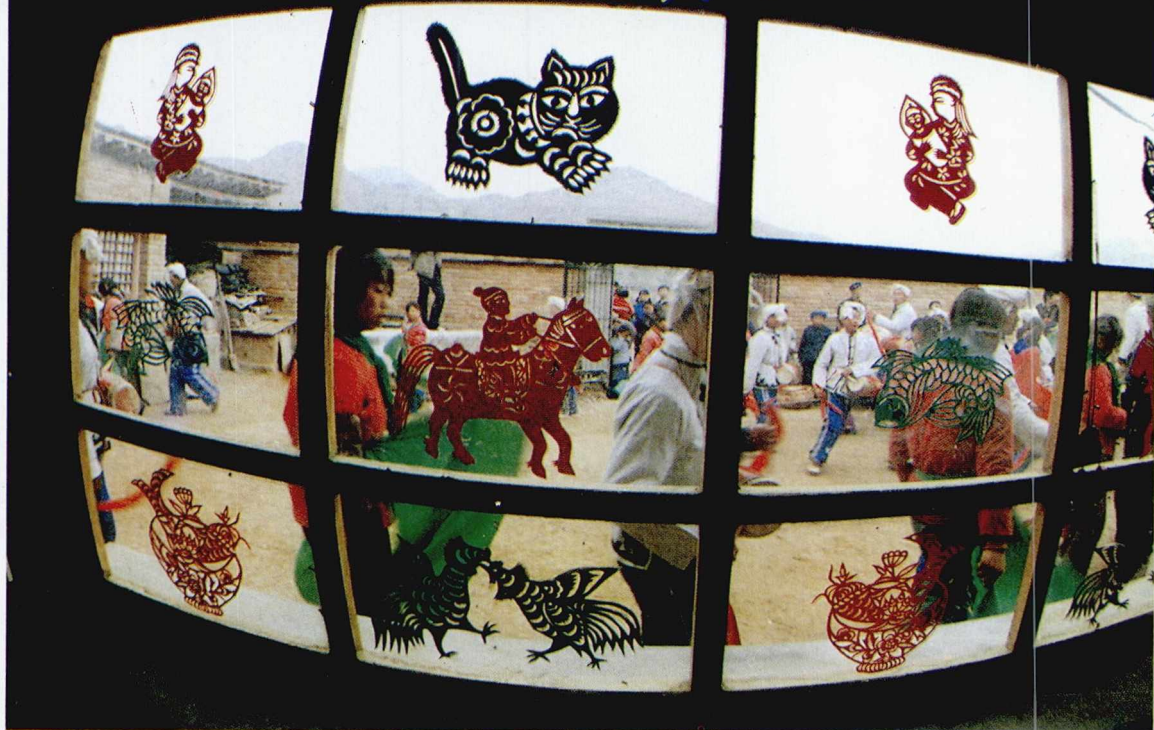
교동 노회는 교주만 일대로 산동반도의 남쪽 해안에 해당한다. 산동대회 산하 열여섯 개의 교회 가운데 큰 교회로는 동해교회, 태양교회, 삼교회로 우리 선교구역인데, 태양교회만은 우리 단독이요, 동해 교동노회는 미국 북장로선교사와 합작으로 세워진 것이다.

청도시는 독일이 건설하였으니만큼 독일 교회인 루터교가 세워져 비교적 교세가 컸다. 그 다음으로 침례교 선교사들이 많이 주둔하였고, 장로교도 남녀 중·고등학교를 세우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 밖에 여러 교파들이 있어 교세는 약하나 교파수는 많았다. 이런 지방에 우리도 한몫 끼어 일하게 된 것이다. 교세가 날로 확장되는 데 비례하여 일본 세력의 진출로 난관에 봉착하게 된 일도 잊지 못한다.

『福音歷史半百年』 중에서

방지일/중국어문선교회 교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종이 공예 (剪紙)



종이 공예 예술은 중국의 문화발전 과정에서 변천해온 전통예술이다. 그 기원은 당연히 한대의 종이 발명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발명 초기에 종이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종이 공예는 처음에 궁궐과 사대부 가정에서 널리 전해졌으며, 궁녀들의 가장 아끼는 취미가 되었다. 당·송대에 이르러서는 민간의 각종 경축행사에서 크게 성행했고, 명·청대에는 일상생활의 경축행사와 결합된 예술이 되었다. 금세기 이래로 내우외환과 전화(戰禍)를 겪어 오면서 종이 공예는 쇠퇴하고 단절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생활의 많은 변화 중에 일반인들은 종이 공예의 연구에 종사할 겨를이 없었다.

20세기의 '80년대부터 대만에서 중국 예술문화의 부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종이 공예에도 온 힘을 쏟아 다시 중시하게 되었으며, 더욱 창의적인 표현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종이 공예는 유럽, 아시아 대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기원은 AD 7세기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그리고 당시의 비단길을 통해 중동과 유럽에 다시 전파되었고 다른 풍격으로 발전하였다. 지금 그들 국가의 박물관에는 옛날 중국의 종이 공예 명품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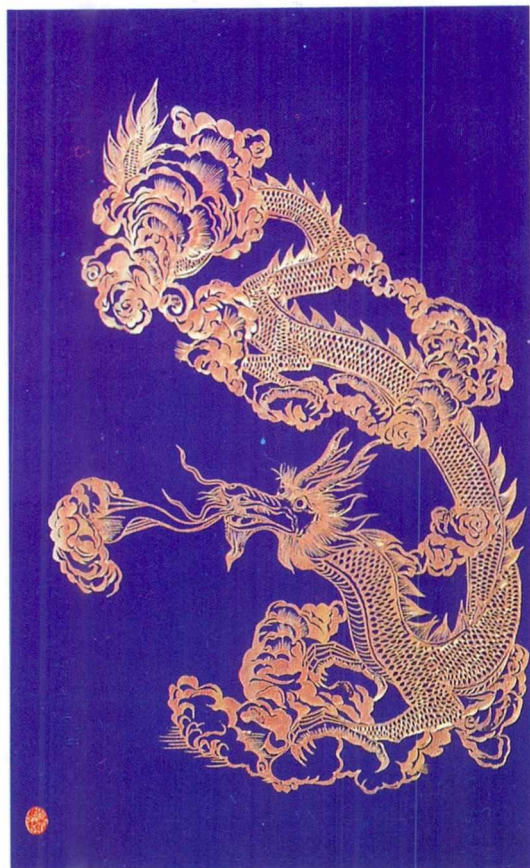
종이 공예가 중국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쇠퇴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종이 공예 애호가들이 중국의 아름다운 문화민속 생태(生態)를 '깎고, 자르는' 기교로 다채롭게 표현해 내고 널리 알리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어서 널리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그 귀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대 궁녀들은 한가할 때 주로 종이 공예를 익혔고, 민간에서도 교제하며 방문할 때 늘 종이 공예를 선물로 준비했다. 또한 종이 공예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길상(吉祥:상서로움)을 표시했다.

그 후 종이 공예 기술을 더욱 연구하여 입신(入神)의 경지에 이르렀다. 후세에 종이 공예는 창문장식·복식(服飾)·신발 문양의 청사진으로 다양화되었다.

현재 종이 공예의 유파(流派)와 기교는 다양하게 발전했지만, 대부분 소재 선택이 여전히 민속적인 것이 위주이고, 평면 도안이 대중을 이루며, 표현기교 방면에서도 가위로 자르고 칼로 깎아내는 기교를 종합적으로 병용하고 있다. 독특하고 생동감있는 예술미를 표현해 내기까지는 모든 종이 공예 작업자 개인의 예술적 조예가 따라야 한다. 대체로 생명력있는 예술창작은 사람·시대·지역·환경·감정에 따라 다르다. 민속적인 상품을 위주로 하여 중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종이 공예 작품은 단지 공예품의 수준에 머무를 뿐이다.

종이 공예의 습작과 연구는 유쾌한 마음을 기를 수 있는 훌륭한 훈련이 된다. 젊은이들은 인내심을 기르고 집중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중년 이상의 사람들은 적적함을 이겨내고 벗삼아 재미를 붙일 수 있다. 경험과 지혜를 늘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눈’과 ‘손’에 유익한 운동이 되기도 한다. 또한 종이 공예는 인생의 즐거움을 증진시키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유익한 취미예술이다.

한 자루의 가위를 이용한 ‘자르고 깎아내는’ 기교를 사용해서 깨달음을 얻고, 전통과 창의가 함께 고양될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마음 속의 정취에 있는 것으로 실로 필묵으로는 형용해 낼 수 없는 것이다.



『中華傳統文化在臺灣』27號,「剪紙」-中華民國新聞局-

번역 / 박재현 서울대 중국어성경반 회원

부흥회만으로는 안된다

중국훈련사역 현장체험기

梅增知

최근 친척 방문차 중국에 갔을 때 ‘훈련사역(培訓工作)’의 기회가 주어졌다. 비록 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흥회(培靈)’와 별 차이가 없었다. 환경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훈련 사역은 늘 모임에 있어 기동성, 순간성, 임시성 등의 제한을 받아, 온전하고 체계적인 양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늘날 해외에 있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중국 교회의 사역자 부족과 지도자 훈련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만일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교재가 보다 많이 제공되고, 정기적이고 경험있는 강사들이 갖춰진다면 보다 좋은 훈련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현지의 인원, 시간, 양육 장소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외에서 파견되어 온 강사들이

아무리 체계적이고 주제가 분명한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적합한 교재와 필독 서적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심령 부흥회와 같은 영적 각성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주는 결과에 있을지언정, 진정한 훈련과 양육의 목적에 도달할 수는 없다.

훈련사역과 부흥회는 분명히 다르다. 훈련사역은, 훈련받는 자가 실제 사역상,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 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훈련받는 이들은 양육받는 과정에서 수시로 반응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실습을 할 필요도 있다. 훈련은 단순히 설교하고 설교 듣는 과정이 아니다. 훈련의 기술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사고를 확장하고 토론하는 데 몰두할 수 있도록 계발하는 데 달려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리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사역의 체험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훈련사역에 참가하는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것도, 참가자들의 성경 지식과 사역 경험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에서, 주최 측이 원래 계획한 대로 계획을 엄격히 시행하려 한다 해도, 오는 이들의 요구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또 참석자들은 일반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에만 습관이 길러져 있어, 토론하고 응답하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부흥회가 보다 환영을 받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지도자 훈련을 일종의 단순한 집회나 성경공부의 또다른 명칭쯤으로 여기는 참여자들이 많아, 양육을 맡은 사람마저도 그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

는 실정이다. 설교를 통한 부흥집회는 제자훈련보다 힘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는 T현에 가서 3일간 양육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2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 T현에는 200여 개소의 처소가 있으며, 대부분 가정교회 처소이다. 같은 가정교회라 할지라도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2, 3개파로 나누어져 있다. 일단 분파로 나뉘어지게 되면, 제한받는 환경 속에서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여 왕래하지 않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기 마련이다.

이번에 내가 양육을 맡은 곳은 T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한 분파로서 모두 60여 개의 처소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처소마다 책임자 한 명씩 참여하기로 되어있

는데, 어떤 곳에서는 몇 명 더 오기도 하였다. 게다가 각 처소마다 일부 열심있는 성도들이 있어, 집대 봉사를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청강할 권리를 누릴 수 있었고, 이것은 차마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양육받는 사람은 모두 합쳐 150~200명 이상이 되고, 너무 사람이 많아 자연히 소수의 그룹형식으로는 강의가 불가능하다. 집회가 시작되고 찬송을 부르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으레 설교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이 이번에 온 내게 바라는 것 역시 부흥회라는 것을 사전에 감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임 전 몇몇 책임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번에 온 목적은 훈련과 양육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내 말을 듣고 난 사역자 몇 명은 난색을 표하면서, 성도들은 지

금 영적인 생명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듣기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하에서 성경 공부 방식의 양육은 통하지 않을 테고, 적합한 교재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절충 방안을 떠올려 해결하기로 하였다. 주로 설교를 많이 하겠지만, 때때로 설교 중에 참가자들이 반응을 보이거나 토론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요청했다. 그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설교로 집회를 시작해 줄 것을 고집했다.

이번 훈련의 주제는 “사역자의 마음의 준비”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역자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마음 자세가 비뚤어져 있거나 소명감이 불분명한 사역자는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가면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결

중국 성도들의 절실한 필요는, 보다 체계적이고 온전한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다. 사진은 심양의 한 조선족 가정교회의 예배 모습



국 오래 못 갈 것이다. 사흘 동안 8번의 집회(8 강의)가 열렸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2시간 내지 3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 첫날 강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봉사해야만 한다는 격려의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 주님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미 맡겨진 사명이고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말씀을 전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있어 먼저 부름받은 소명이 확고해야만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 말을 전하고 난 후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소명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간증을 해보라고 하였다. 이것은 형제, 자매들을 격려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 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항상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다면 쉽게 지치거나 낙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책임자로 있는 어떤 형제가 먼저 일어나 부름받은 간증을 하자, 그 후 연속적으로 몇 사람이 일어나 간증을 하였다.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주제에서 벗어난 애기로 뒤죽박죽되거나 일반적인 간증 집회가 되어 버리지 않을까 염려하였지만, 결국 나의 염려가 노파심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은 모두 5분 내에 간

증을 마쳤고, 분명한 주제에 맞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역자의 길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해 나누었던 것이다. 사역자들의 부름 받게 된 간증은 대개 다음과 같은 8가지의 내용이었다.

1. 봉사해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것에 대한 응답도 받았다.

2. 하나님이 어떤 상황 하에서 부득불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이후 마음 속에서 특별하게 이끄시는 능력이 역사하여 이 길을 가는 것을 뿌리칠 수 없었다.

3.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하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

4. 성령의 빛이 자신의 죄를 사해주시므로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마음에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5.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자기에게 임함을 깨닫고 크게 감동하여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하는 마음이 생겼다.

6. 환경으로 인도하고 계획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7. 질병의 고통과 환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기꺼이 이 길을 걷기로 택하였다.

8. 내적인 생명이 변화함에 따라 주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게 되었으며,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다보니 어느새 전임 사역자가 되어 버렸다.

다른 강의 시간에 성도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의 차이를 가르쳤다. 참가자들은, 성도가 되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를 따르고 본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성도는 오로지 은혜 받고 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이어서 모든 참여자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에, 그들이 평소에 복음을 전할 때 늘 사용하는 성경구절을 제시해 보라고 하였더니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흑판에 적으면서 그들이 제시한 이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이 때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난다. 내가 흑판에 성경구절을 적고 있을 때 한 형제가 내 곁에 와서 낮은 소리로 속삭이며, 잠시 수업을 중지하고 이층에 올라가서 좀 쉬라고 하였다. 분명 무슨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음을 알고 나는 그들을 따라 이층으로 올라갔다.

조금 후에 그가 다시 와서, 방금 삼자교회 성도 몇 사람이 집회에 참가하려고 왔었다고 알려주었다. 아마도 그들이 진심으로 집회에 참가하길 원한 것 같았지만, 한편으론 그들이 혹시 해외에서 온 강사에 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고발하여 불필요한 소동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에 보안을 위해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말해주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소 사랑이 결핍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들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30분 가량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는 삼자교회 성도들은 이미 떠났고, 집 밖 길모퉁이에 이미 경계 태세를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집회를 계속해도 된다고 전해주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현지 성도들의 판단과 계획을 신뢰하여 충분한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 이외에, 개인의 구원 간증 역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큰 설득력을 발휘한다.

또 다른 강의 시간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3분 동안 구원 간증을 하게 한 후, 한 사람씩 일어나 마치 앞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자신의 구원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다. 모든 이들이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났다. 만약 식사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멈출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3일이란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갔다. 우리가 헤어질 때 형제 자매들은 간절히 말하였다.

“꼭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은 기본진



리 학습반과 목회학 방면으로 양육하기에 적합한 때라고 생각한다.

『守望中華』, 第112期 중에서

번역/ 박마리아

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중국에 정착하기까지

현지체험을 중심으로

황산

아내, 2살 난 아이와 함께 여행 가방 3개를 들고, 홍콩을 거쳐 중국 ○○에 도착한지 1년 남짓 되어 간다. 그 동안 중국에서의 생활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인도하심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93년만 해도 지금처럼 중국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안기부, 교육부, 중국 대사관 등등 관계부처의 심의와 수속을 밟는 일만 해도 제법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비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무사히 중국 땅에 발을 딛게 되었다.

처음엔 내 이름 석 자도 중국어로 읽을 줄 모르는 채 중국에 왔는데, 지금은 1년 간의 언어 훈련을 통하여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만큼 아쉬운대로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 누추하고 불안정하지만 싼 가격의 거주지와 소중한 중국 친구들을 얻게 되었다.

이 글을 처음 부탁받았을 때, 1년도 채 안 된 짧은 경험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현지 생활상의 어려움을 체험적으로 소개한다면 앞으로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쓰게 되었다. 필자가 현재 중국에서 살면서 정착하기까지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편의상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에서 직접 생활로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무엇인가? 둘째, 입국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어떠한가? 셋째, 입국 후 사역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에 관해 부족하지만 필자 나름대로의 소견을 부언하였다. 이것은 필자가 중국 선교를 준비하며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온 완전치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저 참고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처음 정착하는데 있어서

필자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오기 전 훈련을 받으며 제일 많이 들은 용어는 바로 ‘문화 충격’이라는 단어였다. 문화 충격은 타문화권에서 발을 디디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식주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리라 본다.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다른 것도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공동체의 일원

중국에 오기 전에도 몇 번 해외 여행을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문화 적응은 쉽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지에 와 보니 그렇지 못하였다. 혼자도 아니고 가족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나로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내와 아이가 각각 문화 충격을 받으므로 가족 공동체의 가장인 나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문화 적응에 있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서술하는 이유는, 선교 목적으로 중국에 오는 많은 사역자들이 점차 혼자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가족 전체를 염두에 두고 문화 적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중국에 정착하는 데 있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정이 잘 적응해야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거주지 제한

중국에 와서 제일 먼저 겪은 충격은, 외국인에게 주거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은 중국 정부에서 지정해 준 지역과 주택에서만 살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지역과 주택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우리 가

정은 불법이긴 하지만, 중국 서민들이 사는 개인 집을 임대하여 살고 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이 따르곤 하는데, 당장 비싼 방값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조심하면서 살고 있다.

다른 지역의 주거지 상황을 들어본 바로는 다소의 가격 차이가 있지만, 제한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동북삼성(東北三省) 지역은 비교적 규제가 자유로워, 신고만 하면 거주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북경, 상해 등 주택문제가 심각한 대도시에서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의 서민들 역시 주택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외국인이 거주지의 문화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점을 많이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음식 적응

중국에 오기 전부터 이미 장기 사역을 계획하고 온 우리 가정은, 중국 음식에 잘 적응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어떤 한국 음식도 준비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음식 면에 있어서는 생각 밖으로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30년 이상 길들여진 한국 음식을

먹지 않고 매일 느끼한 중국 음식만 먹다 보니,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무엇인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내린 결론은, 집에서 식사를 할 때는 한국식으로 고추장, 된장으로 만든 음식과 김치를 먹고, 중국인들을 만나거나 중국인 집에 초대받을 경우에는 그냥 중국 음식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대로 따랐다. 이러면서 차츰 중국 음식을 먹다 보니, 이제는 가끔씩 집에서도 중국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집에서 만든 한국 음식을 중국인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면서 잘 적응하고 있다.

결국 음식 적응이란 억지로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 조절하면서 점차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듯하다.

현재 중국 북경, 상해, 심양 등지에는 한국 고추장, 된장, 김치, 라면 등을 파는 가게가 여기저기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이 골고루 많이 퍼져 있으므로, 음식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할 것이 못 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문화 적응

중국에서 물건을 사거나 돈을 주고받을 때 그들에게서 받은 인상은 매우 불친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들은 잔돈을 줄 때 돈을 내던진다. 처음에 이런 일을 당하면,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남녀 모두를 상대로 영업하는 중국의 미장원.
의자에 곳곳이 앉은 채 머리를 감는 남자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자마자 겪게 되는 문화충격은 다양하다.
문화적 차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별 어려움은 없다. 길거리에서 빨래를 하는 중국 여인.

나를 무시해서 그렇게 집어던지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정당하게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도 잔돈을 받을 때 이런 푸대접을 받게 되면 기분이 상한다. 한 번이라도 중국에 와 본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경험했을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태도는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중국인들의 습관적이고 의미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받아넘기면 된다. 정 기분이 나쁠 경우에는 그들과 똑같은 태도로 돈을 던지고(?) 물건을 받으면 마찬가지리라 생각한다.

또 중국에서 여행을 다니게 되면 완전히 내가 ‘봉’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

다. 모든 공공요금(공원 입장료, 비행기표, 기차표, 음식값 등)이 외국인에게는 2,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건의하면서 이 제도의 무리한 점 등을 설명하여도, 그들은 여전히 막무가내로 ‘너희는 돈이 많으니 우리에게 내 놓고 가라’는 식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경우, 외국인 티를 안 내고 허름하게 중국인 복장을 차려 입고 간단한 중국어로 표를 사서 통과하기도 한다.

시장에서 반찬을 사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외국인이라고 생각되면 ‘바가지’를 씌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외

국인이라는 표시를 내지 말고 말은 적게 하면서, 마치 먼 지방에서 온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물건을 사면 비교적 바가지를 덜 쓰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인들은 정부나 인민 모두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인에게 돈을 받아내려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복장에 있어서도 문화 충격을 경험하였다. 특이한 것은, 잠옷이나 외출복이 구별 없이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은 특히 여름에 많이 일어난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잠옷으로 갈아입고 식사를 한 후 그대로 잠옷 바람으로 거리를 활보하거나 상점에 나와 물건을 구입

하는 사람들이 많다.

처음엔, 그런 복장으로 나와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내가 낯뜨거운 충격을 받았었다. 특히 여자들이 속이 흰히 비치는 옷을 입고서 잠옷을 입은 남자와 같이 손을 잡고 돌아다닐 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고 편하다고 느낄 뿐 전혀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 역시 그저 '우리와 다른 문화적 차이구나'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입국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에 있어서

현지 답사 및 사전 준비

몇 달 전, 곧 중국으로 파송될 예정인 한 선교사 가족이 현지 답사차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방문하였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었지만, 다른 분의 소개를 통하여 만나게 되었고, 교제하던 중 내 나름대로의 경험담과 중국의 전반적인 상황, 이 지역의 상황과 정보를 전해 주었다. 이분들이 현지답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지 얼마 안 되어, 이곳으로 오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실 필자는 중국으로 파송되어 오기 전, 북경만 현지답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북경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한 케이스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사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오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 없이 왔기 때문에 와서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나 싶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자기가 살 지역을 미리 현지 답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던 것들과 함께, 현지답사에서 얻은 실제적인 상황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소 및 진행할 사역들을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효과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별다른 준비나 현지답사 없이 무조건 북경이 수도니까 좋겠지 하고 전부 북경으로만 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모한 생각이라 본다. 중국은 거대한 대륙이고, 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지역도 너무나 많다. 주변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답사를 통하여 북경이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지역으로 직접 가는 것이 좋다.

선교사 한 가정의 현지에 나 오게 되면 그 기간은 보통 4~5년이 한 팀(term)이다. 조사없이 한 장소로 왔다가 다시 제2의 장소로 옮겨가게 되면 그것은 여러 가지 낭비와 불편을 초래한다. 처음에 도착한 지역에서 살면서 꼭 필요한 살림 도구를 사지 않을 수 없고, 그런 후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이삿짐을 다 들고

가기가 너무 어렵다. 중국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이다. 다 갖고 가려면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게 되고, 팔자니 가격이 너무 싸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난처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정착하기 전 미리 1팀 동안은, 기도 가운데 심사숙고하며 사역할 도시를 결정할 것을 권한다. 그 후에 바로 그 지역으로 들어가 언어 훈련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서서히 복음을 전하며, 그 지역을 기반으로 사역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 2년 정도 와서 언어 훈련을 한 후, 하룻동안에 금방 결정하여 적당한 지역으로 가겠다고 생각하고서는 북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1, 2년 후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따르게 될 것이다. 충실한 현지답사와 주변의 정보 수집을 통하여 중국의 넓은 지역을 놓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장소를 결정하고, 사역의 방향을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인 선교가 되리라고 본다.

비자 문제

중국에 들어올 때 얻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L, F비자는 비교적 얻기 쉽고 X비자(학생 비자)도 가능하다.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연장이

가능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비자의 종류를 바꾸어서 체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사전에 준비해서 알고 있는 것과, 준비 없이 무조건 들어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왜냐 하면 비자의 연장이 안 되어서 불법 체류로 적발되어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하게 외국으로 다시 나가서 비자를 연장하고 들어와야 하기에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게 되는 등 불편한 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당하면 사역자는 당황하고 용기를 잃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해결책을 구한다면 대처하기 쉬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비자 문제는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역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1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다고 보다는, 필자는 삶을 통하여 많은 중국인들을 만나고 이해하면서 최소한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살아왔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제 사역에 있어서는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요,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일 뿐이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1년 동안 성령께서 중국인들을 붙여 주시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중국인들을 대할 때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고, 조그만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중국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등 많은 부분들을 직접 인도해 주셨고, 우리들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너무도 크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단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인도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것이다.

중국인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사역에 있어서 먼저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중국인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이 쉽게 속을 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친구 관계에 있어서 가까운 것 같으면서 먼 것 같은 느낌과도 유사하다. 속마음을 쉽게 내놓지 않고, 의심 많고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한

다. 중국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중국인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것이다.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라는 명목 아래 경제적 분야에서 많은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영향으로 중국인들은 현재 정신적으로 매우 혼돈하며, 경제 개방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허한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 이와 같은 기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중국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역자들의 무지와 실수로 복음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급한 마음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그야말로 ‘만만디식 전도’가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중화사상(中華思想)의 민족성을 가진 중국인들에게 가르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들은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 비웃으면서 받아들일 것이다. 절대 가르치려는 자세보다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처음 중국에 와서 중

국인들을 만나면서 무의식적으로 떠올린 생각들은 “중국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더럽고, 무식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바로 이런 중국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다. 그 이후 오히려 그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다시금 샘솟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중국 선교는 물 밑에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중국 선교는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하는 사역보다는, 물 밑에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요, 사역자는 단지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다. 성령께서 마음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물 밑에서 연구하며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와서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전체가 그런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도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모든 사역들이 조심스럽고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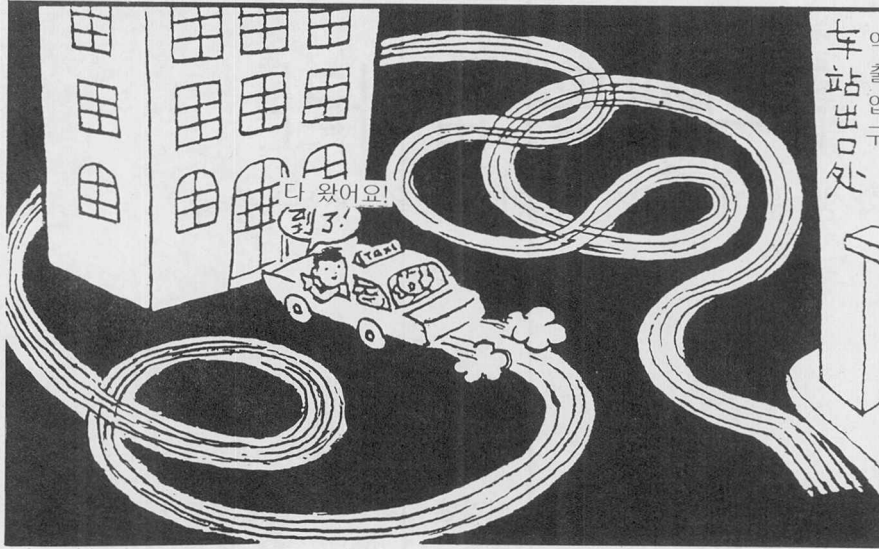
사역자들 간의 협조를 구하는 마음으로

현재 중국에 나와 있는 한국인 사역자들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제각기의 전문성을 밀도 있게 키워가며 중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94년 8월에 홍콩에서 사역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중국 선교 대회를 가졌는데 필자도 여기에 참석하여, 참으로 많은 모양으로 사역자들이 중국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참석한 사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사실에 감사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구로 사용되는 사역자들은 제각기 특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사역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로 선교의 능력을 높임으로써,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조와 연결을 위한 구체적인 선교 단체도 필요하리라 보며, 어떠한 모양의 사역일지라도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땀을 흘릴 수 있는 순수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기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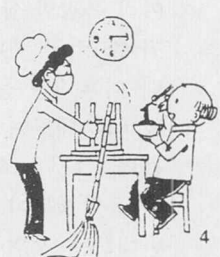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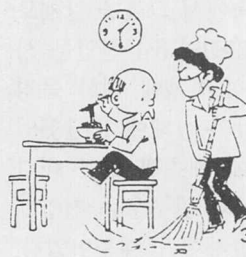
황산/ 중국 선교사

歪道 꼬불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택시기사들이
돈을 많이 받기
위해 일부러 돌아서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것을
풍자한 만화

为谁服务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음식점 이름이 '인민을 위한 국수집'인데
손님에 대해 열악한 서비스를 하는 것을
풍자한 만화.

영업이 끝나려면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도,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 옆에서
청소를 하고 의자를 올리면서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고 있다.



유학생을 잡아라

‘유학생 끌어들이기’에 안간힘을 쓰는 중국

최근 북경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두 가지의 새로운 방침을 공포했다. 왕복 비행기 티켓 제공과 귀국 이후 자유로운 왕래의 보증이 그것이다.

과거 15년 간 정부의 유학생 정책에는 세 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십 년 간 북경 정부는 강경 일변도의 유학생 정책을 취해왔다.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강제로 귀국시키곤 했다. 1989년 6·4 천안문 사태 이후 3년 동안, 유학생에 대한 북경 당국의 태도는 최악의 상태에 도달했었는데, 그것은 해외에 체류해 있는 대다수 유학생들이 당국의 민주운동 진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기 때문이었다. 주미(駐美) 중국 영사관 측에서도 가능하면 학생들과의 접촉을 기피해왔다.

최근 2년 간 중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자 ‘인재부족난’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정부는 유학생을 귀국시키기 위한 일념으로, 이전의 딱딱하고 무관심했던 태도를 버리고 보다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첫 번째 시도가 바로 《神州學人》이라는 유학생 월간지를 발간하여 각국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것이다. 이 밖에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차례로 다수의 위문단을 해외로 파견하여 여러 차례 유학생들과 좌담회를 갖고, 그들로 하여금 중국 내의 각 대학 또는 과학 연구 기관의 빈 자리를 메우도록 장려하고 있다. 북경의 정치 지도자들도 출국할 때마다 여러 차례 현지의 유학생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支持留學, 鼓勵回國, 來去自由”(유학을 지지하고, 귀국을 장려하며, 왕래는 자유롭다)라는 정책을 소개한다.

정책적 선전과 동시에 북경 당국은 적극적으로 유학생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학생들이 몰려있는 나라에 중국의 문화 예술단을 보내어 위문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영사관 관리들도 과거의 관료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유학생들이 주최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측의 이러한 우호적 태도는 유학생들의 호감을 샀고, 그들로 하여금 정부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그 결과, 유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외국 주재 중국영사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하였다.

대다수의 유학생들은 중국 정부의 새로운 태도를 긍정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유학생들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짜 비행기 티켓과, 자유로운 왕래를 보증한다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유학을 간 대다수의 학생들이 외국에 머무르는 문제에 있어서, 국비 유학이든 자비 유학이든 간에 몇 천 달러의 비행기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귀국이나 체류냐의 결정에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유학생들은 일시적인 귀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귀국하여 장기간 중국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냉담한 태도를 나타낸다.

가호(賈浩)가 주관하는 ‘워싱턴 중국 문제연구중심’에서는 매년 귀국하여 학술 강연, 혹은 합작 연구를 하려는 미국의 중국 유학생, 학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단기 귀국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매년 모집정원은 25명에 불과한데, 등록학생 수는 천여 명을 넘고 있다. 이에 비해 북경 정부의 주관하에 몇 차례 열렸던 미국 유학생 귀국 초빙 모임의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

1982년 유학 와서 현재 예일대학 의학대학 병리학과 부교수이며 생물과학 실험실 주임으로 있는 부신원(傅新元)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 숫자가 수 천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귀국 문제에 있어서는 각기 개인적인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따진 후 결정을 하게 된다.” 적어도 5년 내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별때처럼 귀국하는 현상을 볼 수 없을 거라고 그는 말한다.

유학생의 귀국에 따른 문제는 정치, 경제적 요인 및 개인의 사업 문제를 포함한다. 모든 사람들이 등소평 사후 중국의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등소평 사후에도 지금처럼 개방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귀국하고자 하는 유학생 숫자는 부쩍 늘어날 것이다. 가호는 또, 앞으로 몇 십 년 간 중국의 경제가 계속 낙관적인 성과를 보이고, 정치적으로 신구(新舊) 세력의 교체가 안정된 상태에서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유학생들의 귀국열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뉴욕 주립대학 경제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건(劉堅)은 귀국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필경 중국은 나의 조국이기에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귀국 후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염려된다. 온종일 미국 아이들과 어울리며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만일 내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같이 갈 텐데 그렇게 되면 10년 후, 아이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과연 지금처럼 유창한 영어를 할 수 있겠는가?”

그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지만 여전히 주류층에 끼여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가 영어를 본토인처럼 유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그가 겪었던 어려움을 또다



현재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유학생들로 하여금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만든다.

시 겪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현재 중국에 불고 있는 ‘황금 시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다. 의심할 바 없이 귀국하여 발전을 도모하려는 모든 중국 젊은이의 가장 큰 소원은 성공하는 것이다. 현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많은 이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유수재(劉秀才)라는 학자는, 졸업 후 미국에서 규모가 매우 큰 회사에 고용되어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런 그가 '94년 6월, 돌연 사표를 내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북경대학(北京大學)과 합작으로 제약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약을 연구, 개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찬 그였기에 귀국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전문 경영직 사원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외국 기업과 중, 외 합작 기업들이 유학생들에게 국내에서 발전할 기회를 주고 있다. 또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들이 현재 장기간의 불경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직장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들

로 말미암아, 사업을 시작하려는 야망과 진취적인 기상으로 가득찬 유학생들은 조국이 그들에게 부여한 이 기회를 놓칠 새라, 조국으로 돌아와 자기의 발전을 꾀하려 드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유학을 간 학생들간에 귀국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 많은 귀국 유학생들 가운데 정말로 결심하고 장기간 중국에 남아 있으려 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귀국을 망설이게 만드는가?

1992년에 미국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전화(田禾)는 국비 유학생들이 다시 돌아와 조국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하며, 적어도 몇 년 간은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내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허술하게 다룬 일도 많 습니다. 저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귀국한 후 1년 동안이나 직장을 구했는데,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이런 것이 모두 중국에 존재하는 문제들입니다.”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 연구소 부연구원인 정열(鄭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에 돌아왔다고 해서 결코 다른 중국인보다 잘났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호화로운 삶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북경정부가 알아야만 한다고 했다. 만약 돈 때문에 귀국하는 것이라면, 어쨌든 중국이 미국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은 결코 아니다. 더군다나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미국의 흠킨스 대학, 콜롬비아 대학에서 방문 학자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황방의(黃方毅)에 따르면, 애당초 ‘세계 은행’의 위임을 받아 출국했던 세 명의 유학생 가운데 귀국한 사람은 자기 한 명 뿐이라고 했다. 중국으로 되돌아와 일하기도 그리 순조롭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한다. 만일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도 그는 역시 같은 길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정책상의 문제뿐 아니라 중국 사회의 흐름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지금 중국에서는 경제발전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지식과 교육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학생들의 귀국을 주저하게 만드는 장애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중국 유학생들로 하여금 중국의 발전과 건설을 위해 공헌을 하게끔 하는 최

선의 방법은, 중국 내에 있는 우수 인재와 해외에 있는 우수 인재들을 연합시키는 작업이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과학기술협회 워싱턴 지부 회장인 오소해(吳少海)는,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하기 전에, 우선 그들과 국내 기업체들을 연결시켜 교류의 강화를 꾀하는 것이 유학생 정책의 일부임을 북경 당국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고 말한다.

부신원도 역시, “고속 통신망의 보급과 발달이 피차간의 교류를 간편화시켰기 때문에, 굳이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국내의 각종 연구 프로그램에 통신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대만에서는 종종 미국에 있는 대만 학자들에게 프로젝트 초안 심사를 맡겨 의견을 구하곤 한다. 북경에서도 이러한 방법은 배울 만하다.

유학생들이 중국에 귀국하든 안하든 간에, 어쨌든 그들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그 영향이 지금 사회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몇몇 유학생들 모두, 통신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사람들의 사상도 과거보다 진보하고 활발해져서 새로운 생각을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국내외에 있는 중국인들이 힘을 모아 함께 중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이 글은 [亞洲週刊, 1995. 1. 8]에 실렸던 [神州吸引留學生回歸]를 번역한 것으로 아주주간의 승인을 얻은 것이다.

(本文轉載自亞洲週刊 1995年1月8日28-29頁, 已得批准)

번역/ 차이나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첫번째 전도여행의 열매

허드슨 테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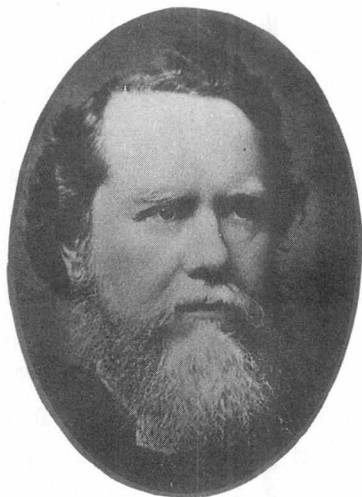
1855년 봄, 영국교회 전도회 (Church Missionary Society)의 버튼목사(Rev. J. S. Burton)와 연합으로 나선 전도 여행은 무척 고달프고 위험한 것이었다.

양자강의 광활한 하구, 상하이(上海) 북쪽으로 약 30리 쯤 되는 곳에 섬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데, 그 중 충밍(崇明)과 하이먼(海門) 두 섬이 가장 크고 중요한 섬이다. 강 줄기를 타고 위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바다와 멀어지면서 하구는 좁아졌다.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 통저우(通州)가 바로 이곳에 있다. 인근에 있는 랑산(狼山)에는 독실한 신도들의 향불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도중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랑산에 온 뒤 바로 그 섬에서 설교를 했고, 불공을 드리러 온 천여명의 신도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랑산에서 다시 통저우로 가면서 겪어야 했던 고난의 경험들을 얘기하고자 한다.

1855년 4월 26일 목요일, 아



침식사를 마치고,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 날 날씨는 매우 습하고 무더웠다. 사탄이 자신의 왕국이 공격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면 사탄도 끝까지 우리를 대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성(城)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우린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서 나누어줄 성경이 우리 손에 별로 들려 있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

중국어 선생은 우리에게 성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다. 하지만 우리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는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그들에게 배에서 기다리라고 부탁하면서, 만약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어떤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가능한 한 빨리 상하이로 먼저 전하라고 했다. 그밖에도 배한 척을 따로 마련해 두었는데, 그것은 당일에 돌아오지 못하고 배를 찾지 못해 해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책을 두 짐으로 나누어 일꾼 한 명과 함께 출발했다. 그 일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늘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다. 당시의 도로상황으로 볼 때

7리 가량 되는 길을 걸어서 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인력거를 빌리기로 했다. 도보 대신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부근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바로 인력거였다. 여행용 가마보다 가격이 싸고 인부도 한 명만 있으면 되지만, 이런 울퉁불퉁한 진흙길에서 인력거를 탄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었다.

얼마 안가 인력거 인부는, 그 지역에서 군인들이 불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음을 알고는 자기를 돌아가게 해 달라고 애원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까지 강제로 모험을 하도록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원대로 보내줬다. 책이 든 가방을 메고 가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영적인 힘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죽한 체력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고 응답하셨다.

바로 그 때 우연히 어떤 나이 많은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간절히 권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통저우 군대에게 크게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분의 호의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은 결정되었다.

우리의 앞에 쇠사슬과 감옥, 심지어 죽음이 가로막을 수도 있다. 혹은 무사히 성경과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돌아올 수도 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뿐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절대 통저우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생명의 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천만 명의 통저우 백성들을 이대로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다.

인력거꾼이 가버리자 마부도 더 이상 못가겠다고 했다.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찾아야 했는데, 다행히 쉽게 일꾼을 구할 수 있었다. 날씨는 침침하고 비가 그치지 않았으며, 포장되지 않은 길은 온통 진흙 투성이인데다가 앞길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한 결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가는 도중 우리는 각자 성경과 찬송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했다.

“광풍치는 사나운 바다와 광야에서 위험을 만날지라도,

그대가 낙심하지 않음은 그대 곁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 때문이다.

그대가 고통과 슬픔에 못이겨 용기를 잃을 때,

주님의 약속 크신 도움되어 그대의 영혼 쉼을 얻으리.”

가는 도중 한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곳에 천 명 가량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나는 이곳의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중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을 선포한

적은 과거에도 없었다. 나의 심령에 축복과 기쁨, 평안이 가득 찼다. 신기하게도 내 입술이 중국어로 하고 싶은 말을 다 구사할 수 있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처음 온 사람에게 자신의 본토 방언으로 내가 전했던 진리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때 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중국인이 직접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들의 죄가를 대신 치루셨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 기쁜 순간,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수고의 대가를 보상해 주기도 남음직한 보람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켰다면, 우리의 이번 전도여행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우리는 갖고 있던 일부 신약 성경과 쪽복음을 나누어 주었다. 이 사람들 모두 글자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결코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우리의 이러한 결정은 정말로 옳은 것이었다. 통저우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지고 있던 책자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목적지가 점점 가까왔고, 우

리는 성(城)의 서쪽 교외에 도착했다. 나의 마음 속에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을 때 드린 기도가 생각났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기도를 드린 후 우리의 마음은 더욱 하나가 되었다.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행동이 일치되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인력거꾼들이 우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디서 우리를 기다려야 할지 미리 말해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그 분께 의탁한 후에 비로소 책자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한동안 성 밖의 큰 길을 건넌 우리들은 이 길이 서문과 통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는 동안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검은 귀신(黑鬼子)”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왜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인지 몹시 의아하게 생각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때문이었다.

몇몇 군인을 지나쳐가게 되었는데, 나는 버튼선생에게 이들이 바로 전에 들었던 그 군대라고 귀뜸해 주었다. 보기엔 무척 우호적인 것 같았다. 성문에서 조금 멀어졌을 때, 아주 힘이 센 남자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매우

난폭해 보였다. 그가 버튼 선생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군인이 다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버튼 선생은 온 힘을 다해 버둥거리며 만취한 군인을 뿌리쳤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려고 앞으로 다가갔을 때, 우린 눈 깜짝할 새에 십여 명의 사람들에게 포위되었고 그들은 우리 모두를 성 안으로 끌고 갔다.

어깨에 맨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내팽개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온 몸이 땀투성이가 되어버렸고 하마터면 앞에 가는 일행을 놓칠 뻔했다. 우리는 현관(縣官)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들은 몹시 거친 태도로 어떻게 우리들을 처치해



장승원 그림

야 할지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도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고 위협했다.

처음에 버튼 선생을 붙잡았던 덩치 큰 남자가 이번에는 돌아서서 나를 붙잡았고 나는 온갖 모욕을 당해야 했다. 내 키와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몇 번씩 나를 땅에 내던지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며 옷깃을 움켜쥐는 바람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고 온 어깨와 두 팔에 멍이 들었다. 만일 그가 계속 나를 이런 식으로 괴롭혔다면 난 분명히 기절했을 것이다.

온 몸에 힘이 쭉 빠졌다. 바로 그 때, 최근 어머니가 내게 보내신 편지 속에 써 있던 시(詩) 한 수가 떠올랐다. 그러자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즐겨 얘기하는 복락천국,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곳인지.

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리라. 천국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육신을 벗고 주님과 함께 있네. 다시는 죄악이 없는 곳.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해도 우리의 본향은 오직 천국뿐.”

떠나면서 버튼 선생은 지고 있던 책들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자 했다.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질 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그 군인은 몹시 화를 내면서 다시

우리를 수갑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수갑을 가져 오지 않았다. 우리는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이대로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가야만 했다. 가는 도중, 그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처치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한 두 차례 말다툼을 벌였다. 마음씨 좋은 군인은 우리를 관아에 데려가자고 했고, 나머지는 상부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없이 당장 죽여 버리자고 주장했다.

나와 버튼 선생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뻐했다는 사실은 서로에게 일깨워 주었다. 여러 차례 시도하던 끝에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중국어로 된 내 명함(큰 붉은 종이에 이름이 쓰여진 것도 ‘명함’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을 꺼냈다. 그 명함을 보고 나서야 그들은 우리에게 약간 친절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우리 모두 영국식 복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었다.

줄곧 그들에게 끌려다니며 끝도 없는 먼 길을 지나다가, 결국 어느 관저에서 멈춰 선 우리는 이 뜻밖의 기쁨으로 너무나 감사했다. 나는 온 몸에 힘이 빠졌고 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을 뿐 아니라 헛바닥이 입천장에 붙을 지경이었다. 벽에

기대서서 보니 버튼선생도 나와 비슷한 몰골이었다. 의자 하나를 갖다 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들은 잠깐 기다리라고만 했다.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차 한 잔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역시 똑같은 대답이었다.

대문 밖에 이미 많은 군중이 몰려 와 있었기 때문에, 버튼 선생은 그 상황에서도 온 힘을 다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미 우리의 명함과 책자들이 모두 관원의 손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그는 자기 지위가 그리 높지 않아서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좀 더 기다린 후에 우리를 자기 상관에게 넘기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그들의 목적이 우리를 다시 그 비좁은 길거리로 내몰아 가게 하려는 것임을 알아 차렸다. 우린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고 거절했고, 두 대의 가마를 불러다 달라고 고집했다.

몇 차례 입씨름 끝에 드디어 가마가 와서 우리를 태우고 갔다. 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이 두 대의 가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사탄의 악한 방해공작이 있었으나 필경 복음이 퍼져 나간 사실로 인해 감사했다. 기쁨을 금치 못한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흘러 나왔다. 길 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키며 나쁜 사람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심지어 우리를 동



정하는 자도 있었다.

현청(縣廳)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가 지난 몇 개의 대문은 성(城) 담벼락 위에 있는 문과 똑같았다. 그러나 분명히 우린 아직 성 안에 있었다. 이중으로 된 문을 지나갈 때 감옥에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民之父母”(백성들의 아버지)라는 큰 글자가 씌어진 편액(匾額)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야 비로소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액 위에 새겨진 글자는 아마도 이 관원의 직함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명함은 다시 관원에게 들어갔다. 잠시 후 그들은 우리들을 진(陳) 어른신 앞으로 데려갔다. 진 어른신은 원래 이전에 상해에서 도대(道

臺:청대의 한 성 각 부처의 장관이나 또는 각 부, 현의 행정을 감찰하는 관리. -역자 주)를 맡았던 터라 외국인에게 무례히 대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터득한 사람이었다. 일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 절을 올렸는데, 그 부하들은 우리보고도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 관리는 보아하니 통저우에서 가장 높은 관원(官員)인 듯 했다. 머리에 푸른색 화관(花翎)을 쓰고 나와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하였다. 그는 우리를 안 뜰(內院)로 안내하였는데, 이 곳은 비교적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인 듯 했다. 그런데 나머지 지사(知事), 하인, 시종들도 모두 따

라 들어왔다.

내가 그에게 이번 여행의 목적을 설명하고 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축쇄판(창세기~룻기), 그리고 다른 전도지들을 주었더니 감사하다며 받았다. 나는 그 책들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었다. 그가 주의 깊게 우리 얘기를 듣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듣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인들을 시켜 먹을 것을 가져오게 했고, 우리는 기쁘게 호의를 받아들였다. 그도 우리와 함께 차를 마셨다.

한참 앉아 있는 후, 우리는 나가서 시내 구경도 하고 가져온 책자도 나눠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는 흔쾌히 허락했다. 우리는 그에게 이번 여행 가운데서 당한 많은

모욕 등에 대해 토로하였으나 그 일에 대해서 따지지는 않았다. 군인들의 질이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문을 써 달라고 그에게 요청했다. 그는 기꺼이 승낙하였다. 매우 격식 있는 예의를 갖추어 우리를 보내 주었을 뿐 아니라 부하들까지 보내어 우리를 보호해주었다.

우리는 재빨리 가지고 온 전 도지를 다 나눠주고서 유유히 그 성을 떠났다. 그 부하들의 변발은 무척 신기해 보였다. 사람들이 많은 혼잡한 길을 지나갈 때면, 길 앞에 딱 가로막고 서서는 말총같은 머리채를 좌우로 흔들며 대며 길 가는 사람의 어깨를 내리쳤다.

힘들어서 겨우 인력거꾼을 찾아내어 가마 값을 지불한 뒤, 허름한 인력거를 타고 우린 강변으로 향했다. 진 어르신은 부하가 길의 절반을 함께 동행한 후 돌아갔다. 우리들이 안전하게 배에 올랐을 때는 이미 황혼 녘이었다. 배 안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에 감사드렸다.

편집자주 :

이 글은 홍콩 선도출판사에서 출판한 『獻身中華』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으로 선도출판사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번역/차이나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선교자로 안내

■ 선교도서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협력기구) /3,000원
2. 중국선교-교회의 대장정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3,500원
3. 중국선교핸드북(두란노서원) /4,800원
4.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1,500원
5.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1,500원
6. 神愛世人(中文) /2,000원
7. 만남 /2,000원
8. 전도중국어(漢語傳福音) /1,500원

■ 교재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2,000원
(Tape:1,000원)
2. 經文背誦 /1,500원
(Tape:1,000원)
3. 我的第一本聖經 /2,500원
(Tape:1,000원)
4. 사복음서 낭독 tape(12개) /12,000원
5. 信仰讀本 /7,000원
(Tape:1,600원)
6. 中國語신약성경 /10,000원
(tape:25개 한어병음 20,000)
7. 중한 주제별성경암송카드 / 700원
(60구절;네비게이트 출판사)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담당:김바울 간사
(전화: 594-8038, 535-4255)

독일에서 만난 하나님

淡泊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상황에서 복음을 가장 쉽게 받아 들인다고 한다.

기존의 사상 및 가치 체계의 붕괴에 직면할 때, 그리고 한 개인의 생명과 삶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이다.

만약 위와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힌 사람이 또 공교롭게도 자기가 살던 사회 환경을 떠나 있는 상태라면, 그 충격의 느낌은 더욱 크고 깊으며 그로 인한 변화는 특히 철저할 것이다.

1960, 1970년대에 홍콩과 대만에서 미국으로 유학 간 중국 유학생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적이 있다. 각 대학마다 결성되었던 성경 공부반의 뜨거운 열기는 지금까지도 흥미진진한 화젯거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한다.

'80년대 이르러 미국에서의 중국 유학생 복음사역은 또 다른 나라로 전이되어갔다. 중국의 교육정책 개혁으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이 출국하여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다음의 글은 독일에 간 한 중국 학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간증이다.

나는 아무런 종교신앙도 없는 지식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로 자연과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무신론” 교육을 받아온 나는, 모든 종교는 비과학적인 것이며,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 미신인 동시에 무지의 표현이라고 믿었다. 또한 중국 근대사의 비극을 통해서 더욱 기독교는, 제국주의가 사람의 사상을 마취시키는 데 사용하는 “정신적 아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 역시 수많은 중국의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만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고 믿었고, 그것을 위해 평생토록 분투하기로 결심했다.

정치투쟁의 잔인함과 추악함이 일찍이 내가 품고 있던 천진난만한 이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또한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전에 믿어 왔던 것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었다. 동란 중에 겪어야했던 가정과 나 자신의 불행, 또한 주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비극, 이기심, 위선 그리고 세상의 추악함과 불공평함…….

나는 인생을 비판하였고 실의에 빠졌다. 이전에 순수하고 결코 이기적이지 않았던 내 자신이 유치하고 바보스럽게 생각되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한 것같은 분노를 느꼈다. 나는 스스로를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도록 강요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나 자신을 챙기는 요령을 터득한 결과 눈에 보이는 손해는 피할 수 있었지만 사실 난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 마음이 굳어지고 성격도 난폭해졌다. 다른 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동시에 생활의 의욕도 사라져갔다. 난 나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고, 마음 속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 당시 중국의 문화는 메마름대로 메마름 있었다. 정치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천편일률적인 주장에는 진절머리가 났다. 양심을 팔아먹는 징그러운 아부 행위도 역겨웠다. 나는 그 때부터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요란스러운 현대 음악에 이내 싫증을 느꼈다. 그러다가 우연히 “좋은 친구(良友)”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다. 그 이후로 고요한 밤이면 침대에 누워 헤드폰을 끼고 조용히 그 프로그램을 듣는 것이 내 생활의 낙이 되었다. 부드럽고 친밀한 목소리, 깊은 감동이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 이 모든 것이 사막에서 흐르는 한 줄기 샘물처럼 흘러와 메마른 내 마음밭을 적시어 주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미신이 아닌 참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유물론”이 “유심론”을 꺾은 이 시대에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고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몸은 마치 천당에 온 것 같았으나

중국에 드디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조금씩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다. 특히 나는 행운아였다. 90만 명이 응시한 <우수인재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뽑혀, 독일로 가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폐쇄적이고 낙후되고 비좁고 지저분한 중국이라는 “문명대국”으로부터, 지저귀는 새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 같은 “문명 도시”에 온 것이다. 중국에 있을 때 꿈으로만 그리던 “현대화” 생활에 첫발을 디딘 채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나에게, 이

곳의 모든 것은 그저 없이 아름답기만 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통해, 독일의 넓고 쾌적한 주택 환경, 부족함 없는 풍성한 음식, 그리고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생활 등을 얘기해 주었을 때, 모두들 너무나도 부러워했다. 그렇다. 중국의 북방지역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일하면서 겪어야 했던 그 힘겨웠던 나날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다. 어쩌다가 한 번 닭고기나 생선, 육류, 계란을 먹을 수 있었고, 과일은 가끔 병이 날 때만 먹을 수 있었다. 그 때마다 언젠가는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을 좋은 날이 오기를 꿈꾸었었다. 그 때와 비교해보면 정말로 지금 ‘천당’에 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천당’이 내게 주는 안락함과 유쾌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몇 개월이 지나자 나는 이 모든 것에 금방 익숙해져 버렸다. 그래서 점점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 느꼈던 신선함과 흥분을 다시는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안락함과 고요함이 생활을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안락하고 부유한 생활이 결코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소위 “행운아”들이 과연 행복한지 관찰하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 사람들은 부유하고 건강하며 살아가는 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이들이다.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으며 그 중 어떤 이는 백만장자이기까지 하다. 중국에서 내가 살았던 기준과 비교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하고 만족하여 더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이들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 나라에도 역시 고통과 불행, 죄악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말 행복하고 만족해 하는 이는 드물었다. 어떤 백만장자는 말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다.” 또 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성공하기 전에 나는 유명해지기 위해 온 힘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단 정상에 올라가고 나니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나의 걸어난 삶을 돌이켜 보았다. 어릴 적부터 자존심이 강하고 모든 것에 일등이길 원하였다. 고생하고 노력한 대가는 확실히 많은 명예를 가져다 주었고, 이런 것들은 내게 잠깐의 쾌락을 안겨 주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곧바로,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그에 따른 고뇌로 말미암아 더 높은 야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를 내몰았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흘린 땀의 수고 끝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수상장을 받았고, 또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여 1년 간 고생한 결과 외국에 나와 연수할 기회도 얻게 됐는데…….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는 목적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 그것은 참 목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영원히 쉬지 않고 달려가면 쉼취할 수 있는 것인가? 매일 매일 바쁘게 뛰어다니고 고생하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추구하는 것일까? 명예? 권세? 이것들로 인해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평범하게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의(主義)”나 “이상(理想)”이니 하는 것들을 추구했지만 그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자신이 믿는 “주의”에 따라 살며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그 중에 몇 사람이나 거짓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만년의 절개”(晩節)를 지키며 사는 이는 얼마나 되는가?

동서고금에서 보이는 각종 “혁명”이 이룩한 결과와 발전을 살펴볼 때, 진리를 대표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무엇이 우리네 인생에서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인가? 나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승원 그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다.

우연한 기회에 홍콩에서 온 크리스천 여학생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순수함과 소박함은 다른 ‘홍콩 아가씨’들 하고는 달랐다. 말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된 평안과 기쁨이 참으로 부러웠다. 그녀가 간직한 신앙의 힘은 그녀를 경이롭고 존경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게 했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주는 깊은 우애는 더욱 나를 감동시켰다. 이로 인해 나이 삼십이 훨씬 넘는 대학 강사로서 이미 인생의 반평생을 살았으며, 책도 많이 읽었고 뚜렷한 주관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내가 스무 살이 될까 말까한 석사과정 중에 있는 “꼬마 아가씨”와 좋은 친구 사이가 된 것이다.

이전에 사귀었던 친구들과 학생들을 떠올려 볼 때, 내가 남에게 영향을 미친 적은 많지만 내가 남에게 영향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신비한 힘이 나를 이끌어 그녀가 말하는 진리를 듣도록 만들었다. 그녀에게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굳건한 믿음 앞에서 나는 나약하고 무력하게 보였던 것이다. 나보다 십여 년이나 나이 어린 이 여학생은, 비록 지식으로나 세상 경험에 있어서는 나를 따라갈 수 없었으나 그녀의 영혼은 훨씬 굳건하고 성숙했다. 그때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토록 강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신앙의 힘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어떠한 사물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면 먼저 그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난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그녀가 건네 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또한 ‘상황을 이해하고 지식을 넓히고 독일을 연습’하기 위해 자주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들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내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들은 나에게 ‘신친지’를 열어주었다. 나로 하여금 ‘금전만능’의 사회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순수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회의 추악함과 위선에 비교해볼 때 이들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들이 발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 주위 사람들은 모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이 간절히 무엇을 원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한다. 어떤 이는 그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곧 실망하곤 한다. 참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는 끝없이 추구만 하다가 결국 의혹을 품은 채 무덤까지 가고 만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생명의 만족을 찾지 못하며, 대다수 사람들이 그저 목적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인류의 사상과 감정의 표출-바로 내가 사랑하는 문학 예술-은 종종 슬픔과 실망, 탄식으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한 것을 과연 내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연히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 마음에 묘한 떨림이 왔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인가?’ 내 마음은 더욱 갈급해졌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나는 많은 기독교 신앙서적을 읽게 되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내 자신이 과거에 지녔던 지식과 사상이 얼마나 편협된 것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인간에겐 단지 오감(五感)이 있을 뿐인데, 이 제한된 두뇌와 능력으로 온 우주의 오묘한 신비를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에 대해 일절 부인하는 태도란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

합당한 환경과 인간의 생리적 조건을 조화시킨 조물주로 인해 비로소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이 지구의 한 면을 파괴한다면 결국 생태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 조물주가 창조한 자연의 섭리를 파괴시키면 결국 인간에게 재난이 올 것이다. 과학의 발전이 조물주의 지혜를 더욱 입증해 주지 않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부인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마치 무지한 시골 노파에게 공간에 존재하는 전자파에 대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하게 만들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경험도 풍부한 천문학자인 친구가 내게 말하였다.

“맞아요. 신은 존재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거의 다 신의 존재를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 신이란 존재는 지혜와 능력에 있어 인간을 초월하는 일종의 생물체에 불과해요. 그에겐 그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어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지요. 어차피 흘러갈 짧은 인생이라면 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기어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그 고생을 합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류의 충고가 거듭되었고, 그들은 각종 연회와 모임, 댄스 파티에 나를 초청하여 교회와의 접촉을 끊으려고 했다. 그런데 크리스천 친구는 내가 그런 모임에 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갈 것을 권하였다.

“진리는 그런 것에 의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이상한 것은 내가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서 아무런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모임과 거기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시한 오락에도 마찬가지로 흥미를 잃었다.

동시에 마치 어떤 거대한 힘이 나를 끌어당겨서인지, 나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의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갔다. 그렇지 않으면 꼭 무엇인가 소중한 보배를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 기간에 나는 마음 속의 평안함과 심령의 만족을 느꼈다. 과거에 자주 갖던 공허하고 쓸쓸한 느낌은 어느덧 사라졌고 분노와 슬픔도 적어졌다. 이전에 미워했던 사람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음 속에서 신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나의 삶과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더이상 ‘냉담한 사람’이 아니었다. 남의 고통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온갖 노력을 다해 남을 돕고자 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돈과 시간을 남에게 할애하게 되면서 더이상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거듭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다.

이 때 생명의 큰 변화를 체험했지만, 나는 아직 구원받았다는 느낌은 갖지 못했다. 하루는 한 친구가 내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몹시 반감을 가졌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줄곧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고, 순수하고 착하며, 더우기 아무런 ‘죄’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 후 마음 속에 어떤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 때문에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다. 심지어 평소에 깊이 빠져들곤 하던 소설조차 읽을 수가 없었다. 오직 성경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읽거나 기도를 해야만 마음이 편안했다. 이런 상태가 며칠 간 지속되었다.

어느 날 밤 방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었고 주위는 아주 고요했다. 예수님이 인자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까지의 기록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았다. 나 자신의 허다한 이기심과 추악함, 교만하고 방자했던 죄들이 눈 앞에 일일이 떠올랐다. 난 너무나 수치스러워 몸둘 바를 몰랐고, 나도 모르게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를 하였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장승원 그림

이튿날은 주일이었다. 나는 교회에서 다시 한 번 주님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구했다. 나의 마음은 깨끗해진 것 같았다. 그 날 밤 친구가 나의 체험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넌 이제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했다.

잊지 못할 체험과 주님의 오묘한 계획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마침내 그를 구주로 영접하게 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드디어 나는 세례를 받게 되었다.

갓 구원 받은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생명의 젖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한다. 주님께서 나를 각별히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다. 친구들이 많은 신앙서적을 선물로 주어서 나는 배고픈 아이가 젖을 빨듯이 그 책들을 열심히 읽었다. 동시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항상 함께 하셔서 시시때때로 나를 보호해 주셨다.

많은 시간과 정력을 교회 나가고 성경 읽는 데에 투자했기 때문에, 실험과정과 연구논문을 쓰는 것에 어려움이 생겼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했다. 중국 정부의 지시를 따라 유학생 서클활동과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영접하였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그는 반드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놀랍게도 곧 내 마음 속에 해결책이 떠올랐다. 실험을 하는 도중 잘 되지 않아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마음 속으로 기도를 했더니 신기하게도 순조롭지 않던 실험이 믿지 못할 정도로 순조롭게 풀려 기한이 되기 전에 모든 실험을 완성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다른 아름다운 도시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내가 온다는 것을 안 친구들이 토요일 오전에 같이 나가서 사진도 찍고 관광도 하자고 했는데, 그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계속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음침한 날씨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듣자하니, 장마철이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회의 일정은 5일 뿐이었고, 주일엔 아침 일찍 되돌아와야 했다. 나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회의가 없는 시간에는 줄곧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렸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토요일 오전에 맑은 날씨를 달라는 작은 부탁을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나 토요일 아침, 밖에는 여전히 큰 비가 오고 있었다. 나는 약간 실망했으나 이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주실 거야. 그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 번 기도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부터 갑자기 날씨가 개였고 평소에 보기도 못한 좋은 날씨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었고, 기념사진을 찍어 한 앨범에 몽땅 실었다. 야유회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전은 그 주내에 유일하게 좋은 날씨였다.

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님께 감사드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능력과 끝없는 사랑을 얻었다.

귀국의 슬픔

2년 동안의 유학 생활이 어느새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예정대로 학위를 얻었으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친구들과 작별하면서, 마음 속에 있던 섭섭한 심정이 저절로 우러나왔다. 자유의 땅 독일을 다시 한 번 바라보았다. 일하던 학교, 좋은 친구들, 세례받고 등록해서 다니던 교회, 그리고 자유로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곳……. 이 모든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 시간은 매우 괴로운 시간이다. 다른 유학생들도 같은 느낌일 것이다. 마치 깨어나기 싫은 꿈 속에서 깨어나 다시 억압되고 엷매인 현실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기에……. 푸랑크푸르트 공항으로부터 북경으로 오는 기내에서 줄곧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했다.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유학생들은, 중국에 돌아가면서 앞으로 자신의 학식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할 때 모두 나와 마찬가지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게 마련이다. 마치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 같은 비감을 느낀다. 학우들은 얼굴을 창문에 대고 멀어져가는 푸랑크푸르트, 멀어져만 가는 서양의 이 나라를 바라다 본다.

조국, 고향 그리고 미지의 장래, 이 모든 것이 유학생들의 마음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 중국인이 언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와 같은 슬픔을 느끼게 되었는가?

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탄식 소리가 내 마음 속에서 떠나가도록……. 하지만 또 다른 책임감이 내 마음 한편에서 부르짖고 있다. 그것은 해외의 기독교 잡지에 나의 간증을 기고하여 해외의 지체들로 하여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유학생 복음사역의 중대한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이 간증을 읽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중국의 복음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소망한다. 우리처럼 숨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매년 해외로 파견하는 수많은 유학생 무리를 위해 더욱 기도해주길 바란다. 성령께서 감동하사 유학생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불러주시길 간구한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국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1913년 중화민국 선교사 사병순 목사 (I)



글 / 김교철 선교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중국선교연구협회 대표연구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개동교회
영아중국어 예배 담당구역자
인천남동외국인교회, 예일교회 외국인
예배 담당자
중국선교연구협회 연구원

서론

1. 연구의 목적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를 찾기 힘들만큼 경이적인 성장을 한 교회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선교사 파송국으로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1994년 6월 31일 현재 3,272명, 선교단체 113개로 집계가 되어 발표된 바 있다.¹⁾

“선교 한국”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선교관심자와 헌신자들이 가시화되었고 국제적인 선교 대회까지 유치, 한국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의 주도국이 된 듯한 분위기이다. 매우 감사해야 될 일이다. 반면에 한국 교회는 우리의 소중한 선교 역사와 선교 인물들에 관한 연구와, 그를 통해 선교를 더 잘해 보려는 면에 있어서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된다.

1913년부터 타민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한 장로교조차 자신의 선교 역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 교회의 많은 선교 학자들은 한국 교회의 선교 운동이 60년대 및 7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심지어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가, 전재욱 선교사, 김순일 선교사 등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한국 동란 이후 시작된 것으로 말하기도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1) 한국 선교 정보 연구 센터 편, “한국 선교 핸드북”, (서울: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1994), pp.17~18. 한국 교회가 파송했다고 하는 3,272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1918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6회 총회에서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목사”만을 “선교사”라 하였다. 한국 교회 해외 선교 발전을 위해서 사역 대상에 따른 선교사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그에 적합한 준비와 선교 전략, 사역이 진행되어져야만 한다.

이태웅 박사는 그의 글에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것은 1907년(제주)과 1912년(산동)(1912년이 아니라 1913년-필자 주)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타문화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것은 전재욱 선교사, 김순일 선교사 등이 활동하기 시작한 한국 동란 이후라 하겠다”²⁾고 말하였는데 중국 산동성에서 사역한 선배 선교사들에게는 너무 미안한 말이다.

한경철 목사는 그의 저서 “선교 100주년을 맞는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책에서 “세계 선교의 당위성” 중 선교 무용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했다가 실패하고 난 후 선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최초 산동성에 파송되었던 3명의 선교사 중 1명은 1년 이내에 죽고 (사병순: 사병순은 1917년 선교지를 떠나 도미하였다-필자 주), 1명은 돌아오고(박태로), 1명은 미국으로 가 버렸다(김태훈: 사실은 김영훈이다-필자 주). 아마 이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후로 선교열이 거의 식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가 있을 것이다.”³⁾

초기 3인의 선교사의 철수로 선교열이 식은 것이 아니라 더욱 활발해졌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913년에 파송한 3명의 선교사에 관한 짧은 언급이 한국 교회사에 관계된 다수의 서적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는지, 왜 철수해야 했는지 연구된 바가 없다가 최근

에 이르러서 박태로, 김영훈 등에 대한 연구 성과물이 나오게 되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감당하려면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차분하게 연구하며 훈련을 받고 실력을 배양해 나가야만 한다. 선교 사업 확장과 선교사 파송을 경쟁이나 하는 듯 하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없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바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에게 맞고, 선교지에도 맞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해외 선교 경험은 무시하고 서구 선교사들의 경험과 이론, 전략을 수입, 배우려고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파송했던, 그리고 파송한 선교사들에 관하여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한국 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 교회 타민족(해외) 선교 역사를 바로 정리하고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대한 일이다. 이 분야는 국내에 있어서 미개척 분야이다. 선교관심자들은 많으나, 선교역사가라 할 만한 분들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태로, 김영훈에 이어서 초기 3인의 선교사 중의 한 사람인 사병순을 중심으로 하여 초기 산동선교 역사를 조명해 보려고 한다.

한국 교회가 최초로 실시한 타민족을 대상으로 한 해외 선교 사역에 헌신하였던, 그러나 불명예스럽게 선교지를 이탈한 사람으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야만 했던 사병순 목사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자 한다.

2) 이태웅, “한국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1994), p. 20.

3) 한경철, “선교 100주년을 맞는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명문 출판사, 1981), p. 171.

2. 연구의 자료와 범위, 방법

사병순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단지 사병순에 대한 짧은 소개만 있을 뿐이며⁴⁾, 기독교대백과사전에 사병순에 대한 소개가 있다.⁵⁾

중국 선교사였던 사병순 목사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부딪친 어려움은 역시 자료의 빈곤이었다. 사병순 목사가 남긴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이것 역시 확실치는 않으나 방지일 목사에 의하면 사병순의 글 같다고 하였다), 그가 산둥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탄원서 비슷한 내용으로 써 놓은 편지 1통인데, 그것마저 방지일 목사가 휴대하고(짐 일곱짝 속에) 귀국하려 했으나 짐이 도난당하는 바람에 분실되었다고 한다.⁶⁾

사병순 목사가 남긴 글이나 관계 문헌 발굴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하겠다. 현 시점에서 그에 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그를 선교사로 파송한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총회록과 독노회록, 그리고 기독교신보, 기독교 영문월간잡지 THE KOREA MISSION FIELD, 길선주 목사가 남긴 자료집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그가 성장한 뒤 교계에서 활동과 사역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의 출생부터 입신 등에 이르는 내용들에 관하여서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바로 여기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사병순 목사가 3년 반에 걸친 중국 산둥에서의 선교사생활을 마감하고 중국을 떠난 뒤에 그에 관해 알려주는 글 역시 없다. 고로 본 연구는 그가 독노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때부터 1917년 중국 산둥을 떠나게 되는 기간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려 한다.

사병순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많은 인물 중에 타민족을 대상으로 활동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색다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 국내를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들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인물에 대한 연구는 한국 민족 교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이민성은 그의 논문에서 말한 바 있다.⁷⁾

사병순에 대한 연구는 한국 교회사 연구 대상의 새로운 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교회사 연구 방법론으로 선교사관, 민중사관, 민족교회사관 등이 있다.⁸⁾

한국 교회사를 지나치게 민족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다분한 민족교회사관에 입각한 교회사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회사를 한국 교회를 주체로 해서 한국 교회 쪽의 고백과 증언을 우선으로 하는 교회사 서술 방법에 긍정을 하면서도 연구자들의 지나친,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듯한 글들을 통해 거부감을 갖게 된다.

중국 선교사였던 사병순과 중국 산둥에서 이루어진 선교 역사를 언급하면서 역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중국 측의 고백과 관점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산둥선교 역사에 있어서 중국 교회 측의 뜻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5) 기독교대백과사전(서울:기독교문사), 제8권, p. 509.

6) 방지일, “복음역사반백년”, (광주:반도 문화사, 1986), p. 22.

7) 이민성, “김예진 연구”,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2.

8) 교회사 연구 방법론에 관하여서는 민경배, “한국기독교교회사(개정판)”,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pp.20~25.를 참고하라.

4) 김혜성 외 3인, “초기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 연구”, (서울:총신대학부설선교연구소), p. 43. (미출판된 공동연구물로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것은 아니나 우리 측의 자료에 매우 빈약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중국 측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된 “중화기독교교회연합”(1914~1936)에도 중국 교회 인사가 산동선교에 대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1913년 북경 광문 대학 4학년을 수료하고 1921년 남경 금릉신학교를 졸업한 장로교 목사 백영엽 외 1인이 쓴 “한국 교회 선교 산동기략”이 전부이다.

교회사 연구 방법에 대하여, 특히 민족교회사관에 대하여 충신대학 신학대학원 은사이신 박용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한국 교회사를 재구성하는 데 비신앙 공동체인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교회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교회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접목시키는 것은 참신하지만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면 한국의 기독교가 따로 있고, 미국의 기독교가 따로 있고, 일본의 기독교가 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 보편주의라는 관점에서 비평의 여지가 있다. 그의 관점은 훌륭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⁹⁾

박용규 교수는 민족교회사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교회사 연구의 방법을 “총체적인 재구성”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하여튼 역사가들이 알아야 할 것은 역사 실증주의, 또 사건의 외면(Historie)과 내면(Geschichte)을 구분하

더라도 총체적인 재구성이 없다면 훌륭한 역사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역사는 신앙을 전제하고 출발한다.…… 또한 기독교 역사 역시 히스토리에와 게쉬히테, 사건과 해석, 그리고 객관적인 역사와 해석된 역사 이 두가지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역사가 하나의 사건을 내면과 외면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상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기독교 역사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 혹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심장한 인간의 과거 활동을 해석하고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학문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¹⁰⁾

사병순 목사를 연구하면서 필자는 본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위에 언급한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제1편 생애의 전반부(출생에서 목사로 장립받기까지 1878~1913)

제1장 출생과 성장기(1878~1906)

1. 시대적 배경

사병순은 1878년에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그가 태어나기 12년 전인 1866년 병인교난이 발생한 해에, 한 개신교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이다. 토마스는 1863년 목사 안수를 받고 곧 중국선교를 희망하여 런던 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의 파송을 받아 1863년 가을, 상해에 부임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와 사별케 되

9) 박용규, “한국교회사 강의안”, (충신대학신학대학원, 1995년), p. 12.

10) IBID., pp. 12~13.

11) 기독교대백과사전, p. 509.

고, 선교지역을 산동성 치푸(Chefoo)로 1865년 옮기게 된다.¹²⁾ 1866년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를 타고 평양을 방문한 그는 대동강 하류에 있는 양각도로 끌려가 목에 칼을 맞아 피를 흘리며 27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¹³⁾

북경 주재 미국공사 윌리엄스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토록 미국 함대 사령관 로완(Rowan)에게 지시하였고 로완 사령관은 기선 Wachusett호를 급파하였는데 통역자로 콜벳(곽현덕, Hunter Corbett)목사가 동승하였던 것이다.¹⁴⁾ 콜벳 목사는 1862년 미북장로회 전도국 파송으로 산동성에 도착, 선교활동을 시작한 사람이다.¹⁵⁾

토마스 목사는 한국 땅에서 최초로 선교의 피를 흘린 개신교 선교사인데 그가 피 흘린 평양, 평안남도에서 사병순이 출생, 한국 개신교회가 파송한 평남지역 출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되었던 것이다. 사병순은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선교의 꿈을 갖게 된 산동성으로 토마스 순교 47년 후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이다.

사병순이 출생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출생지를 말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평안남도 대동군의 어느 한 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

사병순이 출생한 시기에는 조선정부의 쇄국정책이 강하게 시행되고 있었던 터라, 선교사의 입국 및 선교활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사병순이 출생하기 전후인 1876년, 중국 만주지역에서 의주 출신 백홍준, 이응찬, 이성하, 김진기가 한국인 최초로

세례신자가 되었고 1879년에 서상륜은 로스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게 된다. 이들에 의해 1883년 봄부터 국내에 복음의 씨앗이 뿌러지기 시작하였다.¹⁶⁾

1882년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되고, 1885년 4월 5일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하여 선교사들이 입국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선교사들은 아무도 선교의 명목으로 입국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1898년 6월 소안론(Rev. W. L. Swallon) 선교사가, 곧 “An American Missionary Teacher”로 조선정부로부터 전교의 명분으로 호조(護照) (중국말로 여권을 후짜오라고 발음한다-필자 주)를 발급받게 된다.¹⁷⁾

사병순이 20세 되던 해에 처음으로 조선 정부에 의해 선교사의 자격으로 입국한 소안론 선교사, 후에 사병순이 동사목사로 그와 같이 사역을 하게 된다.

소안론 선교사가 선교사 자격으로 입국한 이 해에 게일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제야말로 복음을 한국 백성들에게 전할 특별한 시간이라고 본다. 이들 역사 속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전통과 생의 파괴에서 비롯된 공백을 메울 것이 아직은 무엇 하나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James S. Gale, 1898-

당시 조선 주재 서구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의 큰 기대와 포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시기에 사병순은 소년, 청

13) IBID., p. 246.

14) IBID., p. 249.

15) 홍승환, “중국산동성래양선교소식” 신학지남, 1920년 제3권 제2호, p. 241.

16) 김광수, OP. CIT., pp. 257~272.

1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개정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p. 132.

18) IBID., p. 119.

12) 김광수, “한국기독교 전래사”, (서울: 기독교문사, 1984), pp. 240~241

년의 시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가 어떠한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등에 관하여서는 알 길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가 평남지역 출신이고 조선예수교 장로회 독노회 시절에 장로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입신 시기를 1800년대 말이나 1900년 초로 잡아야 할 것이다.

평안도 지역의 중심지요 당시 조선교회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평양, 조선교회를 지키려면 먼저 평양을 지켜라는 말까지 있었던¹⁹⁾ 평양에 주의 복음이 이르러 전파된 해는 바로 1890년, 사병순이 12살되던 해이다.

1890년~1895년까지의 평양의 영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길선주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의 복음이 1890년에 평양에 이르러 전파된 지 4, 5년이 지나니 각처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 교인이 날로 증가하여 교회는 점점 흥왕하는 지경에 이르렀더라.”²⁰⁾

1893년 가을에 미국 선교사 마포삼열이 평양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병순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²¹⁾

2. 지역적 배경

한국 교회가 최초로 중화민국 산둥성에 보낸 선교사 3인은 모두 이북지역 출신들이었다. 평안남도과 평북 의주, 황해도 사람들이었다. 평남, 평북, 황해도 지역의 교세는(장로교의 경우)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았다. 1911년 예수교장로회 조선노회 총계를 보면 전국 목사 95명 가운데 세지역의 목사 총수는

37명이고 전국 장로 152명 가운데 세지역의 장로 총수는 98명이었다. 98명의 장로중에 남평안 소속 장로는 56명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²²⁾ 이는 평남지역의 교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을 중심으로한 평남 지역의 기독교 교세의 우세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가 왕성한 지역에서 자라나게 된 사병순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신앙정신을 따라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사병순이 1911년 남평안 대리회 소속 목사 14명, 장로 56명 가운데 대리회 서기로 활동하였던 것을 보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²³⁾ 체계적인 교육과 신앙활동 등으로 사병순은 청년기를 보냈을 것이다. 그가 27세되던 1905년 11월, 서울에서는 보호조약이 굴욕적으로 체결되었다.

청년기 가운데 서 있었던 사병순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많은 영향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제2장 목회헌신과 신학 수업기 (1907~1913)

1. 1907년의 대 부흥

사병순이 출생한 평안남도 지역의 중심이자 조선 교회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평양에서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다.²⁴⁾ 1906년 블레어(W. N. Blair)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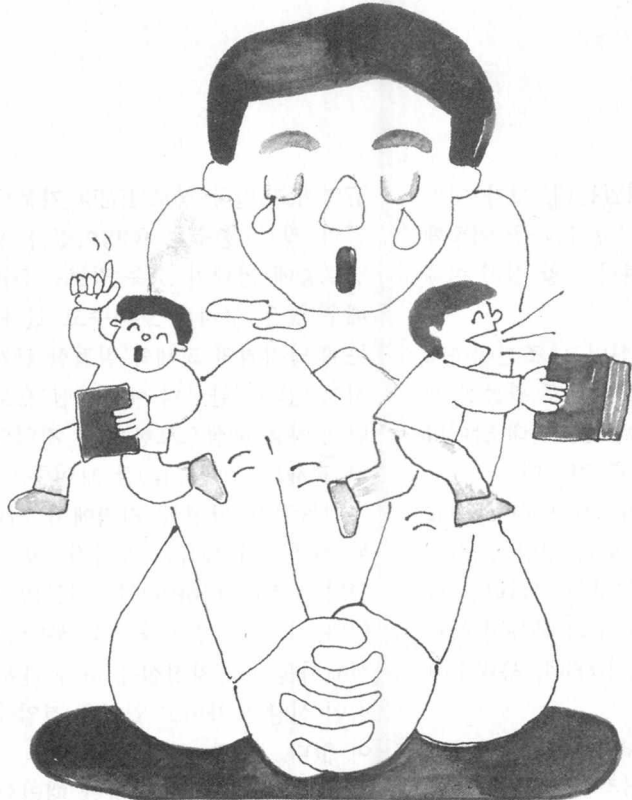
20) 길진경, “영계 길선주목사 유교선집”, 제1집(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8), p. 201.

21) IBID., p. 200.

22) 예수교장로회 조선로회, 제5회 회록, 부록, 총계표. 이하 “독노회록”이라 약칭함.

23) 길진경, OP. CIT., p. 257.

19) 김린서, “서수론”, 김린서저작전집, 1권, p. 49.



장승원 그림

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바 있다.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성령의 세례가 강대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는 조선 기독교인들이 저 앞에 가로놓여 있는 시련의 나날들을 극복해 나갈 도리가 없다는 것을”²⁵⁾ 길선주가 시무하는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1907년 1월,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교인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밤새워 기도하기 시작했고 통성기도의 음성은 신비로운 조화와 여운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회의 울음은 설움의 폭발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는 넘치는 영혼의 찬양의 물결과 같았다고 전한다.²⁶⁾

한 여성교사는 그 통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고 한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지

붕을 열어 젖힌 것이나 다름 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 도적, 거짓, 질투…… 부끄러움도 없이, 사람의 힘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할 수는 없을 터이다. 많은 한국 교인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지고 그리고 마루에 얼굴을 가리웠다.”²⁷⁾

이 부흥의 물결은 시내의 학교에도 밀려가, 김찬성²⁸⁾이 인도하는 숭덕학교 기도회에서 3백여명의 학생들이 죄를 뉘우치고 통회 자복하기도 하였다.

평양에서 크게 일어난 대 부흥운동의

25) 민경배, OP. CIT., p. 249.

26) IBID., p. 253.

27) IBID.

28) 김찬성은 1913년 5월 총회전도국의 파송을 받은 박태로 목사와 동행하여 산동 선교지 시찰차 중국 산둥성을 방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

대한예수교장로회 부개동교회 해외선교위원회 편, “선교회보 5호”, 1995년 3월, pp. 22~27.

24) 1907년 대부흥 운동의 원류, 비정치화의 신앙, 공동체적 교회형태의 신앙에 관하여서는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pp. 249~263을 참조하라.

영향이 사병순에게 파급되어 그 역시 신앙부흥의 놀라운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1909년에 제3회 독노회가 회집되었을 때 그가 남평안대리회 소속 장로 총대로 참석했던 사실로 보아서 1907년 평양대부흥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²⁹⁾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사병순은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당시 29세의 나이였으므로 결혼을 하였을 터인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 부인은 어떤 분이었는지, 가정형편은 어떠한 것인지, 어느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으로 섬겼는지……. 그러나 알 길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목회자의 길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 (1907~1911년)

“신령하고 크도다 이 아름다운 로회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사도와 문도를 택정하여 세우사 천국의 복음을 천하에 전하여 만민의 영혼을 구원케 하셨으니…… 주 강생 1907년 9월 17일 오정에 한국 로회를 설립한 후에 대만에 신학교 졸업학사 일곱 사람을 목사로 장립하고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회 로회라 하셨으니 이는 실로 대한민국 독립 로회로다. 할렐루야 찬송으로 성부 성자 성신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세 아멘”³⁰⁾

길선주 장로가³¹⁾ 시무하는 평양 장대현(장대재) 교회에서 제1회 독노회가 조직되었는데, 1906년 공의회 회장 배유진 목사가 강도하고 성찬식 후에 1907년 공의회 회장 마삼열 목사의 노회취지 설명에 이어 노회창설이 선포되었다.³²⁾

창설 노회에서 전도국 위원 길선주는,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할 일”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회중이 동의하여 가기로 결정이 되었다.³³⁾ 그리고 정사위원 박정찬은 “새로 장립한 목사 7인 중 1인을 선교사로 파송할 일, 리기풍 씨를 제주 선교사로 보내되 월급은 전도국에서 지출할 일”이라고 보고하였고 회중의 동의로 가(可)로 결정이 되었다.³⁴⁾

대한국예수교장로회 노회는 그 첫 사업을 외지에, 외국이나 다름바 없이 멀게 여겨졌던 지역 제주도에 이기풍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³⁵⁾

30) 독노회록, 창립노회, 1907년(대한통회이년무신), pp.1~3.

31) 길선주는 1907년 6월 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고 동년 9월에 개최된 독노회창설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광안련, 함태영, “장로교회사 전회집”, (경성:조선예수교서회, 1918), p. 192.

32) 독노회록, 1907년, p. 4.

33) IBID., pp. 16~17.

34) IBID., pp. 18~19.

35) 제주도로 파송된 이기풍 목사에게 처음에는 선교사로 호칭을 하였으나 1917년 6회총회시에 외국에 나가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목사만을 선교사로 인정하였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회가 서지 못한 지경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는 전도목사라고 명칭을 구분하였다. 선교사역 대상에 따른 명칭구분이 더욱 절실한 오늘날이 아닌가?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3,272명이라고 하지만 타민족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의 수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 없는 것 같다. 외국에만 나간다고 해서 모두 선교사라고 이름 내거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외국인이면 외국인, 교포면 교포, 사역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에 적합한 준비, 전략, 후원체제를 갖추어서 효과적으로 선교를 해야 하겠다. 교포목회하면서 교포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본국 교회의 선교비 후원도 받으면서 현지인 교역자와 교회 재정적으로 얼마 도와주면서 외국인 선교하는 선교사처럼 행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현지 외국인 선교하러 갔다가 교포사역자가 없어서 부득이 하여 같이 일보는 관계로 시작한 경우가 있지만 어려운 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기풍 목사는 선교사라는 호칭으로 제주도에 갔으나 제주도 사역은 전도목

29) 독노회록, 제3회, 1909년, p. 3.

길선주 목사가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하자고 보고하기 전인 1906년, 그는 제주도가 아닌 중국선교에 대한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우리는 불원에 우리 나라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흑암 속에 묻혀 있는 수억의 중국인들에게 미국 교인들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선교사를 보내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전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³⁶⁾

중국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주도로 변경이 된 것인지 제주도를 먼저 시작함으로 경험을 축적한 뒤에 중국선교를 시작하려고 했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시작부터 국내외를 향한 강력한 전도, 선교의 정신을 가진 교회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블레어 목사는 “새로운 한국 교회(장로교)의 첫 모임(독노회)은 사실상 선교사를 보내는 모임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³⁷⁾ 블레어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The idea of sending missionaries to China has appealed to the Korean Church for many years.”³⁸⁾

다른 한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한국이 아시아 세계의 발전에 대해서 차지할 중요한 위치를 현재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 중국에 가장 인접해 있는 한국의 위치는 가장 소중한 기회에 가장 놀라운 영향을 그 나라에

사로 변경이 되었다.

예수교장로회총회 제6회 회록(1917), p.16. “선교지에서의 동족 문제와 선교사 지원 동기에 대한 견해”라는 글을 참조하라. 김상옥, “한 영혼에 깊은 애정을”, (서울:도서출판 포도원, 1991), pp. 219~224.

미칠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이야말로 아시아의 복음화에 절대적인 공헌을 남길 것이다.³⁹⁾

1907년 독노회가 시작되고 두 해가 지난 1909년 제3회 독노회가 평양신학교에서 동년 9월 3일 개회가 되었다.

회장은 제일 선교사였고 총대의 수는 목사 47명(외국선교사 포함), 장로 70명, 도합 117명이었다. 임원 개선을 하여 회장에 언더우드가 선출되었다.

총대 117명 가운데 남평안대리회 소속 선교사는 마포삼열(마삼열), 리길함, 소안론, 배위량, 편하설, 윤산온이었고, 조선 목사는 방기창, 한석진, 송린서, 길선주였다.

1907년 6월 평양신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조선장로회 제1대 목사로 그 해 9월 장립받은 7명의 목사 중 4명이 남평안대리회에서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남평안 장로 총대로 참석한 사람이 24명인데 그 가운데 사병순이 참석을 하였던 것이다.⁴⁰⁾ 사병순이 1909년 장로로 장립된 후에 제3회 독노회에 참석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⁴¹⁾ 1909년의 독노회 출석은 사병순이

36) S. A. MOFFETT 자료, 1906년.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서울:기독교문사, 1973), p. 109.

37) W.N.BLAIR. GOLD IN KOREA, p. 7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p. 268.

38) WILLIAM N.BLAIR, “MISSION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THE KOREA MISSION FIELD, VOL. XI, (1915), p. 190.

39) THE REPORT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LONDON, VOL.104~105, 1908~1909, p.328. CF. K.M.F., VOL.IV, NO. 3, 1908, MARCH, pp. 39~4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pp. 268~269.

40) 독노회록, 제3회, 1909년, pp. 3~4.

41) 기독교대백과사전(기독교문사, 8권)에는 사병순이 1909년 평남 중산방에다리 교회 장로로 장립되었으며 대동군 신흥교회에서 조사로 시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장로이자 조사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 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이 시기에 사병순은 이미 선교사들과 한국인 목사들, 장로들과 여러 모로 교제하였을 것이고, 선교사 가운데 소안론, 조선 목사 가운데 길선주와 더욱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이다.

제3회 독노회에서 사병순은 정사위원 중 한 사람으로 안의와 선교사, 리자익, 방기창, 위대모, 리눌서, 마삼열, 사우업, 민로아 등 여러 위원과 독노회의 일들을 의논, 관여하였다.⁴²⁾

사병순이 두 번째 독노회에 총대로 참석한 것은 1911년 9월 17일 대구남문안 예배당에서 개최된 제5회 독노회였다.⁴³⁾ 현 대구제일교회에서 모인 제5회 독노회는 다음 해에 총회를 창립하도록 결의하였다. 독노회의 각 대리회들이 영역과 구성원은 그대로 둔 채 완전한 노회로 발전하고 독노회가 총회로 승급하도록 하였던 것이다.⁴⁴⁾

사병순은 당시 남평안대리회에서 서기로 활동을 하였다.⁴⁵⁾ 각 대리회에서 제출한 대리회 회록을 독노회에서 시 검사를 하였는데 남평안 대리회 회록은 서경조 목사와 리만집 장로⁴⁶⁾가 검사를 하였다. 사병순이 남평안대리회 서기였다는 사실에서 그의 활동 영역을 짐작 가능케 하여 준다. 그는 누구보다도 평남 지역의 교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당시 평남대리회 지역에 설립된 교회는 (예배처소와 예배당) 400처로 33,720명의 교인이 있었다. 당시 한국 전체에 교인수가 14만 4천2백61명으로 보고된 것을 보면(장로교만을 말함) 평남 지역의 교세를 잘 알 수 있게 해 준다.⁴⁷⁾

마지막 독노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곱 노회를 조직할 회장은…… 남평안에 주공삼… 노회를 조직할 것인데 마땅히 명년(1912년-필자 주) 3월 1일 안으로 모일 것이요…노회 조직하기 전에는 이전 규모대로 대리회가 시무할 것이요. 노회 지경은 이전 대리회 지경으로 할 것이요“⁴⁸⁾

대리회 서기인 장로 사병순은 독노회의 결정대로 평남노회 조직 준비에 수고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1912년 1월 28일⁴⁹⁾ 제1회 평남노회가 평양신학교에서 성립케 되는데 평남노회 초대회장에 주공삼, 서기에 장로 사병순, 회계 박치록이 선정되었다.⁵⁰⁾

43) 독노회록, 제5회, 1911년, pp. 1~2.

44) 락안련,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박용규, 김춘섭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4), p. 204. 이상근, “대구제일교회 90년사”, (대구:대구중외출판사, 1983), pp. 79~80. 독노회록, 제5회, 1911년, p. 32, 43~44.

45) 길진경, OP. CIT., p. 256.

46) 리만집 장로는 현 인천송의교회 이호문 목사의 조부이며 1911년 마지막 독노회가 열린 대구남문안교회 장로였다. 현 대구제일교회의 최초의 한국인 목사로 시무하던 홍승한 목사가 1917년 중화민국선교사로 가게 되자 한국인 목사로는 두 번째로 위임목사로 시무하였다.

47) 독노회록, 제5회, 1911년, 부록 총계표.

48) IBID., pp. 43~44.

49)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p. 115에는 평남노회 조직노회(제1회)일을 1월 18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키이다. 제1회 평남노회는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되었다.

50) 백낙준,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1968), p.115.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하권은 총회사기편찬위원회에서 1930년 편집수정을 완료하였으나 출판되지 못하다가 1968년 한국 교회사학회(회장 백낙준) 주관으로 출판되었다. 사병순의 동료인 김영훈 목사가 1930년 8월 20일 수정자를 대표하여 사기후를 한문으로 기록하였다. 사기편찬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줄저, 제16회(192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중국선교사 김영훈의 생애(1877~1939년), 중국선교연구협회 세미나 초고, p.12. 이하 “세미나초고 1”이라 칭함.

42) 독노회록, 제3회, 1909년, p. 11.

3. 조선예수교장로회 신학교 (평양신학교)

평양에 위치한 조선예수교장로회 신학교 학생으로 최초로 선발된 사람은 장대현교회 장로 방기창, 김종섭 2인이었다. 1901년 가을에 공의회로서 신학교육위원을 택하여 당시 조사로 시무하는 사람을 교수할 과목을 배정케 하여, 제정한 임시과목을 1년 간 임시채용하기로 가결하고, 1902년에 5학년 과정을 제정하여 역시 1년 간 임시채용하기로 가결하였다.⁵¹⁾

1902년에는 목사 지원자 5명이 입학하였고,⁵²⁾ 1903년에 평양공의회 위원들이 관내에 있는 목사 지원자 7인을 모집하여 1학년을 조직하고 봄, 여름, 겨울 3기로 나누어 교수함으로 동교는 비로소 개학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교수는 마포삼열, 배위량, 소안론, 이길함, 한위령, 편하설 등 7인이었다. 신학교 사업은 점점 발전되어 1903년 가을에 3년 간 예비과(조사를 위하여)와 5학년 과목을 제정하였고 1904년에 마포삼열 목사를 교장으로 시무하게 하고 미북장로회 언더우드 목사와 남장로회 전위령 목사와 호주장로회 왕길지 목사 등 3인을 교수로 시무하게 하였다.⁵³⁾

1905년 봄에 최초로 3개월 간 계속 교수제를 설정하고 시행하였는데 당시 3년생이 8명이었고 1년생이 14명이었다. 1907년 제1회로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면서 신학교 사업은 확장이 되었고 1909년에 이르러서는 재학생 수가 130명에 2회 졸업생 8명을 배출하였다.⁵⁴⁾ 당시 세례를 받은지 최소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한 지교회의 직분자로 최소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학할 자격이 없었다. 각 사람은 지교회의

지도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견습을 쌓아 오고 시장터와 노방전도 및 축호전도를 통해 스스로가 훌륭한 사역자임을 실증해 보인 이들이었다.⁵⁵⁾

당시의 학제가 5년이었고 사병순이 1913년 6월 신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1909년경 신학교를 입학하였음을 알게 해 준다. 당시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가족이 딸려 있고 재산이 별로 없었으므로 학업에 재정을 조달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그들이 조사로 섬기는 교회나 순회 교구들은 일년 내내 그들에게 사례금을 지불하고 매년 3개월 반씩 학업을 위해 그들에게 자유시간을 주었다. 그 대신 그들이 안수받은 후 교회가 부담할 수 있는 봉급을 받으면서 목사로서 해당 교회를 섬긴다는 약정이 그들과 교회 사이에 맺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교회는 강력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었다.⁵⁶⁾

사병순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장로이자 조사로 활동한 교회는 중산방에다리 교회이다.⁵⁷⁾ 광안련의 언급대로 사병순 역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동 교회에서 소안론 선교사와 동사무사로 세워지게 된다. 즉 사병순이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불하였고 졸업하면서 목사로서 중산방에다리 교회를 섬기기로 하였던 것이다.

52) 광안련은 4명이라고 기록하였다. 광안련, OP. CIT., P. 165. 비교: 길진경, OP. CIT., p. 173.

53) 길진경, OP. CIT., p. 174.

54) IBID.

55) 광안련, OP. CIT., p. 166

56) IBID.

57) 길진경, OP. CIT., p. 257. 제2회 총회록에는 “중산반석방에다리교회”로 기록되어 있다.

51) 길진경, OP. CIT., p. 173.

사병순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에게 보수주의 신학과 신앙을 배우게 된다. 마포삼열에게서 신학, 교회정치, 성례와 선교를, 소안론에게 기독교 윤리와 구약 및 신약주경학 등⁵⁸⁾ 목회자로 쓰임받기 위한 필수 과목들을 공부하였다. 당시 선교사들의 신학적 입장은 청교도주의와 구학과 신학을 포함한 정통 칼빈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라 한다.⁵⁹⁾

신학생으로 공부하면서 한편 대리회 서기로 일보던 사병순은 1912년 1월 28일 평남노회가 성립되면서 회중이 투표하여 서기로 계속 일을 보게 되었으나⁶⁰⁾ 그 다음날인 29일 서기직을 사면하고 싶다고 사면청원을 하였다.

“서기 사병순 씨가 몸이 곤하여 직무 사면하기를 청원하매 김천일 씨가 이춘섭 씨로 원서기 되고 사병순씨로 부서기 되기를 동의하여 가로 결정하다.”⁶¹⁾

사병순은 동년 6월 제2회 평남노회가 열리기 전까지 부서기직에 있었다. 당시 노회장은 주공삼, 부노회장은 마포삼열 선교사였다. 사병순은 노회 내에서 알려져 있는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소안론 선교사가 시무하는 지경인 평양 서면, 오읍 지경 시찰위원의 한 사람으로 김리제, 노재원, 방위량, 송린서, 이윤모 씨와 함께 수고를 하였던 것이다.⁶²⁾

제3장 신학 졸업과 목사장립 시기 (1913)

1. 신학교 6회 졸업

“거기에(중국 산둥 래양-필자 주) 선교사는 1912년에(1913년-필자 주) 박태로 목사가 맨 처음 파송이 되었고 1913년에는 필자와 같이 평양신학교 졸업생인 김

영훈, 사병순 두 목사가 갔었고”⁶³⁾ 중국 남경에 있던 사병순의 졸업 동기인 장성산(장덕로) 목사가 쓴 글이다.

사병순은 1913년 6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생은 모두 33명이었고 김영훈도 같이 졸업을 하였다.⁶⁴⁾ 사병순이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1913년 5월에 그보다 1년 선배인 박태로 목사가 총회의 중화민국 선교사로 택정을 입어 중국 산둥성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었다.⁶⁵⁾ 1907년 제 1회 졸업생 7명부터 사병순이 졸업한 6회까지의 졸업생을 모두 합쳐 102명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였다.⁶⁶⁾ 5년 여의 신학수업을 마치니 그의 나이 35세였다.

2. 목사 장립

신학교를 졸업한 6월에 목사로 장립을 받게 된다. 신학교 졸업일이 언제였는지 모르나 그 달 12일 평양신학교에서 제4회 평남노회가 회집되었고 사병순은 동료 신학준사 5명과 함께 목사로 장립을 받게 되었다.⁶⁷⁾

목사장립과 함께 사병순은 동사무사로 일하게 되어졌다. 동사무사란 선교사

59) IBID., p. 70.

60) 길진경, OP. CIT., 257.

61) IBID., pp. 258.

62) IBID., pp. 270~271.

63) 성산, “조선장로회의 산동선교에 대한 나의 관견”, 기독교신보, 1927년 5월 11일자.

64) 정인파, “예수교장로회연감”, (경성:대동출판사, 1940), p. 116.

65) 줄저, “한국개신교의 첫 타민족을 위한 해외선교사 박태로 목사의 생애(1870-1918)”, 선교회보 5호, (인천:대한예수교장로회부개동교회 해외선교위원회, 1995), p. 24이하 “PCFMC”라 칭함.

66) 정인파, OP. CIT., pp. 115-116.

67) 백낙준, OP. CTT., p. 116.

그의 동료 김영훈은 1913년 8월 26일 제4회 평북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58)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92), p. 67.

와 같이 일보는 목사에 대한 명칭으로, 위임동사목사와 임시동사목사로 구분이 되어졌다. 위임동사목사란 위임을 받고 선교사와 같이 지교회 일을 맡은 자를 말함이고, 임시동사목사란 위임을 받지 못하고 선교사와 같이 지교회 일을 맡은 자를 말함이다.⁶⁸⁾

사병순이 막 목사장립을 받았으므로 임시동사목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병순 목사는 소안론 선교사와 동사목사로 일하게 된다. 물론 그가 장로이자 조사로 일할 때 같이 활동하였을 것이므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보아야 겠다. 소안론 선교사는 조선정부에 의해 선교사의 자격으로 호조를 받은 첫 인물이다. 1898년 입국 이후 평양신학교와 평양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사역을 지속한 선교사로 한국의 찬송가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한다.⁶⁹⁾

사병순은 소안론선교사와 3개월 정도 동사목사로 사역한 것으로 보인다.

“사병순씨는 중산반석방에다리 교회에 소안론 목사와 동사목사로 세웠다가 총회전도국의 청원을 의지하여 중화민국 선교사로 가기를 허락하였사오며”⁷⁰⁾

목사로 장립받아 국내에서 사역한 기간은 겨우 3개월 정도가 되고 말았다. 국내 목회를 위해 준비해 온 그에게 새로운 제안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68)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6회 회록, (1917), pp.15-16. 이하 “총회록”이라 칭함.

69) 박용규, OP. CIT., p. 76. 박용규 교수는 소안론의 입국을 1892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비교: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p. 132.

70) 총회록, 제2회, (1913), p. 45.

중국어문선교회
행정실, 교육부, 출판부,
연구부 간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행정실

헌신된 사역자로 본부 행정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재정관리에 은사가 있는 분

TEL. 594-8038, 535-4255 (김만섭 간사)

교육부

교재개발 및 판매,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 지원 및 중국선교훈련원 지원 사역을 담당할 간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TEL. 594-8038, 535-4255 (김바울 간사)

출판부

격월간지 「**중국을 주께로**」 및 단행본 출판사역에 동역할 일꾼을 모집한다. 타자, 교정, 번역, 발송 작업에 은사가 있는 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

TEL. 533-5497, 592-0132 (석은혜 간사)

연구부

중국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중국에 관한 연구 사역에 관심있는 분.

TEL. 533-5497, 592-0132 (권수영 간사)

你已被揀選

축복송

你已被揀選屬於上帝，你是君尊神的祭司

聖潔的國度，我們都是屬神的子民

在主面前我已看見，在你裏面神的榮美

言語不足說明，你是何等寶貴

榮耀歸於父神 哦！哈利路亞

우리말 가사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발 음

Nǐ yǐ bèi jiǎnxuǎn Shěnyú Shàngdì, nǐ shì jūnzūn Shén de jīsī,
 Shèngjié de guódù, wǒmen dōu shì shǔ Shén de zǐmín.
 Zài Zhǔ miànqián wǒ yǐ kànjian, zài nǐ lǐmiàn Shén de róngměi.
 Yányǔ bù zú shuōmíng, nǐ shì héděng bǎoguì.
 Róngyào guīyú fù Shén O! Hāllùyà.

행간의 의미

팔월 이십일 저녁, 하워드 프레이저가 그의 모교회에서 한 고별 설교는, 그 후로 두고두고 교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쟁점이 되었다.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 단상에 나서는 하워드의 얼굴은 약간 창백해 보였으나, 그의 음성은 흔들림 없이 견고했다.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모두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들 그를 주목했다. 교회 안은 쥐죽은 듯한 침묵과 의아해 하는 시선으로 꽉 차 있었다. 그가 또박또박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제가 안식년을 맞이 직전에 여러분들께 보낸 선교 편지와 이 곳에 처음 돌아와서 행한 선교 보고회에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치 저의 사역이 그곳 교회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새 신자들을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 직전에 열두 명의 남녀가 그곳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사역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의 회심에 연관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아프리카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이미 여러 해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전도 사역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4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은 아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가 느릿느릿 말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주를 위해 영혼을 건지는 일에 헌금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 제 사역이 아프리카 그리스도인 몇 명과 함께 도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해지는 일이라고 보고한다면 여러분들은 더이상 저를 후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사역을 계속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잘못은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추한 모습을 드러낸 데 대해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의 음성이 처음으로 흔들렸으나 그는 계속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일 제가 또한 여러분들의 실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제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님께 대한 진실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선교 사역을 아직도 오십 년이나 백 년 전의 모습 그대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를테면 불학무식한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회심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아프리카의 정글 속에 조그만 교회당들을 짓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반세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며, 이미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오늘날의 토착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당시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현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움과 가르침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토착 교회는 외국 선교사들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지인 전도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교수와 기술자, 농사 전문가, 문맹 퇴치 요원, 방송 전문가, 현대 아프리카 사회 속에서 신속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복음 전도자들을 후원했듯이 이러한 방면의 사역자들을 기꺼이 후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워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훔쳤다.

“저는 제 사역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나라에는 공산주의 사상에 영향받은 서적들을 비롯하여 잡다한 세속 문학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반해, 기독교 서적들은 구태의연하고 불품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들여 사고 싶은 마음이 일게 할만한 양질의 책들과 문서들을 제작해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될지 누가 압니까? 저는 사진 촬영에 대한 상식이 전무하다시피한 그곳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복음의 필요성이라든가 기쁨, 또는 불행 등에 관한 힘있는 메시지를 담아 내는 사진을 찍을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아프리카 교회가 제게 요구하는 일이자 제 자신이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싶어하는 일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워드는 그의 어조에 행여나 원망하는 듯한 느낌이 드러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잠시 말을 멈췄다. 만일 원망하는 투로 말한다면 그가 설명하고자 하는 진실이 묻혀버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더욱 부드러운 태도로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왜 선교 사역을 위해 헌금합니까?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입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위함입니까? 선교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들을 ‘사는’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는 여러분들이 지급하는 댓가를 받고 현지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고용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단 교회의 성도들 중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있고 부르심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의 축복과 함께 그를 보내 주시고, 그가 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여 그 길을 좇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선교사들이 비로소 여러분들께 솔직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심중에 진실한 말을 꺼낼 수 없었던 유일한 선교사는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자 기도의 지원이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일이 도착 교회와 우리 사이의 불편한 관계라고 보고한다면, 여러분들 중 누가 선교 헌금을 하려 하겠습니까? 제가 만일 사진 현상 기구를 보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사실에 대해 솔직한 보고를 드리기보다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남녀 회심자들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들을 찾아내어 그럴듯하게 다듬어 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눈물이라도 자아내게 한다면 집회 후에 수백 달러에 달하는 헌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여러 교우님들,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후원하기 원하는 선교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우리가 잊혀진 지 이미 오랜 사건들을 파내어 극적인 모습으로 재구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나 성공 사례만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좇기 위해 애쓰되 그러한 씨름을 조국이 아닌 외지에서, 다른 문화권 속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기꺼이 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을 기대하는 남녀들을 후원하시겠습니까?

하워드의 말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앞에 펼쳐진 종이들을 쓸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니 저의 거짓말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는 피차 상대방으로부터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일입니다.”

여섯 개의 물항아리

六缸水

(요 1:47~51; 2:1~11, 23~25; 3:1,2)

約一47-51; 二1-11, 23-25; 三1,2



1 腓力看見耶穌，實在太興奮，他趕忙告訴朋友拿但業：「來吧。我找到救主了！」拿但業不信這個消息，但他同意親自去看看。他們行近耶穌—

1 빌립이 예수를 보고 매우 흥분하여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말했다. “와 보라. 내가 구세주를 찾았다!” 나다나엘은 이 소식을 믿지 않았으나 그가 직접 가서 한번 보는 데 동의했다.

2 看哪，這是個心中沒有詭詐的人。

2 “보라. 이 사람은 마음에서 간사함이 없구나!”

3 你怎麼曉得我這麼多事？

3 “당신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 腓力還未招呼你，你在無花果樹下思想上帝，我已看見你在那裡了。

5 你真是我們等了好久的救主了！

5 “참으로 당신은 우리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세주시군요!”

6 拿但業找到他的救主，他撇下一切，跟着耶穌和他的朋友，往北到加利利去了。來到十字路口，彼得和安德烈轉身回家，他們的家在加利利海附近；耶穌和其餘的門徒去到迦拿。



4 “빌립이 아직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나는 이미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

6 나다나엘이 그의 구세주를 찾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그의 친구들과 북쪽의 갈릴리까지 갔다.

사거리에서 이르렀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집은 갈릴리 해변가 근처에 있었다. 예수와 그 나머지 제자들은 가나로 갔다.



7 그들이 이 마을에 도착하자,
예수의 친구들이 그들을 환영했다.

10 연회 도중에, 마리아는 술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신랑이 알면 매우 난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알리고 난 후, 종들에게 말하였다.

7 他們到達這個鎮，耶穌的
朋友來歡迎。

8 請賞光參
加我的婚
禮？你的母
親也會來
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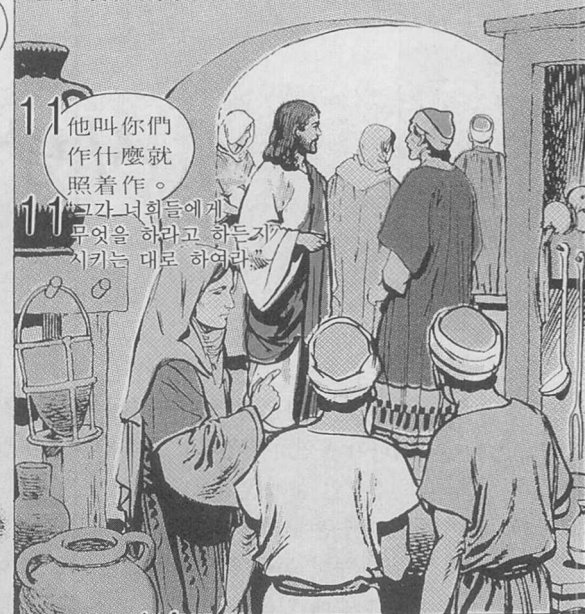
9 好，我們應
該來賀喜。

9 “좋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서 축하해
야지요.”

8 “나의
혼례식에
와 주시겠습
니까? 당신의
모친도 오실
것입니다.”



10 在喜筵上，馬利亞發現沒有酒了，新郎知道
當然會難為情。她告訴耶穌，然後對僕人說—



11 他叫你們
作什麼就
照著作。

11 “그라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여라.”

12 把這些甕子
裝滿水。

12 “이 항아리들을
물로 가득 채워라.”



13 爲甚麼
裝水？我
們要的是
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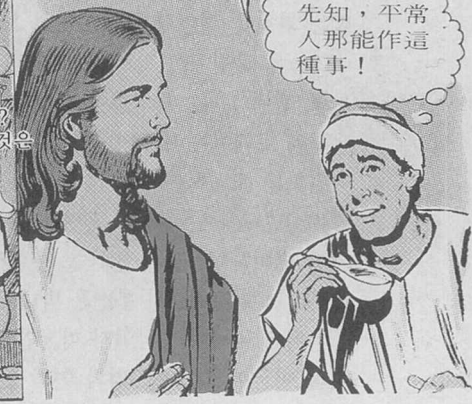
13 “왜 물을 채우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술인데...”

14 但這僕人覺得耶穌有一種與衆不
同的威嚴和力量。他們照著做。

15 現在拿
一點給管
筵席的。

16 真怪！果然是
酒。真是神蹟！

17 這個人一
定是上帝的
先知，平常
人那能作這
種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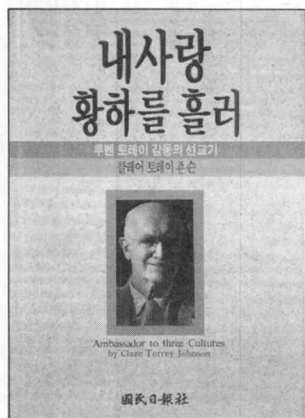


14 그러나 이 종은 예수께는 무리들과 다른 위엄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하였다.

15 “이제 조금 퍼서 연회를 맡은 관리에게 갖다 주어라.”

16 “이상한데, 진짜 술이잖아! 참으로 신기하다!”

17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내 사랑 황하를 흘러

석은혜

이 책을 처음 대한 것은 5년 전 중국어문선교회에서 사역을 막 시작할 때였다. 선교회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제목에 마음이 끌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책장을 넘기다가 주인공의 헌신적인 삶과 인격에 감동해서 단숨에 다 읽어버렸다.

이 책은 예수원에 계신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 루벤 아처 토레이(R. A. Torrey)의 전기로 대천덕 신부의 누이 동생 클레어 토레이가 쓴 것이다.

이 책을 단숨에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선교사로서의 루벤 토레이의 삶과 사역이 내가 책을 놓을 수 없을 만큼 특별했을 뿐 아니라, 그의 말년의 사역이 한국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더욱이 그가 바로 예수원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라는 점에 더욱 친근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루벤과 그의 아내 자네트는 1913년에 결혼과 동시에 배를 타고 미국을 떠나 중국 산둥지방의 언어학교에 입학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상형문자인 중국어를 배우면서 많은 좌절을 경험했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극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12시간 걸리는 제남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제남은 28년 동안 루벤 부부의 제2의 고향이 되었다.

루벤 토레이는 1920년대에 예기치 않았던 수년 간의 기근과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기근구제 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1930년대에는 평신도 훈련을 통해, 루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앞으로 닥칠 오랜 암흑기에 대비하여 크리스천들을 훈련시켰다.

1941년에 자네트와 루벤은 막내아들과 함께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본국에 송환되었다. 그는 중국어에 능하며 중국인과 미국인 양편 모두를 잘 아는 연락관을 보내달라는 장개석의 요청에 따라 미국이 임명한 9명의 연락관 중 한 사람으로 뽑혀 일하기도 했다.

1945년 여름에 루벤은 트럭 교통사고를 당해 생명만은 기적적으로 건질 수 있었지만 오른팔을 잃게 되는 불운을 당했다.

1949년에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하자 루벤 토레이는 그가 사랑하고 고국처럼 아끼던 중국에서 더이상 선교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으로 되돌아온 그는 수개월 간 선교위원회를 위한 파견근무 후에, 65세의 나이에 내키지 않는 은퇴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뉴욕 사무실로부터의 예기치 않던 부름이 그의 계획을

변경시켰는데, 그는 한국에서 3만 명의 민간인 수족 절단자를 위한 재활계획을 운영하는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1952년에 한국에서 일꾼들을 모아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7년 동안 3천 명 이상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의수족을 만들어 주었고, 그들을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그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을 했다(고전 7:24). 자신의 의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깊은 애정과 온화함으로 한국 장애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봄으로써, 그들 대부분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아내 차네트는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말했다.

“한국에서 봉사한 것은 정말 놀라운 기회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큰 기쁨의 대상은 바로 한국사람들이었어요.”

루벤 토레이는 말년에 한국에서 한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한 7년이야말로 그의 전생애 중 가장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기간이었다고 말한다.

오른팔을 잃고 그 상처로 인해 계속적인 고통을 당한 일이 변하여,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루벤 토레이 박사는 마침내 72세에 은퇴했지만, 남은 10년의 여생 동안도 계속 선교에 힘썼으며, 그의 행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며 상담했다. 그의 이러한 삶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귀감이 된다.

이 책을 통해 루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또한 루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렸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루벤 토레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사역을 자신들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성령께 의지했고 성령께서도 그들의 사역 속에 더욱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

루벤은 선교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충실하게 그를 지원하던 자들로부터 선교사역의 정통성을 의심받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도 했다. 이런 비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그의 아내에게 한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예수님께서 고소를 당하셨을 때 그 분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소. 만약 나의 삶과 봉사가 올바르다면 그것들이 나를 변호해줄 것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루벤과 같이 의연히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중국 선교사이면서 한국 선교사였던 루벤의 삶을 그린 이 책 “내 사랑 황하를 흘러”를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한 알의 밀알(요12:24)이었다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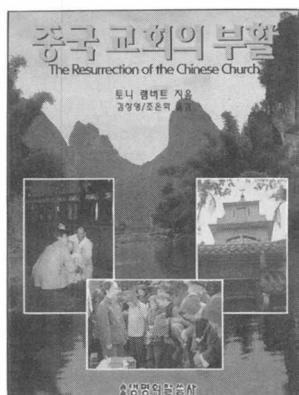
중국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만 아니라, 선교사 후보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책을 꼭 읽어 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내 사랑 황하를 흘러』, 클레어 토레이 존슨 저, 국민일보사, 3,500원

석은혜/“중국을 주께로” 편집장

중국교회의 부활

토니 램버트 지음 / 김창영 · 조은화 옮김 / 생명의 말씀사 / 367쪽 / 6,800원



중국 전역에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관리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 성장의 원인을 문화혁명으로 인하여 파생된 사상의 공백, 현실에 대한 젊은이들의 환멸감, 농촌 생활의 권태감, 사상적 통제의 완화 등의 사회학적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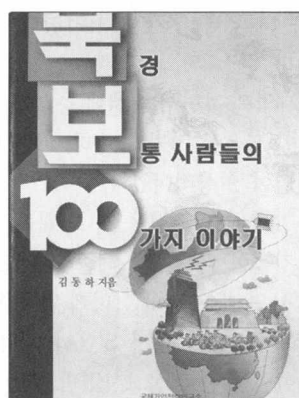
그러나 많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중국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 하심과 성령의 주권적 인도가 오늘날 중국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토니 램버트는 이 책에서 중국교회의 부활은 20세기의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한다.

중국 정부의 내부 공문서와 가정교회 신자들로부터 받은 수통의 편지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교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은 생생한 자료들을 싣고 있는 이 책은 중국 교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북경 보통사람들의 100가지 이야기

김동하 지음 / 국제기업전략연구소 / 354쪽 / 5,000원



이 책의 저자는 젊은 북경 유학생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내용은 북경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상식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은 외국인에게 특별히 비싼 요금을 요구하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외국인 불평등 대우국”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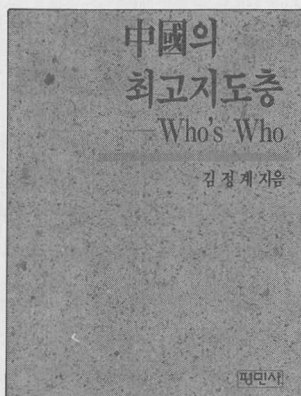
이 책은 경제 개방과 개혁의 불이 당겨져 있는 중국인들의 능한 상술로 이어지는 북경의 생활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다.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고, 사소한 것에 한번 부딪치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북경 생활의 단면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생활 정보 책자이다.

조만간 중국 대륙에서 장기나 단기로 체류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들어간다면, 시간을 덜 낭비하게 되며 훨씬 더 유익하게 여행이나 체류 목적을 이루리라 생각되어 권한다.

中國의 최고 지도층 -Who's Who

김정계 지음/ 평민사 / 319쪽 / 5,800원



최 근 등소평 사후를 앞두고 중국 정계(政界) 인사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빈번하게 일간지를 장식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法治>보다는 <人治>가 중국의 오랜 정치전통이며, 또 그것이 오늘날 까지도 중국의 정치문화로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출신배경과 인맥의 가닥을 추적, 그들의 성분을 분석해보는 것이 중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1,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에서는 중국 권력구조의 기본 골격인 당·국가 및 군조직, 군중조직의 기본조직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 체제를 이끌고 있는 최고 권력층의 사회적 배경과 성분을 총체적으로 분석, 오늘날 중국을 움직이는 실세군의 중추적 맥을 추적하고 있다.

2부에서는 현재 중국 당·정·군 및 군중조직의 주요 인사 55명을 선정, 개인적 프로필과 인맥관계 및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다소 딱딱한 면이 없지 않으나 오늘의 중국을 심도깊게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성경전달 사역자, 중국에서 시체로 발견

성경전달 사역자, 중국에서 시체로 발견

홍콩에 거주하면서 “은혜의 말씀”이라는 선교단체의 멤버로 활동하던 한 미국인이 중국 광주(廣州)의 한 호텔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가 있던 방안의 탁자에는 펼쳐진 성경과 쓰다 남은 설교 메세지가 놓여 있었는데, 자살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또 성경과 신앙서적을 중국으로 보급하는 “New Life Literature”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발견되기 며칠 전부터 실종되었었다고 한다.

(Eastern Express 95. 5. 4)

가정교회 성도 70명, 체포당하다.

지난 4월 8일 하북성(河北省)의 한 가정교회에서 67명의 성도들과 최소한 3명의 해외 사역자들이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가정교회 측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목회자 대상의 훈련, 양육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1명의 무장경찰들이 모임 장소를 습격하여 그곳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수갑을 채운 채 붙잡아갔다고 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이전부터 비밀리에 3명의 해외에서 온 성도들을 미행해 왔다고 한다.

체포된 다음 날 성도들은 그들의 불법적인 종교활동에 대해 심문을 받았다. 어떤 이는 20시간 이상 심문을 받기도 하고, 그중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머리를 깎인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3명의 해외 사역자들은 무한(武漢)에 가서 강제출국을 당했고, 가정교회의 성도들은 1인당 200원(인민폐)의 벌금을 내면 석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South China Morning Post 95. 5. 4)

한 중국 성도의 편지

나는 중국인 남학생으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발전, 개혁, 변혁의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각도에서 이러한 것들은, 경제적인 차원으로 모든 것을 ‘돈을 향해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에 틀림없이 매우 큰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주의를 집중해야만 할까요? 돈입니까, 아니면 신입니까? 돈을 어느 곳에 보관해야 하죠? 투자는 어디에 하구요? 하늘, 아니면 땅 위?

나는 여기에서 이미 일년 반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2년 후면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을 하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든 것을 나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야 합니까? 중국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 삼 개월 동안 나는 각기 다른 4개의 가정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맡아왔습니다. 일년 전 한 형제와 저는 학생 성경공부반을 시작했는데,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작했을 때는 여섯 명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17명으로 늘어나 다시 2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졸업하게 되면 우리들은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성경공부반과 더 많은 가정 집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제 자매들을 심방해야 하고 또 우리들의 학업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이곳에 한 명, 혹은 더 많은 목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우리들에게 좀 더 큰 예배당이 있어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부의 박해가 없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중국에서 전도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일까요? 장차 우리들은 결혼을 해야 합니까? 가족과 친척들이 우리의 헌신을 제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느날 공산당에 의해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국은 현재 점점 더 개방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느슨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규제들이 우리들을 움아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구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3주 전 우리는 정부에 속한 삼자교회에 가서 성경을 샀습니다. 나는 삼십 권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겨우 열 권만 팔았습니다. 저에겐 정말로 삼십 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가서 보니 그들에게는 찬송가조차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찬송가 오십 권이 필요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현재 배우고 성장하고 단계대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홍콩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저에게 약간의 성경과 기타 신앙서적을 찾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매월 우편으로 부쳐준다면 우리 교회와 성경공부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中國與福音 5期 95. 3/4월호)

3명의 내지교회(內地教會) 대표, 최초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홍콩 신학연수

작년 홍콩의 루터신학원과 중국 남경의 금릉협화신학원은 교환교수, 교환학생 교류협정을 맺고, 처음으로 금년 1월, 3명의 내지교회 지도자들이 홍콩에 도착하여 루터신학원에서 진행하는 2년 기간의 신학 연수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들은 운남성 곤명시 기독교회 주임인 이예(李睿) 목사와 산둥신학원 교무처장 손미자(孫美慈) 목사, 그리고 섬서성 성경학교 교수인 왕홍(王紅) 여사이다. 세 사람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금릉협화신학원을 졸업하고 다년 간의 풍부한 목회경험까지 갖추고 있는 인재들이다. 내지교회의 추천을 받고 중국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비준을 얻어 선발되어 홍콩 루터신학원 입학 을 허가받아 신학학위 과정에 입문하게 된 것이다.

중국 기독교협진회는 매년 학생 세 명을 선발, 루터신학원에 보내어 2년 간 연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中國與福音 5期 95. 3/4월호)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종교

삼자 카톨릭교회, 지하교회와 화해준비

중국의 삼자 카톨릭교회는 지하 카톨릭 교회와 언제든지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삼자 측 공식 대표인 팡회덕(彭懷德) 주교가 밝혔다.

그에 의하면, 교황 바오로 2세가 마닐라에서의 메시지를 통해 중국 내 성도들의 하나됨을 촉구했으며 또한 중국과 바티칸에 원활한 외교 관계가 맺어진 후 중국을 방문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하 카톨릭교회 지도자들과 대담을 하고 난 팡 주교는, 그들간의 화해 문제는 종교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종교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가의 법을 쉽게 거역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Asia Focus 4. 7)

성도(成都)의 천주교 신학교 학생모집

작년 4월 정부에서 파견한 사천성 종교사무국 간부가 부총장의 자리를 대신하자 전교생 54명 중 40명이 중퇴하는 사태를 빚었던 성도(成都)천주교 신학교가 1년만에 다시 학생을 모집하였다.

종교사무국에서는 신자가 아닌 간부는 철수시키기로 동의했으나, 원래 책임

자였던 서지현(徐之玄) 주교 역시 그 직임에서 떠나야 한다고 했다.

사천성 천주교 신학철학학원 부총장인 당원진(唐遠進) 신부에 따르면, 신학교는 20-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9월 개강 예정이다. (公教報 4. 28)

정치

북경 부시장 권총자살

북경시 부시장 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왕빈립(60)이 최근 경제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뒤 북경시 외곽 야산에서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중국 소식통이 밝혔다. (경향신문 4. 9)

중, 반체제 인사 6만 명 동태감시

중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6·4 천안문 사태 6주년을 앞두고, 6만 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감시에 착수했다고 홍콩의 영자지들이 보도했다. (경향신문 4. 15)

강택민 정적들에 강력호소

중국 공산당 강택민 총서기는 당·정·군을 비롯한 정적들에게 분열과 파벌주의

에 나서지 말라고 단호히 경고하면서 인민해방군에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경향신문 4. 23)

중국, 대만에 휴전회담 제의

중국은 대만에 적대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아래 휴전협정 체결에 관한 회담을 개최할 것을 대만에 제의했다.

(동아일보 4. 26)

강, 양상곤(楊尙昆) 활동 통제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강택민(68)은 최고 지도자 등소평(90) 사후에 대비, 권력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정적인 양상곤 전 국가주석(87)의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경향신문 4. 27)

북경시 새 서기에 위건행

중국은 27일 물러난 북경(北京)시 당위원회 진희동(陳希同)서기 후임에 위건행(尉健行 64) 당중앙 정치국 위원 겸 당중앙 기율검사 위서기를 임명했다. (중앙일보 4. 28)

강택민 등사망 대비 친위 부대 강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겸 당서기는 최근



중앙정치국이 인민 무장경찰부대를 직접 통제토록 하고 중국 권력의 심장부인 중남해의 경호를 위해 무장경찰 부대 정예병력 4백 명을 중앙경위단에 보강시켰다.

(동아일보 5. 7)

중국 등 비판 시작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등소평의 시장 개혁이 중국의 도덕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간접 비판하고, 정신 오염을 막는 최선의 대안은 유교의 부활임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5. 10)

중국 군부내 반강택민파 숙청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은 올들어 자신의 노선에 반대하는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양상곤 전 국가주석 등 군부 내 일부 반강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이들을 철저히 조사, 중징계에 처하도록 지시했다고 홍콩 『이스턴 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중앙일보 5. 10)

중국 족벌주의 타파 착수

중국 공산당은 관료사회의 족벌주의와 비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규정과 함께

당·정 조직에 대한 대규모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법령은 중국 관료사회가 족벌주의와 정실주의의 비호 아래 얼마나 부패를 자행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경향신문 5. 18)

중, 베트남 국경 문제 협상

베트남 관리들과 중국관리들이 23일 하노이에서 1천1백30 km에 달하는 양국 국경문제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은 79년 2월 중국군이 베트남을 공격하면서 국경표지판을 옮겼다고 비난했다.

(국민일보 5. 24)

중국 반체제 탄압 강화 강택민-이붕이 주도

이붕 중국 총리가 급증하고 있는 반체제 운동을 탄압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중국 정보기관들에는 반체제운동과 외국세력과의 연결을 척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동아일보 5. 31)

경제

중국, 외국인 투자 규제

중국은 급증하고 있는 외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 등을 포함한 신규 외국인투자 규제법을 곧 공포할 예정이라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조선일보 4. 3)

중, 상업정보망 가동 시장-물가정보 제공

중국 국내무역부는 이달 중 상업정보를 중심으로한 전국 종합정보망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홍콩의 『문화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 4. 4)

중국 상속세 도입

지난 수년 간 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들간의 빈부격차로 고민에 빠져 있는 중국은 이에 대한 해소책의 일환으로 상속세 제도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

(조선일보 4. 6)

중국 홍콩 진출기업 조사 착수

중국 정부가 반부패운동의 일환으로 홍콩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들의 자금거래 조사에 착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중앙일보 5. 8)

중국 국영기업 노동자 시위 확산

중국 국영기업의 적자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지난해 말부터 중국 각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다고 대만 연합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 5. 9)

부패 척결로 원화(元貨) 폭등

중국 정부의 부패 척결 운동이 확산되면서 홍콩에 투자했던 중국 기업의 자금이 대거 본토로 환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중국 원(元)화의 수요가 급증, 원화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중앙일보 5. 10)

중국 식량 배급권 급속 부활

중국이 최근 식량난을 겪으면서 지난 93년 폐지된 식량 배급권이 급속도로 부활되고 있다. 각 도시가 채택하고 있는 배급 제도는 주민이 정부로부터 받은 배급권을 국유 상점으로 가지고 가면 시장가 격보다 싸게 쌀·밀 등의 식량을 살 수 있다.

(중앙일보 5. 16)

이붕·주용기 이미 승인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의 근간인 국유경제 부문을 절반이나 축소하는 급진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홍콩의 영자지 『스탠더드』가 보도했다.

(한국일보 5. 23)



사회

북경 복권 열풍 38억 팔려

북경에 복권 열풍이 불어 지난 2개월 간 3천8백만 원(약 38억 원)어치의 복권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고 해외 화교 통신인 중국신문사 홍콩지부가 보도했다.

(경향신문 4. 4)

부패관리 13만명 처벌

중국의 반부패운동으로 수많은 당간부가 축출되고 수억 달러가 회수됐다고 중국 관영 『광명일보』가 보도했다. 가장 많은 범죄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경제범죄이며, 그 다음이 부도덕 행위 관련 범죄, 도박관련 범죄 등이다.

(조선일보 4. 5)

중국 신강 위구르자치구 지진발생

중국 북서부 신강 위구르자치구 우순난에서 2일 저녁 7시 48분경(현지 시각)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사상자나 피해 상황은 즉각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동아일보 5. 3)

사정 여파 상해 유흥업소 찬바람

중국을 강타하고 있는 반부패 사정운동의 여파로 상하이의 고급 나이트클럽과 가라오케 등 유흥업소가 찬서리를 맞고 있다고. 지난해 말부터 불기 시작한 사정 바람에 밀려 매상이 평소의 약 60%로 줄어 들었고,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꿨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5. 3)

중국 밀수 갈수록 급증

중국 내 밀수가 당국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식용유·절간·가전제품·차량 등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일보 5. 9)

중국서 부부 결혼보험 등장

중국의 한 보험회사는 결혼하는 부부들이 보다 오랫동안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보험 상품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다.

(조선일보 5. 10)

마약 사범 51명 일제 처형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내 12개 도시에서 16일 마약거래로 체포됐던 51명이 일제히 처형됐다. 이같은 대규모 집단 처형은 중국 내에서 마약이 주요 범죄로 확대되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홍콩의 친중국계 신문 『문화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 5. 17)

중국 남경(南京)서 3일째 시위

지난 67년 이후 중국 문화혁명때 강제로 오지로 추방당했던 중국인 1천5백 명이 남경에서 3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자신에게 일차리와 주택 및 음식비 보조비 등을 제공하고 남경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선일보 4. 13)

한·중 관계

산업 재산권 분쟁 없앤다

한·중간의 산업 재산권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산업재산권 애로해소창구」가 연내 특허청과 중국 전국에 설치된다. 이것은 최근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간 특허분쟁 등과 관련, 산업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일보 4. 3)

한·중·북 관광코스 개발 추진

한국에서 북한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는 관광코스 개발이 한·중·북의 3개 도시 사이에 활발히 추진 중이다. 고속관광선을 타고 동해시를 출발, 북한 나진항에 도착한 뒤 다시 기차를 타고 북한땅을 지나 중국의 도문으로 들어가 백두산 등을 관광하고 같은 경로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조선일보 4. 3)

한국인 중국서 또 피살

골동품을 매매하고 위임하기 위해 북경을 드나들던 한국인 석종현 씨(34대전

시)가 지난 22일 저녁 북경 시내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 4. 26)

한·중 관계 급속 발전

한·중간의 경제·무역 관계는 92년 수교 이후 쌍무 교류 및 협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반적이고 꾸준하며 급속한」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중국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의 고위 관리가 8일 말했다.
(국민일보 5. 9)

조선족 분열행위 자제 촉구

중국 정부는 한국인들이 중국 내 조선족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안정과 단결을 해치는 분열 책동을 일삼고 있다고 엄중 경고하고 앞으로 이같은 행동을 제재해 주도록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밝혔다.
(중앙일보 5. 20)

중국 「조선족 축제」 한국가수 공연지 지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중국 동북3성의 조선족 행사가 중국 당국에 의해 잇따라 취소 또는 축소되고 있다.
지난 2일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열린 「조선족 축제」에 현철·주현미 등 한국가수들의 출연이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저지되었다.
(동아일보 6. 4)

중국 교포 「정치행사」 초청 자제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조선족에 대한 한민족의식 고취문제가 한·중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내 정치성 행사에 중국교포 초청을 자제할 것 등을 관련부처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일보 6. 4)



거주의 불안 속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선교사들에게 실제적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보내오는 구체적이고도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은 더욱 끈질기고 강력한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뒤에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선교사를 맨몸으로 그 치열한 전쟁터에 서 있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선교사와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할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지는 이번 호부터 **선교사 기도편지**란을 신설하여, 사역 현장으로부터의 생생한 기도제목들을 독자에게 전달하여 선교사들의 사역에 기도로 깊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남태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선교의 역사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세례받은 중국인 자매가 다시 남태평양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Y 자매는 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곳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게 되어 부득불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 여권을 바꾸려면 초청장이 있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속을 밟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 자매는 오직 간절히 기도만 하였답니다. 가족들, 친척들도 불가능한 일이니 포기하라고 했지만 이 자매는 끝까지 기도를 하며 또 가까운 교회에도 나가서 신앙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결국 3개월 후 여권을 갱신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어 지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또 십일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매들의 신앙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선교회에서 지난번 보내주신 전도지는, 이번 부활절을 기해 집중적으로 이곳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배포되었고, 보내주신 성경도 필요한 모든 이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성경책과 책자들을 보내주신다면 선교지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성경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누어 주었으므로 다시 보내주셔야만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돌아갈 때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여분의 성경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活潑的生命-생명의 삶」과 「사영리」 책자를 공급해주십시오.

남태평양에서

거주의 불안 속에서

한번은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현관의 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거의 자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가 왔을까 매우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현관에 가서 귀를 기울여 바깥 동정을 살폈지만, 전혀 알 수 없었고 벨 소리는 계속 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안국에서 중국인 거주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을 적발하여 벌금을 물리고, 학교 안의 숙소나 외국인 거주지역으로 옮기도록 조치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정부에서 지정한 장소 이외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거주지역에서는 방세가 너무 비싸(가장 싼 방이 한 달에 US\$ 3,000 정도) 거주할 생각을 못하고, 학교의 숙소는 현관에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등기하게 하며 중국인들에게는 아예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을 초청하고 중국인들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인 거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누구냐고 물으니,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저희 가정과 가깝게 지내고 있던 다른 사역자 부부였습니다. 문을 열어 그들을 맞아들이고 이유를 물으니, 그들이 저녁 조금 늦은 시간에 귀가하려고 할 때,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공안국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 가는 것을 발견하고, 밖에서 공안국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지 않자, 저희 집으로 발길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런 문제도 기도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중국인들과 예수님을 소개하며 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언제 공안국에서 와서 조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손길과 지킴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하며

○○님께서 소중히 쓰시던 반도체(라디오)를 선물로 남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복음을 더욱 많이 듣고 또 복음을 정확히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데 쓰라고 하신 뜻으로 생각됩니다. 참 주님 사랑에 감사 올리며 ○○님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실로 주님 은총 받기에 너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주의 영이 날 주관하여 주시고 합당한 그릇으로 써 주시길 항상 맘 속에 소망하며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중국 땅의 복음화에도 부족하나마 힘을 이바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선족 사역자

중국을 주께로

기도 캘린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며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만큼 강력하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중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기도한 만큼 중국은 변화할 것입니다.

두 달 동안 하나의 기도제목을 두 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중보기도의 손길이 많아져서 중국 복음화가 앞당겨지기를 원합니다.

1일

식량위기에 처한 중국의 농촌을 위하여

국가 통계국의 인구변동 상황조사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출생률은 약 1.77%로, 금세기말 중국 인구는 13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농지 감소로 인한 식량위기가 암운(暗雲)으로 드리워지고 있다.

늘어나는 인구, 줄어드는 식량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중국의 농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자.

2일

가정교회의 젊은 지도자를 위하여

흑룡강성에 있는 몇몇 가정교회가 지도자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강도 높은 훈련에 참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다. 한 젊은이는 신자가 된 지 3년밖에 안되었는데, 현재 흑룡강성에 있는 백 가구 이상의 가정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훈련을 잘 받고 열매 맺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젊음을 보상할만한 커다란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3일

감옥에 갇힌 사역자들을 위하여

비밀리에 사역을 하다가 정부 당국에 체포된 한 가정교회 사역자는, 투옥 중 너무나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여 실명하였으나, 오히려 그의 간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역자들이 신앙의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위대한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4일

어린이 납치 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어느 연구 보고에 따르면, 중국 남부 운남성의 어린이들이 평균 한 주일에 50명씩 납치를 당해 태국의 윤락업소로 팔려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하루빨리 근절되도록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고, 또한 이 어린 매춘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태국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5일

중국 유학생 복음화를 위하여

대륙으로부터 외국으로 유학가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들과 우정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하자.

6일

상해 교회의 지도자를 위하여

상해 당국 관리자들은 상해시 기독교협회의 고위 성직자들을 젊은 목사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남부의 청신이라는 곳의 교회에서는 최초로 80세의 목사 대신 30대의 젊은 목사 4명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대로 사람을 사용하시고, 상해 교회의 지도자들이 강해져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7일

중국에 보내진 외국인 교사들을 위하여

중국에서 가르치기 위해 해외에서 초청된 대다수의 대학교수들이 그들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가 나왔다. 이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그들이 기꺼이 중국 학생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자.

봄 축제기간 동안 휴가를 보낸 외국인 교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지혜가 부어져서 새 학기에 더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자.

8일

중국의 노인 복지 정책과 선교사역을 위하여

최근 중국 노인층 가운데 암 또는 노환 때문에 자살하는 이들이 많다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들이 1억을 넘어선 중국의 인구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적인 노인 복지정책이 세워지고 이들을 위한 복음 사역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9일

중국 교회의 자유를 위하여

“교회는 요즘 새로운 규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으로부터 설교자를 모셔와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신자는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라디오 방송을 독초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으라고 권합니다.” (하남성 FEBC에서 온 편지)

이 가정교회 지도자와 지방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가 주어지도록 기도하자.

10일

요족의 신앙 성장과 요족어 성경 번역을 위하여

중국 서남지역에 살고 있는 요족(苗族)들이 복음방송을 듣고 집단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방송국에 편지를 써 왔다. 정부 당국은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을 꾀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꾀박을 이겨내고, 하루 빨리 요족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도록 기도하자.

11일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하여

중국에 도교 수도사들의 수가 1992년 7,000명에서 1994년 현재 1만 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미신과 신비주의적 종교에 사로잡힌 이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12일

내몽고 내의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내몽고의 우라드 치안치에는 4개의 큰 교회와 7개의 작은 교회가 있다.

그곳에 있는 한족과 몽골인들 사이에 복음이 더욱 전파되도록 기도하자.

13일

산둥성 제남의 사고로 인한 유가족들을 위하여

지난 1월 6일 산둥성 청도인 제남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하였다.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도록 기도하자.

14일

흑룡강성의 한 형제와 가족을 위하여

흑룡강에 있는 어느 형제는, 홍콩의 선교단체에서 보낸 소책자를 읽고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편지를 보내왔다.

진리에 갈급하는 이 형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그의 간증을 통해 그 가족과 친척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길 기도하자.

15일

중국의 소아마비 어린이들을 위하여

1억에 달하는 중국의 소아마비 어린이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소아마비 퇴치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부 성과도 있었다.

이 질병이 중국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하자.

16일

공장 노동자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현재 8개 성(省)만이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때로는 사용자측에서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너무 바빠서 영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공장 노동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희망으로 전해지도록 기도하자.

17일

홍콩과 대만 교회의 사역 확장을 위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미신은 빈민계층에 근거하고 있으며 과학에 의하여 제거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투자를 하는 대만이나 홍콩의 사업가들은 미신을 중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좋지 못한 영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풍요로운 물질주의 문화 속에 있는 홍콩과 대만 교회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자.

18일

홍콩의 복음화를 위하여

1997년 홍콩반환을 앞두고 많은 홍콩 교회 목회자들이 홍콩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약 500여 명의 목회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뜻있는 목회자들은 평신도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셔서 평신도로부터 일어나는 부흥의 불길이 홍콩을 성령의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자.

19일

중국 크리스천 교사들의 영향력 확장을 위하여

1979년 한 해 동안 42만 명의 외국인 전문인들이 중국으로 건너왔고, 그 후 15만 명의 교사와 10만 명의 대학원생, 1만 명의 의사를 길러냈다고 한다.

선교적 소명에 순종하는 크리스천 교사들이 중국 사회에 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0일

티벳의 가정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북경 정부는 티벳의 불교사원 건축을 금지하고 새로운 수도승의 숫자도 제한하였다. 티벳 일간지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가 제멋대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티벳에 있다고 알려진 소수의 가정교회와 그곳에 흩



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자.

21일

억압받는 부녀자들을 위하여

86명의 부녀자를 납치하여 농부들의 신부감으로 팔아 넘긴 3명의 범인이 내몽고에서 검거되었다.

억압받는 여인들과 그 억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자.

22일

도시빈민을 위한 정책과 선교를 위하여

북경에는 34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 이 유랑인들은 북경 시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북경 시민들은 범죄 증가를 이유로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도시빈민들을 위한 정책이 세워지고 이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23일

중국 정부의 부패일소를 위하여

부패와 관련된 당간부들의 수가 지난 해보다 86%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하위 공직자들이라고 한다.

간부들이 부패에 몰들지 않고 정부 지도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자.

24일

효과적인 소수민족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예배 처소에 중국어를 모르는 소수 민족이 참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림책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들을 보내주십시오.”

운남성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족 설교자가 필요로 하고 있는 신앙서적들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한 소수민족을 위한 책자들이 번역되어 발간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5일

해외 화교 크리스천들의 헌신을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본토 출신 중국인 크리스천들은 서구 물질 문명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영적인 정열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중국 교회를 지원하고 해외에 있는 교회에 영적 깊이를 전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

26일

중국 청소년들을 위하여

중국에 있는 한 여중생은 연예인에게 빠져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인생의 실의를 느끼다가 결국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는 소식이 담긴 편지가 왔다.

중국의 청소년들이 성경과 전도책자, 신앙서적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하자.

27일

홍콩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홍콩 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성장과 뜨거운 기도의 열심에 도전받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작은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성령의 역사가 중국 귀속을 앞둔 홍콩 교회에 임함으로 영적각성과 선교의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콩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의 뜨거운 사랑의 중보 기도가 전파

되도록 기도하자.

28일

<노인의 집>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화동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노인의 집’이라는 기독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정부 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공동체가 해산되었다.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노인들을 보살피는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기도하자.

29일

중국 농촌, 산간 벽지 성도들을 위하여

농촌과 산간 벽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자 잃은 양떼들이라고 한다.

영적인 공급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젊은 사역자들을 그곳에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자.

30일

하남성 젊은 신앙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중국 남부 하남성에는 20만 명 이상의 젊은 그리스도인(15세에서 30세까지)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경과 기본적인 교리도 제대로 학습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영적 풍요를 위해 기도하자.

31일

신강성 성도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1994년 10월 22일 교회와 예배 장소를 관장하기 위한 삼자애국운동이 우루무치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신강성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전부터 어느 정도의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계속 자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위의 기도제목은 아시아기도(OMF), Pray for China(CCRC), Chinese around the World(CAW), China News Church Report(CMI) 亞洲週刊 및 국내 일간지 등의 소식을 참고하여 제공한 것이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편

고 신 선 단

중국선교 정기세미나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선교에 있어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8월 정기세미나

주제: 중국인의 세계관

강사: 채은수 목사(충신대학교 선교학 교수)

일시: 1995년 8월 28일(월) 오후 7시- 9시

10월 정기세미나

주제: 중국의 도시선교

강사: 이문식 목사(남북나눔운동본부 기획실장)

일시: 1995년 10월 30일(월) 오후 7시- 9시

세미나 장소는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33-5497, 592-0132, 594-8038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

중국을 주께로 드리기를 위한 기도합주회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중국어문선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회원 및 선교 헌신자,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를 통해 중국을 주께로 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국 현지 선교사들의 생생한 사역보고를 통해 최근 중국의 상황과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94-8038, 533-5497, 535-4255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6월 정기세미나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는 동 연구소 소장인 왕쓰웨 목사의 강의로 “중국삼자교회 신학사상과 평가-인간론, 현세와 종말론, 신론, 기독교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로

TEL. 318-3956(한운숙 간사)

모통이돌 선교학교

모통이돌선교회에서는 「북한선교와 우리의 영적준비」라는 주제로 제11회 선교학교를 시작한다.

북한 주민의 실상과 한국교회사 및 통일과 재사회화 등의 다채로운 강의와 선교정보 수집 방법, 선교 행정과 선교 전략 등의 Workshop을 통해 선교현장에 나가기 전에 여러가지 상황훈련을 겸하기도 한다.

1995년 7월 4일(화)~7월 7일(금) 3박 4일 동안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양평캠퍼스에서 열리며, 등록비는 5만원(교재, 숙박비 포함)이며, 인원은 120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북방선교 관심자, 헌신자 및 예비 선교사들은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모통이돌선교회로

TEL. 796-8846 (선교학교 담당자)

중국선교훈련원 제7기 훈련생 모집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은 '95년 4월부터 '96년 2월까지 6개월 간 선교훈련에 참가할 훈련생을 모집한다. 접수마감은 '95년 7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본지 광고 참조) 문의는 중국선교훈련원으로 TEL. 594-8038, 535-4255(김바울 간사)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 훈련생 모집

한국해외선교회 전문인선교훈련원(GPTI)에서는 제8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창의적 접근지역 사역에 관한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하여 독자적인 생존과 사역 능력 배양 등 타문화에 대한 자세확립을 목표로 훈련한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 및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전문인선교사로 사역하려는 사람이 참가할 수 있다.

훈련기간은 1995년 9월부터 1996년 8월까지이며, 서초동 영화교회 교육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훈련비는 독신일 경우에는 50만 원이며, 부부일 경우에는 95만 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문인선교훈련원으로 TEL. 537-2043, 594-3438

한국해외선교회 선교훈련생 모집

한국해외선교회(GMF) 개척선교부(GMP)에서는 '95 터키 여름 단기선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중동·중앙아시아의 교두보인 터키와 그 주변국가에서 타문화권 선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이슬람권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연마하며, 사역의 원칙과 전략들을 점검하여 효과적인 이슬람 선교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선교사 지망생으로 국내외 선교사역에 참

여한 경험을 가진 자 또는 타 선교단체에서 훈련경험과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가일정은 다음과 같다.

1995년 7월 18일(화) ~ 8월 8일(화)까지 3주 동안 진행되며 A팀은 터키, 불가리아에서, B팀은 터키, 아제르바이잔에서 실시한다. 비용은 약 19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신청금 15만 원을 GMP선교부 예금구좌로 입금한 후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GMP선교부로

TEL. 556-9138, 565-6792

예수전도단 대학생 여름전도학교

예수전도단(YWAM)에서는 전국의 대학생 및 교회 청년, 대학부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위한 원리 원칙과 역동적이고 권능있는 제자의 삶 등 소그룹별 모임과 성경 공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가진다.

“Target Earth - Go To Your Heritage”라는 주제로 7월 3일(월)부터 7월 8일(토)까지 열린다. 장소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구로중앙교회 수양관으로 6월 16일까지 신청비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 대학부 사무실로

TEL. 793-4650, 796-8751

부산 중국선교언어훈련원 훈련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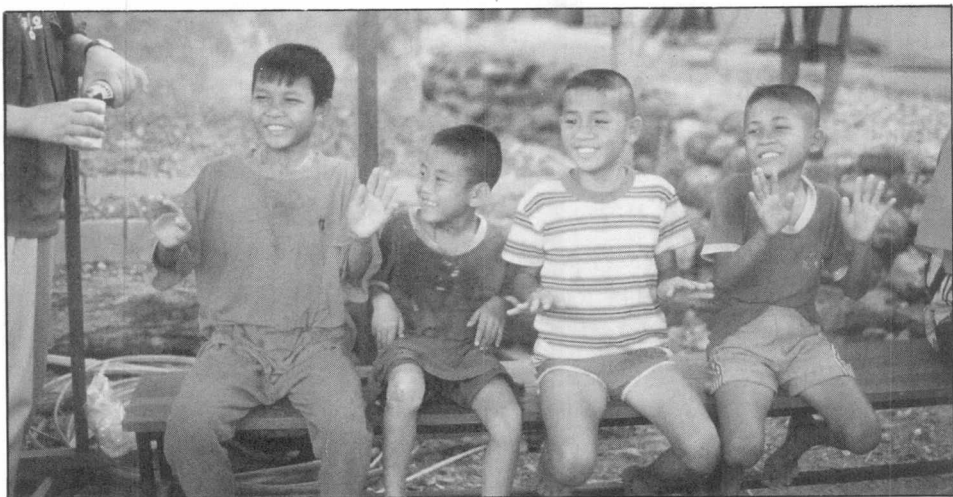
부산 중국선교언어훈련원에서는 제11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모집일정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8월 중 접수일에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한다. 훈련기간은 95년 9월부터 11월까지이다.

참가대상은 중국선교 헌신자 또는 관심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중국어 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 중국 언어훈련원으로

TEL.(051) 463-5610 FAX. 463-5606



해외협력선교회 '95 하기선교훈련원

PWM의 하기 선교훈련이 1995년 8월 7일(월)부터 8월 19일(토)까지 김화 수양관에서 80명의 선교관심자 및 선교헌신자를 상대로 개최된다. 본회의 소정 양식을 거쳐 등록하며 등록비는 18만 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PWM선교회로
TEL. 565-3431~2

한국선교훈련원 제12기 정기 훈련생 모집

한국 선교훈련원에서는 제12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훈련 기간은 1996년 1월 초부터 1996년 7월 말까지이며, 모집일정 및 지원 마감은 95년 5월 말까지로서 참고의견서 및 서류전형은 95년 6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7월 중 면담으로 허입을 결정하는데 대상자는 대졸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기본적인 신앙훈련을 받은 전임사역자 또는 평신도로서 타문화권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느끼고 이에 따라 선교지로 나가기 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받기 원하는 분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선교훈련원으로.
TEL. 649-3197, Fax. 647-7675

중국에서 일할 제과 기술자 모집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위해 제과·제빵 부문의 달란트를 가진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제과 기술 소유자로서 선교의 소명이 있는 분을 구합니다. 현지의 생활비는 자비량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PWM선교회
TEL. 565-3431~2
(중국 담당자)

你有沒有來過教會?

교회에 와 본 적이 있습니까?

미스 진(陳)이 장(張) 자매의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張: 陳小姐, 你以前有沒有來過教會?

미스 진, 교회 와 본 적 있어요?

陳: 沒有。這是我第一次來教會。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張: 啊, 是嘛。太好了! 我們往前面坐吧。

아, 그러세요. 정말 잘됐네요! 우리 앞에 가서 앉읍시다.

陳: 不要了。坐中間就好了。

그러지 말고 가운데 앉는 게 좋겠어요.

*招待: 這是我們的週報和教會簡介。送給你。

이것은 저희 교회 주보와 교회 소개 책자예요. 가지세요.

陳: 謝謝你。

감사합니다.

招待: 麻煩你留一下地址和電話。

실례지만, 주소와 전화를 좀 적어주세요.

陳: 對不起。下一次再填好了。

죄송하지만 다음에 적겠어요.

張: 沒關係。不要緊。我們來唱詩吧。

괜찮아요. 신경쓰지 마세요. 우리 찬송 부릅시다.

*招待: 주일 예배 안내를 맡은 성도.

◎ 중국인은 처음 교회에 갈 때 몹시 어색해 한다. 그래서 쉽게 자신의 주소와 전화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안내자가 강요하지 않는게 좋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개정문)

한중수교 이후, 여러가지 목적으로 중국을 드나드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체제가 다른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종종 낭패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뿐 아니라, 자칫 자신도 모르게 중국 당국의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호에서는 1994년 7월 13일 중국 국무원의 개정 배준을 거쳐 동년 7월 15일에 중국 공안부 외교부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실시 세칙>을 입수, 게재하여 독자들의 중국 출입과 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86년 12월 3일 국무원 비준, 1986년 12월 27일 공안부·외교부 공포, 1994년 7월 13일 국무원 개정 비준, 1994년 7월 15일 공안부·외교부 공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아래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이라 한다.) 제33조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실시 세칙을 제정한다.

제1장 입 국

제1조 외국인의 입국은 반드시 중국의 외교 대표기관·영사관 혹은 외교부에서 권한을 부여한 기타 해외주재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비자를 받아야 한다.

중국 국내의 권한을 부여받은 해당 기관의 서신·전보문을 소지하고, 또한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거나 또는 정부간 무역거래가 있는 국가의 일반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다음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국에 와야 하고, 상기 해외주재 중국 해당 기관에서 비자 신청을 받을 여유가 없었음이 뚜렷한 경우에는 공안부가 위임한 개항장 비자 비준기관에 신청하여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1. 중국 측에서 임시로 중국 초청을 결정하여 교역회에 참가하는 경우.
2. 초청에 응하여 중국에 와서 입찰 또는 공식적인 경제 무역 계약체결에 참석하는 경우.
3. 계약에 따라 중국에 와서 수출품 출하·감시·수입 상품 검사 혹은 계약·검수에 참가하는 경우.
4. 초청에 응하여 설비 설치 또는 긴급 수리공사에 참가

하는 경우.

5. 중국 측의 요구에 응하여 중국에 와서 배상문제 해결하는 경우.

6. 초청에 응하여 중국에 와서 과학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7. 초청에 응하여 중국 방문단체가 비자를 받은 후, 중국 측의 동의를 거쳐 임시로 인원을 증가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경우.

8. 위급환자에 대한 병문안 또는 장례를 치르는 경우.

9. 직접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이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24시간 내에 본래 항공편으로 국경을 벗어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국경을 벗어나야 하는 경우.

10. 기타 초청을 받고 상기 해외 주재 중국 해당기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겨를이 없었음이 뚜렷하고 또한 지어진 주관부문이 개항장에서의 비자 신청을 동의한 서신이나 전보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기 경우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개항장 비자 비준기관은 비자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제2조 공안부에서 권한을 부여한 비자 비준 기관은 다음의 개항장에 설립한다.

북경, 상해, 천진, 대련, 복주, 하문, 서안, 계림, 항주, 곤명, 광주(백운 공항), 심천(라호, 사구) 주해(공복).

제3조 외국인의 중국에 입국하는 신분과 소지한 여권 종류에 근거하여 외교 비자, 예우 비자, 공무 비자, 일반 비자로 나누어 발급한다.

제4조 일반비자 발급시, 외국인이 신청한 중국방문 사유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한어표음문자를 비자에 명기한다.

1. D비자는 중국에 와서 정착거주하는 자에게 발급

다.

2. Z비자는 중국에 와서 재직하거나 취업하는 자 및 가족에게 발급한다.

3. X비자는 중국에 와서 6개월 이상 유학, 연수, 실습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4. F비자는 초청에 의하여 중국에 와서 방문, 고찰, 강연, 상업, 과학기술·문화교류를 진행하며 단기연수, 실습 등의 활동이 6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자에게 발급한다.

5. L비자는 중국에 와서 관광여행, 친지방문 또는 기타 개인 사무로 입국하는 자에게 발급하며, 그 중 9명 이상의 단체로 중국 관광을 하는 경우에는 단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6. G비자는 중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7. C비자는 승무, 항공, 항운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 열차 승무원, 국제선 항공기 탑승원, 국제선 선박의 선원 및 그의 수행가족에게 발급한다.

8. J-1비자는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 기자에게 발급하고, J-2비자는 임시로 중국에 취재하러 오는 외국기자에게 발급한다.

제5조 외국인은 비자 신청시 질문을 받은 관련 사항에 대답해야 하고, 또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2. 비자 신청 보고 작성 및 최근에 찍은 3.5×4.5(2寸)판 증명사진 제출.
3. 입국이나 통과를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증명서류 제출·검사.

제6조 본 실시 세칙 제5조 (3)항목에서 가리키는 관련 증명은 다음과 같다.

1. D비자 신청은 정착 신원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정착 신원 확인서는 신청자 또는 위임을 받은 중국의 친지 대리인이 신청 정착지의 시(市), 현(縣)의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문에 신청하여 받는다.

2. Z비자 신청은 중국 초청·고용하는 단위의 초청·고용 증명서 또는 기관의 서신이나 전보문이 있어야 한다.

3. X비자 신청은 초청기관 또는 주관부문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4. F비자 신청은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서신이나 전보문이 있어야 한다.

5. 중국 관광을 위한 L비자 신청은 중국 관광 여행 관리부문의 접대 증명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에서 타국으로 가는 비행기표, 열차 탑승권 또는 선박표를 제시해야 한다.

6. G비자 신청은 방문국가(지역)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방문국가(지역)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연속 승차권을 소지해야 한다.

7. C비자 신청은 협의에 따라 관련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8. J-1, J-2 비자 신청시에는 주관 부문의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정착하거나 또는 1년 이상 체류하려면, 입국비자 신청시 소재국 정부가 지정한 의료위생 부문이 발급한 건강증명서 또는 의료위생 부문이 발급하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친 건강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 받아야 한다. 건강증명서는 발급한 날로부터 6개월 간 유효하다.

제7조 다음에 열거된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1. 중국 정부에 의해 추방당한 후 입국 불가 연한이 완료되지 않은 자.

2. 입국 후 테러, 폭력, 전복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

3. 입국 후 밀수, 마약 판매, 매음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

4. 정신병, 문둥병, 에이즈, 성병, 개방성 폐결핵 등에 걸린 전염병 환자.

5. 중국에 있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할 수 없는 자.

6. 입국 후 중국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기타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

제8조 외국인이 연속 승차권을 소지하고 또 이미 구입한 연속 좌석권으로 국제 항공편을 탑승하여 직접 중국 국경을 통과하는데, 변경도시에서의 체류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공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과비자 수속이 면제된다. 공항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국경수비 검사소에서 체류허가 수속을 해야 한다.

제9조 국제 항행 선박이 중국의 항구에서 정박하는 동안 외국 선원 및 수행가족이 상륙하여 항구 도시를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국경 수비 검사소에 상륙증을 신청해야 한다. 상륙하여 숙박을 원하면 숙박을 신청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항구도시 이외 지역에 가거나 또는 본래 선박편으로 출국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반드시 현지 공안국에서 상응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출입국 증명 검사

제10조 외국인이 개항장에 도착하면 국경수비 검사소에서 유효한 여권과 중국의 비자, 증명서, 출입국 신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와 비준을 거쳐 검사필인을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

제11조 외국인의 항공기 또는 선박이 중국의 개항장에 도착할 경우, 책임자는 다음의 책임이 있다,

1. 기장,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은 국경수비 검사소에 탑승원, 선원, 탑승객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2. 월경(越境)을 기도한 승객을 발견하면 즉시 국경수비검사소에 보고하여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

3. 입국이 불가능한 자는 본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국하게 하고 불가항력적인 원인 때문에 즉시 국경을 떠나는 것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의 비용과 떠날 때의 여비를 책임져야 한다.

제12조 다음에 열거된 외국인에 대해 국경 수비 검사소에서 입국 또는 출국을 저지할 권한이 있다.

1. 유효한 여권, 증명서 또는 비자 미소지 자.
2. 여권을 위조·수정하거나 타인의 여권·증명서를 소지한 자.
3. 증명서 검사를 거부한 자.
- 4.公安부 또는 국가 안전부가 입국·출국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자.

제13조 외국인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 중국 체제를 허가한 비자나 거류 증명서를 제시하고 심사받아야 한다.

제14조 비자 기관으로부터 통행할 개항장을 지정받은 외국인과 외국인의 교통수단은 지정된 개항장으로 입국·출국해야 한다.

제15조 본 실시조례 제12조에서 열거된 입국이 저지된 외국인이 즉시 본래 교통수단으로 되돌아 갈 수 없을 때에는 국경수비 검사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그의 활동 범위를 제한시키며, 가장 가까운 교통편으로 출국시킨다.

제3장 거 류

제16조 D, Z, X, J-1로 표기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체류지의 시·현 공안국에서 외국인 거류증 또는 외국인 임시 거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상기 거류증명서의 유효기한이 곧 소지자가 중국에서 허가 받은 거류기한이 된다.

외국인 거류증은 중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외국인 임시 거류증은 중국에서 1년 미만으로 체류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F·L·G·C로 표기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에 기재된 기한 동안 중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거류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제17조 외국인이 거류 증명서를 신청할 때에는 질문받은 관련 사항에 대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수속을 해야 한다.

1. 여권, 비자, 체류 사유와 관련되는 증명을 검사받을 것.
2. 거류 신청 보고서 작성.
3. 외국인 거류증 신청 시에는 건강증명서를 검사 받고 최근에 찍은 3.5×4.5(2寸)판 증명사진 제출.

제18조 외국인 거류증 유효기한은 1년 내지 5년으로 하되, 시·현급 공안국에서 외국인 체류 사유에 근거하여 정한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에게는 공안기관에서 1년 내지 5년 동안의 장기 체류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게는 영구 체류자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 중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체결한 협의에 의해 비자 수속을 면제 받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입국 후 본 실시세칙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거류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단,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외국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0조 외국인이 비자 또는 거류 증명서 유효기간 만기 후, 계속 중국에서 체류 또는 거류하려면 만기 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본 실시세칙 제7조 4항에 규정된 질병에 걸렸음이 발견됐을 때에는 중국 위생 주관기관에서 공인기관에 보고하여 그들을 앞당겨 출국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외국인 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성명, 국적, 직업 또는 신분, 근무 장소, 주소, 여권 번호, 동반자녀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증명서 소지자는 10일 이내 거주하는 공안국에 가서 등록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22조 외국인 거류증 소지자가 소재 시·현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이주하기 전 본래 거주지의 공안국에 이주 동기수속을 해야 하며, 타지역에 도착한 후 10일 이내 전입지 공안국에 전입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의 이주 신청은, 사전에 전입지 공안국에 전입 비준을 신청하고 동 증명에 의해 위 규정에 따라 이주 동기 수속을 해야 한다.

제23조 국가의 안보, 사회질서 또는 기타 공동이익 수호를 이유로 시·현 공안국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구가 일정 지역에 숙박지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상술한 제한지역에 설치한 숙박지 또는 사무소는 시·현 공안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허가된 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

제24조 중국에 정착하는 외국인은 매년 한 차례 지정된 날에 거주지 공안국에 가서 외국인 거류증을 제출하고 검사받아야 한다.

공안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에게 통보하여 출입국 관리부문에 외국인 거류 증명서를 제시하고 검사받도록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지정된 날짜에 해당 부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중국에서 거류 또는 체류하는 만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거류 증명서나 여권을 수시로 휴대하여 외사(外事) 인민경찰의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26조 중국에서 출생한 영아는 출생 후 1개월 내에 그 부모 또는 대리인이 출생 증명을 소지하고 현지 공안국에 신고하여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27조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하면 그의 가족, 후견인 또는 대리인은 3일 내에 사망 증명을 소지하고 현지 공안국에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자의 거류 증명서 또는 비자를 반납 폐기해야 한다.

외국인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관계자 또는 발견자가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제 19조 규정에서 칭하는 중국 정부 주관기관은 곧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부를 가리킨다.

제4장 숙박 등록

제29조 외국인이 영빈관, 호텔, 여관, 접대소, 학교 등 기업·사업체 또는 기관·단체 및 기타 중국 기관 내에 숙박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이나 거류 증명서를 제시하고, 임시 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미개방 지역에 숙박할 때에는 여행증도 아울러 제시해야 한다.

제30조 외국인이 중국인 가정에서 숙박할 때에는 도시에서는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가택주 또는 본인이 숙박자의 여권, 증명서와 가택주 호구부를 소지하고 현지 공간기관에 신고하고 임시 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농촌에서는 72시간 내에 현지 해당 파출소 호적관리 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

제31조 외국인이 중국에 있는 외국기관 내 또는 중국에 있는 외국인 가정에 숙박할 때에는 숙박인이 도착 후 24시간내 숙박기관, 가택주 또는 당사자가 숙박자의 여권 또는 거류 증명서를 현지공간기관에 신고하고 임시 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2조 중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숙박지를 떠나 임시로 기타 장소에서 숙박할 때에는 본 실시세칙 제29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숙박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제33조 외국인이 이동식 숙박장소에 임시로 숙박할 때에는 24시간 이내 현지 공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이동식 숙박장소를 제공한 기관 또는 개인은 24시간 전에 현지 공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5장 여 행

제34조 외국인에게 미 개방된 시·현에 가서 여행하려는 외국인은 사전에 소재 시·현 공간국에 여행증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후 여행할 수 있다. 여행증 신청시에는 다음의 수속을 거쳐야한다.

1. 여권 또는 거류증명서를 검사받을 것.
2. 여행 사유에 관련되는 증명 제시.
3. 여행 신청표 작성.

제35조 외국인 여행 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한다. 단,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 또는 거류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 외국인이 여행증을 수령한 후 여행증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려 하거나 외국인에게 미개방된 여행장소를 증가시키려 하거나 수행인수를 증가시키려 할 때는 공간국에 기한 연장이나 장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제37조 외국인은 허가받지 않고 대외에 미개방된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6장 출 국

제38조 외국인은 비자에 허가된 체류기한 내 또는 거류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출국해야 한다.

제39조 외국인 거류 증명서 소지자가 그의 거류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출국하여 다시 중국에 입국하려 할 때는 출국 전 본 실시 세칙 제5조, 제6조의 해당 규정에 따라 현지 공간기관에서 중국 재입국비자를 받아야 한다.

거류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출국 후 다시 중국으로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국시 국경수비 검사소에 거류 증명서를 반납, 폐기시켜야 한다.

제7장 처 벌

제40조 불법으로 중국에 출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RMB(인민폐) 1,000元 이상, 10,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줄 수 있고, 아울러 기한부 출국이나 추방 출국시킬 수도 있다. 사태가 심각하고 범죄에 해당되면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41조 본 실시 세칙 제11조 규정을 위반하고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교통수단의 책임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민 RMB(인민폐) 1,000元 이상, 10,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할 수 있다.

제42조 본 실시세칙 제16조, 제19조, 제20조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 처벌을 주거나 또는 불법 체류기간 1일에 500元을 벌금하되 벌금총액은 5,000元을 초과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준다. 사태가 심각하면 기한부 출국시킨다.

본 실시 세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처벌을 주거나 또는 5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태가 심각하면 기한부 출국시킨다.

본 실시 세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간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간기관의 결정을 강제 집행하는 동시에 경고처벌을 주거나 또는 1,000元 이상, 10,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태가 심각하면 기한부 출국시킨다.

제43조 본 실시 세칙 제24조, 제25조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거류증명서를 검사받지 않거나 수시로 여권이나 거류 증명서를 휴대하지 않거나 인민경찰의 증명서 검사에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처벌을 주거나 또는 5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태가 심각하면 기한부 출국 시킨다.

제44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자의로 취직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의 임직 또는 취업을 종지시키는 동시에 1,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사태가 심각하면 기한부 출국시킨다.

자의로 외국인을 고용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고용 상태를 중지시키는 동시에 5,000元 이상, 50,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자의로 고용한 외국인을 송환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제45조 본 실시 세칙 제4장의 규정을 위반하고 숙박당기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공간기관에 숙박당기를 하지 않거나 또는 유효한 증명서를 미소지하고 숙박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 처벌을 하거나 또는 50元 이상, 5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6조 본 실시 세칙 제34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준을 거치지 않고 외국인에게 미개방된 지역에 가서 여행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 처벌을 하거나 또는 5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태가 심각하면 기한부 출국시킨다.

제47조 비자와 증명서를 위조, 수정, 오용, 양도, 매매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증명서를 반납 폐기시키거나 또는 회수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1,000元 이상, 10,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는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주거나 기한부 출국 시킬 수도 있다. 사태가 심각하고, 범죄에 해당되면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48조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및 본 실시 세칙을 위반한 경우는 처벌을 면제한다.

외국인이 벌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구류로 처벌할 수 있다.

제49조 본 장에서 규정된 각종 벌금, 구류 처벌은 외국인의 불법 출입에 협조하여 외국인을 불법체류 또는 거류하게 한 자, 자의로 구직하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 유효 여행 증명을 미소지한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미개방된 지역에 가서 여행하는 데 관련된 당사자에게도 적용된다.

제50조 처벌을 받는 자가 공간기관의 벌금, 구류 처벌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원 판결기관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상급 공간기관에 제소할 수 있으며 상급 공간기관은 제소를 접수하는 날로부터 15일 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처벌을 받은 자는 직접 현지 해당 인민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제51조 본 장에서 규정된 처벌은 공간기관에서 집행한다.

제8장 기타 규정

제52조 외국인의 각종 비자, 증명서의 연장 또는 변경 신청에는 다음 수속을 해야 한다.

1. 여권, 비자, 증명서를 검사받을 것.
2. 기한 연장 신청표 또는 작성 변경 신청표 작성.
3. 기한 연장 또는 변경 사유에 관련되는 증명 제출.

제53조 외국인의 각종 비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비자·증명서의 기한 연장과 변경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각종 비자·증명서에 관한 수수료 기준은 공안부와 외교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중국 정부와 비자 요금 협의가 있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협의서에 따른다.

제54조 16세 미만인 외국 아동이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과 동일한 여권을 사용하고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따라 중국에 올 때는 별도로 입국, 출국, 체류, 여행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55조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중국의 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또는 못쓰게 되었으면 즉시 현지 해당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문에 보고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인 거류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현지 신문에 무효 폐기 성명을 내야 한다.

제56조 본 실시세칙에서 언급되는 각종 비자·증명서와 신청보고서의 서식은 공안부와 외교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7조 본 실시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실행한다.

중국은 지금



강성광 저
신국판/255쪽/값 5,000원

급변하는 중국의 실상은
무엇인가?
현지에서 선교사가
수년 간 발로 뛰며 자료를
모아 엮은 이 책을 통하여
오늘날 중국의 실상을
생생하고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다.

1부 중국은 지금

1.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상황과 변화
2. 교육 문제 및 새로운 추세
3. 농촌 현실과 문제
4. 위생과 의료 문제의 이해
5. 민공의 실태와 이해
6. 흔들리는 가정
7. 미신 열풍
8. 급증하는 자살률
9. 퍼져나가는 마약의 마수
10. 벼락부자들
11. 신장을 팝니다

2부 복음을 들고 중국을 알고

12. 중국 교회의 올바른 이해
13. 중국 선교의 가능성
14. 중국 선교의 실제적 준비
15. 지역별 선교전략

개혁과 개방 후 급변하는 중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한 이 책은 중국선교 관심자에게 그리고 중국을 단기간 여행하거나 혹은 사업을 위해 방문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유학,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자는 외대 중국어과를 졸업한 후 홍콩에 거주하면서 대륙을 자주 왕래하며 그 동안 보고 들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어느 날 중국이 당면할 여러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선교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였습니다.

이 책은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폭넓은 시각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영구(외대 중국어과 교수)

조이선교회

전화 925-0415(영업), 929-3655(편집)

팩스 923-3016

중국어문선교회는 이렇게 일합니다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선교의 여러 사역 중 특히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훈련사역

중국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지망자들을 위해 중국선교훈련원을 통해 중국어와 현지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중국어 교재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사역

정기적으로 중국선교세미나를 개최하며, 국내외 선교정보의 수집 및 자료화, 중국교회 동향분석, 중국소수민족 및 각 성별 연구, 최근중국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중국선교 전략 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문서사역

중국선교의 필요성과 전략이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선교책자를 번역, 출판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신앙 및 신학서적을 중역(中譯)하는 일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방한중국인 전도사역

국내에 연수생으로 들어와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과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도 및 제자화 양육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승선전도사역:

한국에 들어온 중국배에 매주 올라가 중국인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1호/402호)
전화 / 594-8038, 535-4255, 533-5497, 592-0132
팩스 / 599-2786

섬기는 사람들

고문/방지일 목사, 김지일 장로, 대표/박성주 장로, 총무/이요한, 행정실 실 장/김만섭, 재정간사/강영옥, 교육부 운영위원/김성곤, 간사/김바울, 연구부 운영위원/석은혜, 간 사/권수영, 출판부 운영위원/석은혜, 간 사/차이나정광숙·이민선, 훈련원 운영위원/장희락, 간 사/김바울, 선교국 운영위원/박애린·정선영, 간 사/임화평·안성자, 인천지부 책임봉사자/임현경, 파송연구원/주안도, 파견간사/김광석·주미애·최동신, 파송선교사/박애린(국내)·정선영(국내)·이성운(해외)·윤승일(해외), 협력선교사/주성자·고대위·이샤론·강성광·김상화·예보람·주애화·주은파



중국을 주께로 기도함주회

오늘처럼 기도가 요구되는 시대가 있을까요?

그러나 요즘처럼 기도가 잠들어 있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을 열어 젖히는 열쇠입니다.

우리를 얹매는 대적의 진영을 산산히 깨뜨려 버립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한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불가능이란 더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기를 명하시는 일이 기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중국이 변하길 원하십니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모이십시오.

중국을 위해,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위해 함께 무릎꿇읍시다.

‘중국을 주께로 기도함주회’는

기도의 광장을 마련해 놓고 기도의 헌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 **문의** : 중국어문선교회 (Tel : 594-8038, 533-5497)

중국선교 적응훈련

제 7 기 훈련생 모집

선교현장에 임하기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함은 선교사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실하게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입니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투자하는 6개월은 결코 많은 시간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상

- 교회,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 선교사.
-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 선교사.

참가인원 : 10명 내외.

선 발 : 본 훈련원의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 능력 배양.
- 생활중국어와 선교 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 중국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 구체화.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95년 7월 1일~7월 31일

원서 접수 순서대로 면접하여 합격예정자를 결정, 개인 통보하고 훈련원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등록한 순서에 따라 합격 인원을 확정함.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1통
 서약서(소정양식) - 1통
 추천서(소정양식) - 3통
 자기 소개서 - 1통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

95년 9월 2일(토), 오후 3시.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훈련내용

언어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며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생활중국어는 물론 성경, 전도, 찬양 등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함.

교육내용

전반(7주)/ 초급중국어1·2, 선교중국어 기본어휘, 사도신경, 주기도문, 회화(일반회화, 선교 회화), 중국어찬양.

후반(7주)/ 중국어성경,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신앙독본, 중국어 특강, 청력 훈련.

연구

중국문화 및 선교 연구세미나

매주 전문가들의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중국문화와 중국선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임.
세미나 주제

중국문화개관, 중국고대사상, 중국공산주의 연구, 중국교회 현황과 선교 전략연구,
중국기독교사, 중국타종교 이해1·2, 최근 정세변화에 따른 선교대책, 근대 중국선교사의
선교방법론, 전문인선교, 한국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선교, 산둥선교의 경험과 교훈,
중국의 문화 이해 중국선교사역에 임하는 자세, 조선족 현황,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협력방안,
중국 선교에 있어서의 문서사역.

합숙

중국어 공동체훈련

1회에 걸친 합숙훈련을 통해 강도높은 언어 실습, 공동체 섬김 및 문화충격에 대한 적응능력 배양.

현지 연수과정 및 답사

언어실습, 문화적응, 선교비전의 확인을 위하여 95년 12월 중에 6주간에 걸쳐서 현지연수(4주) 및
답사(2주)를 실시.

훈련기간

1995년 9월 2일~1996년 2월 29일 (6개월)

일 시

매주 월, 화, 수, 목, 금.
월(오후 1시~5시 20분),
화·수·목·금(오전 8시~12시 20분).

참 가 비

원서대금 1,000원, 접수비 1만 원
전·후반 각 32만 원(합숙훈련, 현지 연수 및 답사 경비는 별도)

문의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 - 7

신우빌딩 402호

우 137-069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장희락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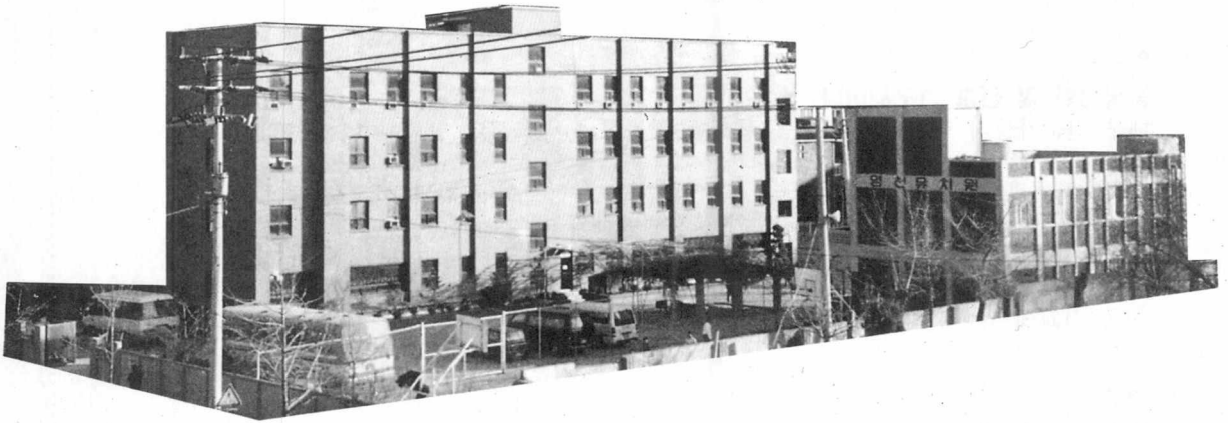
TEL : 594-8038, 535-4255, FAX : 599 - 2786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선교훈련원(원장·박성주 장로)은 선교언어 훈련과 중국문화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8 기 훈련은 96년 3월에 개강합니다.

성광선교센터



• 선교정보 자료실
선교지역 및 종족, 선교단체,
선교활동 및 전략 등에
관한 문서자료와 비디오
자료 구비



• 도서관
선교 및 신앙 관련 도서



• 외국어훈련원
(F.L.T.C)
현대식 LAB 시설완비



• 세미나실
30~200석까지 다양



• 유치원
선교사 자녀 100%
장학금 (단, 국교부터
고교생은 50%)

• 레스토랑
저렴한 가격의
정성이 담긴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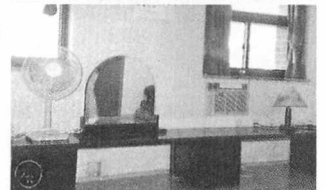
• 한식당
300석의 한식 온돌 식당



• 게스트 하우스(특실)
TV, 냉장고, 욕실, 주방



• 게스트 하우스
냉난방 완비된
온돌 및 침대방



• 의료봉사
선교사 가족 무료진료
(내, 외, 치과)
의료봉사진 : 필립
선교회, 길선교회)



♣ 교통편

주안역에서 5번 41번
마을버스 1번
인하대 후문 한 정거장
전에서 하차 (20분 소요)

성광선교센터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4동 89번지

양치호 목사

TEL : (032) 872-2336~8

FAX : (032) 862-0642



최저가로 공급하고자 노력합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주변기기

MAIN BOARD • 386DX-40 • 486(VESA) • 586(팬더엄)PCI	HDD-FDD • FDD-1.2MB,1.44MB • HDD-250MB,340MB 420MB,540MB 삼성·컨탕·코너 W/D, 씨게이트, 맥스티	VIDEO • ISA 미켈란젤로 JR256C TVGA 65K • ISA 한글마당JR16 한글마당JR24 • VESA 한글마당WINX24 한글마당WINX12.4 한글마당WINXP24 • PCI 한글마당WINX(PCI)
CPU-RAM • 1MB모듈램 • 4MB모듈램 • 8MB모듈램 • 16MB모듈램 60,66 • 32MB모듈램 • 1486DX2-50 • 1486DX2-66 • 팬티엄(586)	MONITOR • 14", 17", 20" • 샤프톤 바이로그린 • 싱크마스터 • 금성 그린 • 현대 솔로몬	PRINTER • 잉크형 DJ-500K(HP) DJ-505K(HP) DJ-560K(HP) ST-800H(삼보) SI-1000H(삼보) OBS-3630(큐 닉스) 마하젯(삼보) • 도트 LQ-570H+(삼보) LQ-1570H+ (삼보) LQ-1270+(삼보) SP-2412NW(삼성) SP-2421NW(삼성) SP-241 • 레이저 Myiasor-3105V-SF-III(큐닉스)
CASE • EL-590 • EL-690 • HG-488 (DESK-MIDDLE-BIG)	SOUND CARD • 옥소리 1.8 2.8 3.6 16BIT • 환상의 만남 • 사운드 브라스터 • 2.1, 프로, 16BIT • 멀티킷트	기 타 • CPU냉각팬 • TV 수신카드 • 프린터 카드 • 시리얼 카드 • ISA슈퍼1/0 • VESA슈퍼1/0 • 마우스 • 세진103KEY • MGP • PCI • SCS(1/0)
한글 FONT • 한글바람 3.0 • 한글도깨비 5.1 • 옴니 블랙 BOX PRO	MODEM • 9600 BPS • FAX 모뎀 • 초고속 14,400BPS 19,200BPS 선승, 메아리, 스마트, 액센트 한화	CD-ROM • PANASONIC • CR-562B(680MB) • 더블스피드(320MS)

저렴한 가격 · 신속한 공급 · 컴퓨터에 관한 모든 것 공급 · 편리한 구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6

을 지 컴 퓨 터

(주)을지서적 내 컴퓨터 부

TEL.777-1776

775-3403

FAX.755-4487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5년 7,8월호(통권34호)

발행처 /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표 / 박성주

발행·편집인 / 이동화

편집장 / 석은혜

편집기자 / 한영혜

차이나

권수영

이민선

편집디자인 / 정광숙

광고·홍보 / 김정하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 바 - 2078

발행일자 / 1995년 6월 10일

인쇄인 / 김수민(신성기획사)

값 / 3,5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 594-8038, 535-4255, 533-5497

팩스 / 599-2786

훈련원: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 594-8038, 535-4255

팩스 / 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전화 / 032-872-0742

선교국/사랑의 집: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306-67

전화 / 873-2570

스마트라인지번호
800-7602362

7602362

편집후기

낮게 깔린 먹구름, 습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 하루종일 드리운 어두운 그늘…….

드디어 또 한 차례, 긴 장마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가 보 다.

그 지리함 때문에 혹은 가깝씩 심숨을 부리는 통에 장마가 우리에게 달갑잖은 불청객 대접을 받기는 해도, 지난 겨울 애타는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갈라져 가던 저수지를 생각해 보면 올해의 장마는 왠지 고맙기까지 하다.

무슨 일이고 그렇지 않을까?

지리하고 땡땡하고 그저 벗어나고 싶은 부분들이 어느 일이나 있기 마련, 이럴 땐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다. 그 일을 시작했을 때의 첫 감격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그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의 삶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첫 감격이신 주님이 바로 힘의 원천임을 잊지 말자고 말했 드리고 싶다.

국외 정기구독료(1년)

항공우편

1지역	일본, 대만, 마카오 책값 21,000원, 우편료 9,720원, 합계 30,72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21,000원, 우편료 13,320원, 합계 34,32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21,000원, 우편료 19,320원, 합계 40,32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21,000원, 우편료 21,720원, 합계 42,720원

총판/ 예영커뮤니케이션

서울시 중구 정동 1-23 구세군중앙회관내 / TEL. 722-9577, FAX. 722-9578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_____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137-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_____

〒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137-069

중국선교세미나...

10월

8월

중국의 도시선교

중국인의 세계관

세계관이란

철학과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중국인의 세계관은

유교, 도교, 불교에 근거를 두고 있고,

샤머니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세계관을 알 때

중국인을 위한 선교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선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인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선교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열려진 개방화의 길을 따라 급속한

도시의 팽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과

벽촌에서 무작정 도시로 도시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황금어장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그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들의 삶과 함께 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도시의

사역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제: 중국의 도시 선교

일시: 1995년 10월 30일(월) 오후 7시-9시

강사: 이문식 목사 (남북나눔운동본부 기획실장)

장소: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참석대상: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

참가비: 없음

문의: Tel. 594-8038, 533-5497, 592-0132

Fax. 599-2786

주최: 중국어문선교회

주제: 중국인의 세계관

일시: 1995년 8월 28일(월) 오후 7시-9시

강사: 채은수 목사(충신대학교 선교학 교수)

장소: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참석대상: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

참가비: 없음

문의: Tel. 594-8038, 533-5497, 592-0132

Fax. 599-2786

주최: 중국어문선교회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
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
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한답니
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
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가 함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
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①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02) 320-0137, 0192

②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성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익 익 이 - 영 육 구 원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